

I. 머리말

공 백

I. 머리말

물질문명의 발전주기가 짧아지고,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물질문명과 비물질문명간의 문화지체현상도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대의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빠른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아직 사회화 및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기의 경우 새로운 변화로 인한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사회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출과 같은 개인적 행동과 학교에서의 '집단왕따'행위에서부터 보다 직접적인 폭력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도 더해가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행동은 각 나라마다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국이 처한 상대적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분단 및 왜곡된 교육현실에서 비롯된 상대적으로 독특한 청소년문제행동의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과 귀국청소년문제가 그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과 귀국청소년의 경우 서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일반적인 청소년 문제행동과 달리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과정과 문제행동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문제화의 개연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실제로 이들 두 집단의 한국사회적응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점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청소년 문제행동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책의 마련에 있어서 문화충격에 기인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바, 일반적인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과는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이탈주

민의 증가로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체제간의 이질성의 차이에 기인한 문제행동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세계화시대의 도래 및 조기유학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타국의 문화에 접해있던 청소년들이 귀국함에 따라서 본국의 문화와 타국의 문화적 경험간의 부조화로 인한 아노미적 성격의 문제행동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과 귀국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한국사회에서의 적응과 부적응이라는 포괄적 틀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북한체제의 위기구조 심화와 사회통제의 이완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량탈북도 예상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아울러 남한사회의 적응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체제간의 이질성 및 사회적 아노미의 경험 등으로 남한 사회부적응 및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추세에 따라 남한사회내의 북한이탈 청소년문제도 점차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조기유학분 등으로 인한 귀국청소년의 증가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청소년문제도 확대되고 있다. 확고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기 어려운 청소년기의 특성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지 못한 청소년의 문제행동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약물남용 등 심각한 문제행동현상도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조기유학추이가 지속될 경우 향후 귀국청소년이 남한사회내의 하나의 하위문화를 형성할 가능성도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문제행동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과 귀국청소년이라는 제한된 집단에 대한 연구로서 연구에 일정한 제약요인을 지니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수가 매우 작으며, 조사대상자와의 면담조사에 있어서도 개인적 관계가 중요한 만큼 문제행동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특히 모집단의 수가 매우 작기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질문지를 통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남한사회부적응이라는 포괄적인 틀속에서 조사자와의 친밀한 관계 등을 활용하여 개인적 경험 혹은 주변에서 목격한 사례 등을 수집하는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귀국청소년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수는 북한이탈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각 지역에 분산되어 거주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표본추출 방식의 활용보다는 주로 사례 및 간접적 방식을 통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과 귀국청소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동시에 문제행동의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책의 마련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 및 귀국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과 대책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청소년과 귀국청소년의 원만한 남한 사회 적응 및 재사회화 대책을 개발하고, 사회통합형 청소년대책을 위한 기초 자료 축적을 지향하고 있다.

공 백

II. 북한이탈청소년

1. 북한이탈주민과 적응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사회적응
3.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실태
4.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부적응과 문제행동
5. 북한이탈청소년 문제의 원인
6. 북한이탈청소년문제 대책

공 백

II. 북한이탈청소년

1. 북한이탈주민과 적응에 대한 이론적 고찰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사회로 온 북한이탈주민들은 복합적인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들은 난민(refugee)이란 개념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망명자, 피난민 혹은 이주자로도 정의된다. 국제사회는 이들을 보편적으로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광의에서 탈북자로 부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귀순자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통일되기 전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난민을 이주자로 지칭하여 왔다. 이와 같은 개념들은 난민의 발생 배경과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인류역사상 난민은 항상 존재하여 왔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 이유로 자기가 살았던 지역을 떠나 이동하는 자들로 규정되어 왔다. 난민의 사전적 의미는 “종교적, 정치적, 인종적 요인에 의해 거주국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 이주한 사람”¹⁾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의는 내란이나 전쟁으로 발생하는 유민, 즉 피난민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유엔 고등판무관실도 난민개념을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를 받을 두려움으로 인해 국적국 밖에 있거나 해당국의 보호를 꺼리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요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사회개발을 위한 유엔리서치연구소는 난민을 정치적 환경의 결과로 삶의 위협 없이 평화 속에 살거나 안전을 목적으로 거주했던 나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로 규정한다²⁾ 국제법상 난민은 일신상의 이유로 국적국 또

1) Britannica,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10. By Encyclopaedia Britain Inc 1994.

는 상주국에서 외국으로 탈출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자를 규정하는 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난민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과의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타국으로 탈출하여 타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정치적 난민과, 전쟁, 내란, 정치폭동에 기인한 전쟁난민, 경제적 궁핍 또는 곤경을 피하기 위해 생존권 확보가 원인인 경제적 난민, 그리고 자연재해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인도적 난민으로 구분된다. 좀더 단순하게 정치적 난민을 제외한 나머지 난민은 인도적 난민으로 구분되어지기도 한다.³⁾ 결과적으로 난민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소속된 나라로부터 벗어나 타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는 개인별로 귀순동기나 배경이 다르고 정치적 견해, 경제적 궁핍, 인권침해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측면을 지닌다. 전쟁난민개념은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들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인종이나 종교, 특정사회집단의 소속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연재해에 의한 인도적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치적 의견, 경제적 궁핍, 인권침해요인 등 복합적인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난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부분은 남한사회의 흡인요인보다는 북한의 체제

2) UNRISD, Sustaining Afghan Refugees in Pakistan Report on the Food, Situation and Related Social Aspects. 1983, UNRISD.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and Prospects of Guatemalan Refugees in Mexico.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1987

3) D. Perluss, and J F Hartman, "Temporary Refugee Emergence of a Customary Norm,"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1986.

와 환경에 기인한 배출요인에 의해 탈북 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남한사회로 귀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의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 사회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숨어 지내거나 기타 지역에서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도 개념상 난민에 해당하지만 난민으로서의 대우를 못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남한사회의 적극적인 대책의 강구가 있어야 하며, 유엔이 난민에 대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하여 국제법적으로 용인된 ‘강제귀국금지’ 원칙의 적용과 이를 통한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

서독의 경우 통독이전 헌법 제116조항을 통해 독일국적을 소유하거나 독일혈통의 난민 또는 박해자에 해당하는 자를 독일국민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을 이주민(übersiedler)이라고 취급하여 왔다. 즉 분단이후 동독에 거주하던 게르만 혈통의 독일인이 법적 절차 혹은 정치범 인도에 의해서 서독으로 이주해 온 경우, 독일인의 피가 흐르면 누구나 같은 민족으로서 이주자(Flüchtlinge, Zuvänderer)로 인정하고 있다⁴⁾ 이는 일종의 이민개념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조항을 보면 헌법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귀순북한동포보호법⁵⁾인 법률 제4568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동포로 지칭하고 있다

4) 통일원, 『인권관련 법규 및 동·서독 사례연구』, 1994, p376.

5) 1993년 6월에 제정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은 1978년에 제정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독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서독의 긴급난민수용법(1950년도에 제정)은 체제우월 선전보다는 동독에서 탈출한 사회경제적 난민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오혜정, 1996:65). 특히 긴급수용법에 대한 1953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서독 기본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동독지역으로부터 온 피난민에게도 적용되는 물론, 동독주민들이 일단 서독으로 이주·탈출한 경우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없이 서독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확정했다(통일원, 1994 365)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규모와 사회경제적 배경 상 소수집단(minority)에 해당한다. 사회적 의미로 소수집단은 적은 수의 성원을 의미하나 특권, 권위나 권력을 가진 다수자들에 의해 소수자들이 신체적, 문화적 특징을 가짐으로써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편견과 차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된다. 킨로크는 소수집단을 다수자(majority)로 부터 육체적, 문화적, 행위적 척도가 다름으로써 부정적인 부류로 취급되고 통제의 대상이며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인 대상이 된다고 한다.⁶⁾ 이와 같이 소수집단개념의 경우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자 열등, 좌절, 배제, 박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따라다닌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치적 환경 및 사회문화적 환경, 삶의 양식이 다른 체제로부터 넘어온 극소수의 집단으로, 다수집단이 소유한 규범이나 기대의 수용 및 적응, 동조, 통합을 강요당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소수집단에 해당하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외되고 차별 받는 이질적인 소수자가 아니라, 공유하지 못했던 민족정체성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다수자의 한 성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체제인 남한사회에서 문화적 동화 및 사회심리적 적응상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새로운 체제와 삶의 방식에서 오는 차이들은 남한사회의 적응에 장애로 등장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서 효과적 적응이란 새로운 사회체제에 순응하고 통합되는 재사회화 과정으로 사회체제, 문화 그리고 물리적 환경과의 능률적 조화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복합적인 의미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인간들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변화하거나 조정한다. 이 과정을 적응이라 하며, 인간이 신체적,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고 자신의 욕구 및 동기, 환경적 요구와 제약사이에 균형

6) G C Kinloch, The Sociology of Minority Group Relations Prentice Hall Inc, 1979, p 26

과 조화, 타협을 이루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태주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환경의 피조물인 수동적인 존재로서 보면서, 적응을 인간들이 학습행동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본다.⁷⁾ 즉 인간은 다윈이 언급한 적자생존의 원칙처럼 근본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하는 존재로 학습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생물학적인 존재로 파악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지학과와 상징적 상호작용학과와 관점은 인간을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스스로의 지각을 통해 환경을 재구조화시키는 능동적, 합리적, 창조적인 존재로 본다. 주어진 환경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변화, 조정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 속에 적응하는 존재로 인간을 파악하는 것이다.⁸⁾ 이는 파슨즈의 거시적 차원에서의 적응개념과 유사하다. 파슨즈는 사회체제자체가 자신의 환경을 조정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하위체계나 경제제도의 발전을 통하여 통합·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관점은 인간이 복합적 사회체제인 환경을 조정하고, 대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보편적 존재로 인식한다. 새피는 한 사회의 성원인 인간이 사회의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과 잘 조화를 이루는 상태 또는 과정으로 적응을 정의하여, 개체의 욕구와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한다.⁹⁾

이와 달리 프로름은 적응개념을 외형적 변화와 내면적 변화측면에서 본다. 즉 적응개념을 정적 적응과 동적 적응으로 구분하여, 정적인 적응은 인간들의 성격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도구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습관의 수용을 의미하며, 동적인 적응은 상황의 요구 즉 긴장이 발생되어 복종으로 이끄는 것으로 본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적응개념 논의에는 일정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

7) 전병제, 「사회심리학」, (서울 경문사, 1993), p.216.

8) 전병제, 위의책, pp 200~218.

9) H F Shaffer,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Houghton Mifflin co, 1956, p.30.

10) E. Fromm, *Escape from Freedom* Rinehart. N Y, 1941, pp. 15~16

히 북한이탈주민들의 효과적 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적응으로 구분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심리적 적응은 개인이 여러 가지 요구나 압력을 관리하거나 대처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행태주의학파의 관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폴락은 개인적 적응을 타자의 기대에 맞추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정으로 규정하여 적응을 개체론적 차원과 미시적 측면에서 이해한다. 적응을 거시적 측면에서 본, 바라비와 그의 동료들에게 있어서 적응이란 사회적 통합, 사회적 평가, 그리고 사회규범에의 동조를 의미한다.¹¹⁾ 이는 사회적 적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에 부응하면서 긍정적 준거집단을 이용하여 감정적으로 그들과 일치시키려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적응이란 개인적 또는 사회적 환경과 조화, 수용, 그리고 동조의 과정이나 상태라고 언급될 수 있다. 따라서 적응이란 한 사회체제가 요구하는 규범이나 가치를 학습하는 사회화과정과 내면화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 적응이란 새로운 사회의 삶의 효과적 수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남한사회적응에 필요한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의 학습 및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동화(assimilation)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문화적 동화는 하나의 문화가 다른 사회나 문화와 접촉하여 갈등 없이 융화되어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적 동화란 여러 가지의 독특한 하위문화를 가진 집단이 그 사회의 지배문화와 유사해지거나 지배문화권 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든은 문화적 동화를 자기자신들의 고유 문화형태를 핵심사회의 문화로 바꾸는 것으로¹²⁾, 인간의 내면적, 정신적 문화의 동화를 의미하는 내면적인 적응이

11) R. Bennett, *Aging, Isolation and Resocialization*.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980, p.30

12) M. Gordon,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라고 규정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새로운 체제에서의 문화적 동화를 수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삶의 양식의 변화라는 커다란 변화 속에서 개인으로서의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충격을 체험할 수도 있게 된다.

동화는 문화적 측면을 넘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사회구조적 동화는 새로운 사회의 다양한 조직, 제도, 단체들에 가입하고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활동을 개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동화의 경우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이 경제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수반하므로 경제적 안정을 위해 상행위의 습득, 합리적 경제행위 등과 같은 제반 제도와 결합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든은 문화적 동화는 물론, 결혼동화, 구조적 동화, 정체성 동화, 태도수용적 동화, 행위수용적 동화, 시민적 동화 등 7단계로 동화과정을 언급하고 있다.¹³⁾ 이와 같은 동화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쳐야할 일련의 과정이다. 동화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상이한 문화의 접촉을 통해 일정정도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되며, 문화지체현상을 체험하며 동시에 역할과 준거대상의 부재 및 가치관의 혼란과 같은 아노미현상을 체험하게 된다.

새로운 규범과 가치관, 생활양식 또는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화와 재사회화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재사회화란 효과적 적응, 갈등 없는 동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회 통합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화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사회적 규범과 가치, 생활양식을 학습하고 내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화는 상호인간관계의 약화를 의미하는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적응사이를 중재하는 매개변인으로서 집단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기존의 삶의 방식을 상당부분 수정해야 하는 탈사회화와 재사회화과정을 거쳐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Religion and National Origin. Oxford Uni. Press, 1964

13) M Gordon,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 Oxford Uni. Press, 1964.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전에 받아들인 내면화된 규범이나 가치, 행위유형을 떠나서 상이한 가치와 행위유형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과정은 극도의 긴장이 요구되며 전혀 새로운 가치체계, 규범,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 것으로 인성의 변화도 초래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효과적인 적응과 동화과정을 거쳐야하며, 이는 효과적인 재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새로운 사회체제에서 요구하는 규범이나 가치, 기대의 수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사회적응

1) 현 황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은 2002년 12월 말까지 총 3,131명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사회와 전혀 다른 정치사회체제하에서 생활하여 왔다. 따라서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도 남한주민도 아닌 '주변인'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사회부적응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사회정착과정에서 사실상 매우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연구는¹⁴⁾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14) 선한승, 「북한 탈북 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과제」(서울:한국노동연구원, 1995), 통일원,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서울:통일원, 1994); 한국교육개발원, 「내가 받은 북한교육」(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94); 김영수 정영국, 「탈북 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서울:통일연수원, 1996), 전우택, 「통일후 예상되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 통일원 95년도 연구용역 과제;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귀순자 수기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서강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박종철·

심리적 혼란, 외로움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조사¹⁵⁾ 결과를 보면, 1993년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표 2-1>~<표 2-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유형이 이전과 달리 다양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능력이 낮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¹⁶⁾ 또한 제3국을 통한 탈북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대수준과 비교의식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으로도 평가된다.

김영윤·이우영,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전우택·김명세 박중규,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통일한국에서 예상되는 사회갈등과 그 대책」, 1997.5; 윤덕룡·강태규, “북한이탈주민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통일한국에서 예상되는 사회갈등과 그 대책」, 1997.5, 이철우,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적응력 제고력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통일원 신진학자 지원연구, 1996; 이기영; 김정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이영일의원은 1998년 국정감사시 설문조사결과(199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168가구대상)를 발표하고 북한이탈주민정책을 지적하였으며, 통일부는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확한 거주실태 및 생활실상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정착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0년 이후 입국한 328명중 국내거주자 28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생활실태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987년 이후 탈북한 여성 34명에 대한 일대일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16) 북한이탈주민의 북한거주 당시 직업을 살펴보면, 노동자와 농장원이 47.5%로 다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양·아동·학생 등이 3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출신계층이 대부분 노동자와 농장원, 그리고 무직이라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갖게 되는 직업도 전문직이 아닌 일반 노무직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현재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연구원 등 관리 전문직 2.8%, 회사원 등 사무직과 생산직 봉급생활자 21.7%, 상업 등 자영업자 4.3%, 학생, 고령자, 주부 등 경제활동 불가능자 41.8%로 나타난다.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과제”, 통일교육원, 2002.10.18,

<표 2-1> 북한이탈주민 연령 분포 (2002년도 입국자)

연령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인원	55	155	332	368	130	61	40	1,141(명)
비율	4.8	13.6	29.2	32.3	11.3	5.3	3.5	100(%)

(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2003. 1.27)

<표 2-2> 북한이탈주민 출신지 분포 (2002년도 입국자)

출신지	함북	함남	평안	양강·자강	강원	황해	기타	계
인원	757	121	95	51	26	39	52	1,141(명)
비율	66.3	10.6	8.3	4.5	2.3	3.4	4.6	100(%)

(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2003. 1.27)

<표 2-3> 북한이탈주민 재북시 직업 분포 (2002년도 입국자)

직업	관리직	전문직	예술·체육	노동자 농장원	봉사분야	군인	기타	계
인원	32	45	18	504	72	11	459	1,141(명)
비율	2.8	3.9	1.6	44.2	6.3	1.0	40.2	100(%)

(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2003. 1.27)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 보고서(1998)」에서 성공적 사회정착의 지표로 취직률, 한달 평균소득, 현재 소유재산, 정착지원에 대한 만족도,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1990년이후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응답자 188명중 51.6%인 97명이 취업을 했고, 14.9%인 28명이 전문대 이상에 재학중이며, 29.4%인 63명은 미취업상태이다.¹⁷⁾ 직업이 없는 경우 41.1%가 정착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일용노동을 하는 경우가 24.2%이며, 종교단체 등의

1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보고서」, 1998.12, p.12.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14.2%에 달하고 있다.¹⁸⁾

한달 가구당 평균소득은 50만원이하인 경우가 36.0%였으며, 100만원 이하인 경우도 80.8%에 달하고 있다.¹⁹⁾ 또한 응답가구의 54.5%인 66가구가 1,000만원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인 4,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응답가구의 86.0%인 104가구이다.²⁰⁾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0.8%인 13가구에 불과하다.²¹⁾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2001년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응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 및 직장상황은 무직 27.5%, 정규직 25.1%, 학생신분 16.5%, 임시직 15.6%, 가정주부 7.3%, 자영업 7.2% 등으로 나타났다.²²⁾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3.2%이며 평균 98만원으로,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 171만원(노동부 2001)의 절반이 조금 넘는 57% 수준으로 매우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²³⁾

이와 같이 객관적인 정착성공 지표가 매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재 한국생활에 대해 61.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²⁴⁾ 하지만 정부의 정착지원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185명 응답자중 38.9%인 72명만이 만족한 반면, 61.1%인 113명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²⁵⁾ 정착과정에서 어려운 점으로는 돈버는 것(30.9%), 취업(24.2%), 외로움(18.3%), 남한사람과의 관계(14.3%), 언어(5.5%), 생활습

18) 위의 글, p.16.

19) 전체가구중 25.5%인 41가구가 응답하지 않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50만원이하의 소득자로 판단된다 위의 글, p.21

20) 1998년 12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된 북한이탈주민은 응답자의 44.7%인 72세대였으며,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54.6%가 적절한 절차를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글, p.26.

21) 위의 글, p.23.

22) <http://www.dongposarang.or.kr/>

23) 위의 글

24) 위의 글, p.29

25) 불만족의 이유로는 지원금부족(64.7%), 취업안됨(35.3%), 보로금 차별지급(21.8%), 주택알선 미흡(18.8%)을 들고 있다 위의 글, p.17.

관(3.6%), 기타(해외여행 부자유, 앞날에 대한 불안감: 3.2%) 순으로 제시되었다.²⁶⁾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실태 조사도 정착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로, 이는 직업이 없거나(44.1%) 또는 능력부족(17.6%)에 기인함을 보여주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현황

(1) 법적·제도적 차원 지원체계

1962년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군보안기관이 월남귀순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맡아왔다. 1962년 원호처를 주무부서로 지정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되었고, 1974년 이 법이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으로 대체되었다. 그 이후 1978년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는 귀순자들을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이는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비교우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귀순자들에게 정책적 차원의 배려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²⁷⁾

그러나 귀순자들에 대한 이러한 배려가 냉전의 종식과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라 심각하게 재고되기 시작하여 1993년 6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귀순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차원의 배려보다는 독립적 생활능력이 결여된 자에 대한 사회부조적 차원의 특별

26) 위의 글, p.30

27) 1983년 2월 미그기를 몰고 귀순한 이웅평씨의 경우 당시 미그기 보상금으로 13억 6천만원과 주택 등 총 15억여원을 정부로부터 받았으며, 87년 2월 배를 타고 일가족이 월남한 김만철씨 가족도 5억여원의 정착금과 주택 2채를 포함하여 총 7억여원을 지급받았다.

보호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점에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에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²⁸⁾ 정부는 1996년말 통일원내 「인도지원국」을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 전담업무를 맡도록 하고,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공포하여 7월 14일부터 새로운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실행하여 왔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설치, 1년간 시설보호, 보호시설의 설치,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 및 자격 인정, 사회적응 교육, 직업훈련, 2년간 거주지 보호 등을 명문화하였으며, 동포애와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을 이탈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를 신청할 경우 전원수용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입국과정에서 거주지 편입이 후까지의 전과정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통일원을 북한이탈주민 정책 총괄·조정 주무부서로 규정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정착문제를 소외계층의 문제로 파악하기보다는 향후 남북사회통합의 시험장으로 간주하여 통일정책의 구도 하에 접근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지원방안도 물질적 보상위주의 정착지원에서 자립·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등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1998년 10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정책을 보완하였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착금(종전 1인 690만원)을 4배로 상향조정하고 주거지원기준을 현실화(종전 11~17평에서 13~25평)하였으며, 직업훈련수당을 증액(월 47만원기준)하였다. 또한 생계곤란가구에 대한 월

28)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은 총괄전담부서의 부재 및 보호단계별 부처간 업무의 단절성, 제3국내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책 미비, 보호시설내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체계적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교육지원 신청자의 연령을 조정(중고교 만25세, 전문대학 및 대학교 만35세)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정착지원시설을 건립(1999년 7월 개원)하는 등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실시 등 사회정착 지원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경제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취업제고에 역점을 두면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학력 및 자격 인정 등의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위기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취업보호제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 취업일부터 2년간 사업주에게 임금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고용지원금을 지원(제17조 2항)하고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제17조 4항)으로써 취업을 용이하게 하려는 조치이다. 또한 1993년 12월 22일 이후 국내 입국자들의 실업문제를 감안하여 이들도 취업보호대상에 포함시켜 동법 시행 후 최초 취업 또는 재취업한 날부터 2년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취업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자의로 퇴직하거나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해 면직된 경우는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7조의 2). 또한 영농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영농교육훈련 또는 직업현장실습 등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7조의 3)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연령이 다양화되면서 노령연령층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능력 부족으로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국민연금법」 특례적용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 도착당시 50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의 연금수령이 가능(제26조의 2)하도록 하였다. 현행 특례 노령연금 지급은 1999년 4월 2일 이후 입국한 자 중 50~60세인 자에게 해당된다.

셋째, 적극적인 생업지원조치의 하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제26조의 3)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대상은 모자가정 등 북한이탈주민중 자립자활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사업 내용을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지원사업 등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정부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제30조 1항)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거주지 보호 및 지원강화를 위해 거주지 보호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제5조 3항)하기로 하였다. 다만 경찰에 의한 신변보호기간은 종전대로 2년으로 유지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조치들이 2000년도에 시행되어,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정착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상당부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취업지원조치들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등 우리사회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들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북한이탈주민 본인들도 2년 기간의 특별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2) 정착지원시설(하나원)내 정착지원 체계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내 입국하여 군 보안시설에서 신문조사²⁹⁾를 거

친 후 통일부의 정착지원시설에서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관련법률상 1년간의 보호시설내 수용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기존 수용 시설(대성공사)이 군 보안시설로서 민간인 신분의 북한이탈주민을 수용·관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³⁰⁾ 사회적응교육을 위해서는 민간인과의 많은 접촉·대화가 필수적이거나 군 보안시설로 인한 민간인의 출입이 곤란하며, 기존시설의 수용능력의 한계로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대비한 새로운 정착지원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였다. 1997년 7월 관련법률 제정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의 총괄부서가 통일원으로 지정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입국 후 조사 및 정착지원 등의 전과정을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보호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관련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입국 후 신문조사과정은 기존 군보안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남북관계의 현실상 위장 귀순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며,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관련정보의 수집 및 확인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등 제3국내 상당기간 체류 후 입국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북한 실상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문조사기간을 최단기화함으로써 정보수집을 위한 신문위주 수용·관리체계에서 자립·자활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교육·훈련 체계로 전환하였다.³¹⁾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2개월)을 받게 되어 있다. 사회적응교육은 심리적응과 우리사회의 이해, 일상생활 안내, 진로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한자·영어·시사용어·컴퓨터·운전 등 실생

29) 신문기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능한 한 단기간내(약1개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0) 1999년 2월 한창권 등 자유북한인협회 회원들이 기존 보안시설내 인권침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1) 서정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원문제,” 경남대 북한대학원 세미나, 1999 10.2.

활 적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자가 사회적응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착지원시설 내 보호기간 동안 학력·자격·경력·희망 등을 감안하여 능력과 적성에 맞는 훈련직종을 선택하도록 하여 거주지 보호시 인근 직업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착지원시설 내에서 각 개인에 대한 심리·건강 등 개별 생활상담 및 지도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고, 종교활동을 통한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교실을 설치하였다. 거주지 편입 지원을 위해 취직·주민등록 등 신분안정 절차와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초기 생계기반을 마련하고, 취학·편입학 지원 및 취업 알선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입국하면서 문화적 이질감과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집단보호상황에서 각종 사고 유발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단순교육 뿐만 아니라 이들의 총체적인 생활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장기간 유랑생활을 경험한 관계로, 정적인 교육방법(강의)에 신체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연령 및 수학능력 차이로 교육수준을 일정수준에 맞추기 힘들다. 북한 및 중국 등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정신집중이 불가능하다. 장기간의 영양부족상태, 낙후된 생활용품 사용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생활지도측면에서도 남북한 언어·문화 차이로 상호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애로가 있으며, 북한 체류당시 생활수준에 따라 습성이 상이하여 적절한 지도가 어렵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상호간 융화가 쉽지 않아 생활지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식성이 맞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상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단축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일부는 중국체류 가족안부 걱정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수용할 태세가 부족하며, 일부는 이미 정착한 가족과의 조속한 결합을 위해 사회적응교육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중국에 체류 중인 가족의 신변불안을 사유로 조기 퇴소를 요청하는 경우는 사회배출시 받는 정착금을 가족입국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교육생의 지시불이행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 미흡 등 교육생 생활·지도 관리상 애로 및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담당직원들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정착지원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 통일부의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는 하나원은 현행 인력과 예산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이 일반 직원에게 개별담당과 교육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직원들의 업무상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통일부내 순환보직제로 운영할 경우에도 하나원 근무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는 책임감을 갖고 일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단기적으로 직원 증원이 어려울 경우, 관련 부처로부터의 파견인력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파견요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근무환경과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원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제도적 틀(교육훈련, 상담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반행정직 외에도 개별담당관과 교육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4~5명의 개별담당관은 일반업무를 배제하고, 현장교육 전담 및 교육생 개인별 일일생활일지 작성, 심리상태·교육태도·애로사항 등의 파악을 통한 문제발생 소지 사전차단 등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착지원시설의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들의 협조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원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의 인성불량자가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 전체 교육생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³²⁾ 따라서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함께, 사회적응 수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완전히 치료한 이후 교육시설에 입소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원은 내부규칙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수칙 불이행시에는 명백한 처벌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입소 기간동안에는 개별적인 외출이나 외박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민간단체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응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고,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접촉기회를 조기에 부여하여, 이들이 거주지 보호기간에도 민간의 정착지원을 스스로 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하고, 개인별 관심사항을 고려한 신축적인 교육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교육과정은 공통필수과정과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선택과정으로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개별적인 교육희망사항을 교육과목에 반영하도록 하고, 사회적응교육기간을 개인별 성취도 및 필요도에 따라 일정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응교육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개별담임관 및 강의요원) 확보 및 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담임관은 교육기간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이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신들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관계를 형성하고 적응생활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을

3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1999 8 11

위해서는 통일부와 대성공사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망된다. 각 단계별로 개별관리를 맡게 될 전문인력간(조사기관(대성공사)의 담당신문관과 사회적응교육기관(하나원)의 개별담임관)의 상호협조 채널을 구축하여 개별관리가 연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강의요원은 해당강의 영역의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북한문제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기정착 북한이탈주민중에서 각 분야별로 사회정착에 성공한 경험자들을 강의요원으로 활용하여 교육대상인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제 경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다. 강의요원은 소수정예화로 운영하도록 하여 강의요원과 교육생간의 불필요한 적응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교육경험을 축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요원은 실내교육 이외에 현장견학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조요원들이 동행하여야 한다. 현재는 자원봉사요원들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조요원들을 정식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검증된 자원봉사인력을 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효율성의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과의 접촉기회를 부여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요원은 역량있는 사회봉사단체에서 일정기간 자원봉사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중에서 선발하여 이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임무를 부여하기 이전에 개별담임관 및 적응교육 관리요원들과의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현장동행 이후에도 간단한 보고형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육효과는 교육대상자의 교육태도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인 바,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적응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착지원시설내 교육

기간동안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동시에, 준수하여야 할 생활지침을 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방안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에 임하는 태도나 열의도를 평가하여 이를 정착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교육생들간의 불만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대상인 북한이탈주민들 자신이 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하여야만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개별 담임관의 초기지도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부선택교육의 내용을 개인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흥미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시설내 사회적응 지원체계는 거주지보호기간의 사회적응지원방안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교육과정을 마치고 거주지에 정착한 이후에 직업, 교육 등 생활 전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거주지보호기간 정착과정에서 실제 부딪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응교육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교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는 교육희망자에 대한 재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분야에 대한 단기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회편입 후 사회적응 지원체계

1년간의 시설보호가 끝나면, 개별 정착지에 따라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2년간의 경찰에 의한 신변보호³³⁾와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

33) 경찰 신변보호체제로 인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할 때 우선적으로 안보의 문제에서 접근하고 그들의 사회적응 문제는 뒷전으로 미룬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남북한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위장간첩으로 입국할 수도 있고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간첩의 테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1997년 2월 발생한 이한영씨의 피살사건의 경

는 경찰을 통한 신변보호전담관제를 운영하여 담당경찰이 신변보호 기간(2년)중 신변안전은 물론 행정적·법적 지원 등 생활상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상담·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1999년 8월 거주지 보호담당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광역(16개)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232개)에 각각 지정되어, 의료보호 및 생활보호에 관한 사항, 학력확인서 및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주택교환에 관한 사항,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 제공,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지역내 종교·민간단체 등과의 결연·후원 추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즉 지역사회의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지역사회내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결연 추진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거주지 보호담당관제 도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합동지원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실제효과는 담당관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편입후 사회적응상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1999년 5월 18일 북한이탈주민후원회내에 종합생활상담센터를 개소·운영하고 있다.³⁴⁾ 북한이탈주민 종합생활상담센터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부, 지원단체, 전문기관들에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우리사회에 하루 빨리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또한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 전문가와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우에서처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보호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찰의 신변보호의 필요성을 호소하면서도, 자신들의 생활이 감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담당형사와 갈등을 겪게 될 소지가 많다. 윤인진, “소수자 연구 시각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 경남대 북한대학원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9.10

34) (제)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현황」, 1999.7.

활용을 통한 취업능력, 심리, 사회적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실태 및 호칭선호도 조사³⁵⁾(1999.4.28~6.1)를 실시하였고,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1993년 이후 입국자중 무직자를 대상으로 인성개발프로그램, 취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법률특강, 창업특강을 실시하였다. 기타 후원 및 위로행사³⁶⁾(위로 음악회, 북한음식잔치, 귀순동포 후원의 밤)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을 위한 결연사업³⁷⁾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적응을 위한 사회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대를 운영하여, 결연자 사후관리 및 취업정보 제공, 학생 보충수업 지도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종교, 민간단체, 전문기관 등 각계와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민간단체지원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1999년 11월 3일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를 발족하였다. 국내외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로 구성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단체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소속단체들간 상호 정보교류와 연대 지원망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있어 적극적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효과적이고 형평성있는 지원체계 구축과 민간의 연구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 세미나, 지원 프로그램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일

35) 조사는 총 6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6) 대한적십자사 귀순 북한동포초청 사랑나누기 행사, 인성개발연구원 회원과 북한이탈주민 자매결연, 통일부직원과 북한이탈주민 형제축구단 체육대회, 북한이탈주민 미혼남녀 결혼 미팅행사, 일산장학회 장학금 지급, 어린이날 기념행사(청와대 초청), 선우(주) 결혼미팅행사를 실시하였다

37) 자매결연을 통해 심리·사회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999.8.27 제1차 귀순동포 합동결연식을 개최(한기총 협조 60명)하였다

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 상호 정보교류와 공동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경험이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활동목표를 설정하고 있다.³⁸⁾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내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서울의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등과 지방으로는 대구 및 부산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 구축되었다.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신교를 중심으로 민간단체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결연사업, 재정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내에서 교회단체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나, 개신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선교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천주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왔다. 천주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프로그램은 1997년 4월 발족된 천주교 서울대교구 통일사목위원회(1998년 11월 민족화해위원회로 통합)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북한이탈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종교를 초월하여 순수한 인간적 만남을 통해 상담 및 각 계층별 지원프로그램(여성, 청소년, 대학생)을 진행하여 왔다. 또한 인적·물적 결연과 경조사 협조 등의 활동과 북한이탈주민들의 각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남한사회를 이해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서울대교구소속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교구 통일사목위원회와 연결하여 1997년 12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여성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요리, 미용, 현장체험, 가계부 작성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이 나름대로 특화된 지원사업을 시도해 오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대학생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련회를 개최하고, 일반 가정에 연계하여 학습지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여성단체로서 북한이

38)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창립총회」, 1999 11.3.

탈여성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정기적인 대화모임과 실태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성개발연구원은 심리상담에 중점을 두고 대학생 결연사업 등을 실시하여 왔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들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활동이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거주지 보호기간중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가족탈북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각 계층별로 다양하게 개발·실시되어야 한다.³⁹⁾ 예를 들어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학업 및 교우관계 어려움이 심각한 문제이며,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 상실과 가정문제 발생으로 인한 갈등들이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⁴⁰⁾ 이제까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이 주로 남성과 독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요리, 영어, 컴퓨터, 생활건강, 인성교육, 정신·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서비스 제공, 청소년 부모교육, 문화활동 등 각 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지원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전담 사회복지사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지역담당 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이들의 가치 및 개성의 존중, 자율권의 존중, 수용의 자세 등 전문적 가치, 사회복지 상담기법(개별화된 조언, 상담치료 서비스 등)을 훈련받은 사회복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이

39) 오혜정, “남과 북을 이어주는 북한이탈주민,” 통일과 가톨릭 사회복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21세기 가톨릭사회복지 심포지엄 자료집, 1999

40) 박선경,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1998.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전담사회복지사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사회복지관에 전담복지사가 있다면, 북한이탈주민과 공식적 지역사회 기관 및 비공식적 원조관계망에서 가용될 수 있는 필요한 서비스와 원조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례관리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향후과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아지면 서, 노인층, 여성, 청소년, 어린이 등 다양한 연령대의 적응상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적응과 육아문제, 부부문제, 노인문제 등 새로운 형태의 적응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사회복지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이 단독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탈북의 성격이 초기 절박한 생존형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이주민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적응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특화된 지원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규모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이들이 우리사회에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사회적응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행 소수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정착지원의 의미를 고려하여, 정착지원시설의 운영에 보다 집중적인 인적·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를 통해서 사회적응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 구축을 시도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들도 각자 전문분야에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또한 정착지원 시설내의 지원체제와 거주지 지원체제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거주지 정착이후에도 개별사례관리자를 통한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들의 지원이 북한이탈주민 본인들의 정착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3.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실태

2002년도 국내입국한 1,141명의 탈북자 중 19세미만은 210명으로 전체의 약 28.4%를 차지하고 있다.⁴¹⁾ 따라서 남한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청소년은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문제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 이탈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본장에서는 2003년 8월과 9월에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적응조사⁴²⁾중 북한이탈청소년과 관계된 항목을 토대로 남한사회적응과정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응문제조사의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분포는 10대가 36명으로 4.6%, 20대가 184명으로 23.7%, 39대가 278명으로 35.7%, 40대가 147명으로 18.9%, 50대가 73명으로 9.4% 였으며 60세이상은 60명으로 7.7%였다. 학령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고등중학교 졸업이 478명

41) <http://www.unikorea.go.kr>. 이중 10세 미만은 55명(48%).

42) 통일연구원에서 2003년 8, 9월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실태분석을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보호담당관, 자원봉사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응답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를 인용하였다

62.0%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학졸업(127명, 16.7%), 전문학교 졸업(127명, 16.5%), 그리고 인민학교 졸업(33명, 4.3%)의 순이었다.

1) 현재의 상황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10대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매우 만족(22.9%)과 다소 만족(28.6%)을 합한 것이 과반을 넘어섰으나 평균적인 만족도(60.5%)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생활을 상태를 알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물어보았다. 이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은 대체로 외로움이나 고독감 등 주로 정서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10대들은 이와 더불어 근로능력 문제를 어려운 요소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14.7%). 이러한 응답은 10대 북한이탈주민들은 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의 고민에 대해서도 10대들은 차이가 있다. 그들은 주로 진학문제가(63.6%)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세대들과 다르다. 반면에 20대에서 40대까지는 취업 문제를 고민거리로 생각하고 있으며(44.0%, 45.0%, 44.5%), 50대 이상은 가족문제를 현재의 고민거리로 생각하고 있다(39.7%, 53.8%). 물론 30대 이상의 경우는 연령상 학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진학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과 관련 시켜 본다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청소년들은 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고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4>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매우만족	다소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전체
10대	명수	8	10	15	1	1	35
	%	22.9%	28.6%	42.9%	2.9%	2.9%	100.0%
	전체 %	1.0%	1.3%	1.9%	1%	.1%	4.5%
20대	명수	40	77	56	9	1	183
	%	21.9%	42.1%	30.6%	4.9%	.5%	100.0%
	전체 %	5.2%	10.0%	7.2%	1.2%	1%	23.7%
30대	명수	68	100	93	14	2	277
	%	24.5%	36.1%	33.6%	5.1%	.7%	100.0%
	전체 %	8.8%	12.9%	12.0%	1.8%	3%	35.8%
40대	명수	40	44	45	13	3	145
	%	27.6%	30.3%	31.0%	9.0%	2.1%	100.0%
	전체 %	5.2%	5.7%	5.8%	1.7%	4%	18.8%
50대	명수	21	25	21	5	1	73
	%	28.8%	34.2%	28.8%	6.8%	1.4%	100.0%
	전체 %	2.7%	3.2%	2.7%	.6%	.1%	9.4%
60 이상	명수	14	21	24	1		60
	%	23.3%	35.0%	40.0%	1.7%		100.0%
	전체 %	1.8%	2.7%	3.1%	.1%		7.8%
전체	명수	191	277	254	43	8	773
	%	24.7%	35.8%	32.9%	5.6%	1.0%	100.0%
	전체 %	24.7%	35.8%	32.9%	5.6%	1.0%	100.0%

<표 2-5> 한국생활의 어려움

		외로움 고독감	한국사회 역할상실	건강 문제	근로능 력상실	일상생활 유지곤란	여가 공간문제	가족 부양	없음	기타	전체
10대	명수	5	3	3	5	1	4	1	9	3	34
	%	147%	88%	8.8%	147%	2.9%	11.8%	2.9%	26.5%	8.8%	100.0%
	전체 %	.7%	.4%	.4%	.7%	.1%	.6%	.1%	1.3%	.4%	4.9%
20대	명수	31	21	25	16	2	9	7	39	11	161
	%	193%	130%	155%	9.9%	12%	5.6%	4.3%	24.2%	6.8%	100.0%
	전체 %	4.4%	3.0%	3.6%	2.3%	.3%	1.3%	1.0%	5.6%	1.6%	23.1%
30대	명수	58	33	31	25	2	12	9	66	18	254
	%	22.8%	130%	12.2%	9.8%	.8%	4.7%	3.5%	26.0%	7.1%	100.0%
	전체 %	8.3%	4.7%	4.4%	3.6%	.3%	1.7%	1.3%	9.5%	2.6%	36.4%
40대	명수	24	20	26	16	2	5	7	27	5	132
	%	18.2%	15.2%	19.7%	12.1%	1.5%	3.8%	5.3%	20.5%	3.8%	100.0%
	전체 %	3.4%	2.9%	3.7%	2.3%	.3%	.7%	1.0%	3.9%	.7%	18.9%
50대	명수	8	5	13	19			3	13	4	65
	%	12.3%	7.7%	20.0%	29.2%			4.6%	20.0%	6.2%	100.0%
	전체 %	1.1%	.7%	1.9%	2.7%			.4%	1.9%	.6%	9.3%
60 이상	명수	6	5	10	19	1		1	9		51
	%	11.8%	9.8%	19.6%	37.3%	2.0%		2.0%	17.6%		100.0%
	전체 %	.9%	.7%	1.4%	2.7%	.1%		.1%	1.3%		7.3%
전체	명수	132	87	108	100	8	30	28	163	41	697
	%	18.9%	12.5%	15.5%	14.3%	1.1%	4.3%	4.0%	23.4%	5.9%	100.0%
	전체 %	18.9%	12.5%	15.5%	14.3%	1.1%	4.3%	4.0%	23.4%	5.9%	100.0%

<표 2-6> 현재 고민

		진학 문제	친구 관계	가족 문제	이성 문제	취업 문제	기타	없다	전체
10대	명수	21	2	3		4	1	2	33
	%	63.6%	6.1%	9.1%		12.1%	3.0%	6.1%	100.0%
	전체 %	3.0%	.3%	4%		.6%	.1%	.3%	4.7%
20대	명수	25	2	33	10	73	11	12	166
	%	15.1%	1.2%	19.9%	6.0%	44.0%	6.6%	7.2%	100.0%
	전체 %	3.6%	3%	4.7%	1.4%	10.4%	1.6%	1.7%	23.7%
30대	명수	6	1	62	29	116	19	25	258
	%	2.3%	.4%	24.0%	11.2%	45.0%	7.4%	9.7%	100.0%
	전체 %	9%	.1%	8.9%	4.1%	16.6%	2.7%	3.6%	36.9%
40대	명수	2	1	36	4	57	13	15	128
	%	1.6%	8%	28.1%	3.1%	44.5%	10.2%	11.7%	100.0%
	전체 %	3%	.1%	5.1%	.6%	8.1%	1.9%	2.1%	18.3%
50대	명수			25	3	22	6	7	63
	%			39.7%	4.8%	34.9%	9.5%	11.1%	100.0%
	전체 %			3.6%	4%	3.1%	.9%	1.0%	9.0%
60 이상	명수	1		28	4	6	3	10	52
	%	1.9%		53.8%	7.7%	11.5%	5.8%	19.2%	100.0%
	전체 %	.1%		4.0%	6%	.9%	.4%	1.4%	7.4%
전체	명수	55	6	187	50	278	53	71	700
	%	7.9%	.9%	26.7%	7.1%	39.7%	7.6%	10.1%	100.0%
	전체 %	7.9%	9%	26.7%	7.1%	39.7%	7.6%	10.1%	100.0%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적지 않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사회적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 이에 대하여 10대들은 자신의 소극적 태도를 탓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고(48.5%),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는 경우도 적지 않았

다. 이러한 반응은 다른 세대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20대에서 자신의 탓을 하는 비율이 46.3%로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높게 나타난다.

<표 2-7> 사회 부적응의 원인

		자신의소 극적태도	정부·지역 사회의 지원부족	한국주민의 냉대와편견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염려	기타	전체
10대	명수	16	1	4	8	2	2	33
	%	48.5%	3.0%	12.1%	24.2%	6.1%	6.1%	100.0%
	전체 %	2.3%	1%	.6%	1.2%	.3%	.3%	4.8%
20대	명수	75	12	30	21	16	8	162
	%	46.3%	7.4%	18.5%	13.0%	9.9%	4.9%	100.0%
	전체 %	10.9%	1.7%	4.4%	3.0%	2.3%	1.2%	23.5%
30대	명수	86	26	69	43	20	7	251
	%	34.3%	10.4%	27.5%	17.1%	8.0%	2.8%	100.0%
	전체 %	12.5%	3.8%	10.0%	6.2%	2.9%	1.0%	36.4%
40대	명수	52	12	26	16	14	3	123
	%	42.3%	9.8%	21.1%	13.0%	11.4%	2.4%	100.0%
	전체 %	7.5%	1.7%	3.8%	2.3%	2.0%	4%	17.9%
50대	명수	22	8	19	6	8	4	67
	%	32.8%	11.9%	28.4%	9.0%	11.9%	6.0%	100.0%
	전체 %	3.2%	1.2%	2.8%	.9%	1.2%	6%	9.7%
60 이상	명수	15	3	9	12	10	4	53
	%	28.3%	5.7%	17.0%	22.6%	18.9%	7.5%	100.0%
	전체 %	2.2%	4%	1.3%	1.7%	1.5%	6%	7.7%
전체	명수	266	62	157	106	70	28	689
	%	38.6%	9.0%	22.8%	15.4%	10.2%	4.1%	100.0%
	전체 %	38.6%	9.0%	22.8%	15.4%	10.2%	4.1%	100.0%

10대의 경우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서 현재의 직업형태를 알아보았다. 10대의 경우 조사 대상 가운데 5명이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 4명이 비정규직이었고, 20대의 경우는 62.9%가 비정규직을 갖고 있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 전체가 비정규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젊은 세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은 불안한 고용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8> 연령별 직업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기타	전체
10대	명수	1	4		5
	%	20.0%	80.0%		100.0%
	전체 %	.3%	1.4%		1.7%
20대	명수	18	39	5	62
	%	29.0%	62.9%	8.1%	100.0%
	전체 %	6.2%	13.4%	1.7%	21.2%
30대	명수	36	75	7	118
	%	30.5%	63.6%	5.9%	100.0%
	전체 %	12.3%	25.7%	2.4%	40.4%
40대	명수	29	35	5	69
	%	42.0%	50.7%	7.2%	100.0%
	전체 %	9.9%	12.0%	1.7%	23.6%
50대	명수	11	16	5	32
	%	34.4%	50.0%	15.6%	100.0%
	전체 %	3.8%	5.5%	1.7%	11.0%
60이상	명수	2	2	2	6
	%	33.3%	33.3%	33.3%	100.0%
	전체 %	.7%	.7%	.7%	2.1%
전체	명수	97	171	24	292
	%	33.2%	58.6%	8.2%	100.0%
	전체 %	33.2%	58.6%	8.2%	100.0%

<표 2-9> 직업만족도

		매우만족	다소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전체
10대	명수	1	1			1	3
	%	33.3%	33.3%			33.3%	100.0%
	전체 %	.3%	3%			3%	9%
20대	명수	12	20	21	6	2	61
	%	19.7%	32.8%	34.4%	9.8%	3.3%	100.0%
	전체 %	3.8%	6.3%	66%	1.9%	.6%	19.1%
30대	명수	14	31	61	21	10	137
	%	10.2%	22.6%	44.5%	15.3%	7.3%	100.0%
	전체 %	4.4%	9.7%	19.1%	66%	3.1%	42.8%
40대	명수	10	17	30	14	9	80
	%	12.5%	21.3%	37.5%	17.5%	11.3%	100.0%
	전체 %	3.1%	5.3%	9.4%	4.4%	2.8%	25.0%
50대	명수	4	7	14	4	4	33
	%	12.1%	21.2%	42.4%	12.1%	12.1%	100.0%
	전체 %	1.3%	2.2%	4.4%	1.3%	1.3%	10.3%
60이상	명수	2		1		3	6
	%	33.3%		16.7%		50.0%	100.0%
	전체 %	6%		3%		.9%	1.9%
전체	명수	43	76	127	45	29	320
	%	13.4%	23.8%	39.7%	14.1%	9.1%	100.0%
	전체 %	13.4%	23.8%	39.7%	14.1%	9.1%	100.0%

그러나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다소 의외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전반적으로 직업만족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10대와 20대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직업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결과나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 될 수 있다.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 현재의 직업을 단기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도적인 일이거나 학업 등을 보조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불만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적응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정부의 교육지원을 꼽는 경우가 많았으나 10대들은 상대적으로 가족을 꼽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10대들의 경우도 정부의 교육지원을 중요시 하였지만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10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과정에는 가족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표 2-10>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소

		정부의 교육지원	종교단체	학교나 민간단체	직장동료 나 친구	가족	만제입국 한 동료	TV나 신문	자신의 노력	학교	기타	전체
10대	명수	10	3	2	1	4	1	2	7	3		33
	%	30.3%	9.1%	6.1%	3.0%	12.1%	3.0%	6.1%	21.2%	9.1%		100.0%
	전체 %	15%	4%	3%	.1%	6%	.1%	3%	10%	.4%		4.9%
20대	명수	71	7	6	9	6	10	8	36	5	2	160
	%	44.4%	4.4%	3.8%	5.6%	3.8%	6.3%	5.0%	22.5%	3.1%	1.3%	100.0%
	전체 %	10.5%	1.0%	.9%	1.3%	.9%	1.5%	1.2%	5.3%	.7%	.3%	23.7%
30대	명수	84	20	2	11	12	10	15	78	1	6	239
	%	35.1%	8.4%	.8%	4.6%	5.0%	4.2%	6.3%	32.6%	.4%	2.5%	100.0%
	전체 %	12.4%	3.0%	.3%	1.6%	1.8%	1.5%	2.2%	11.6%	.1%	.9%	35.4%
40대	명수	53	12	2	8	2	5	2	39		4	127
	%	41.7%	9.4%	1.6%	6.3%	1.6%	3.9%	1.6%	30.7%		3.1%	100.0%
	전체 %	7.9%	1.8%	.3%	1.2%	.3%	.7%	.3%	5.8%		.6%	18.8%

		정부의 교육지원	종교단체	학교나 민간단체	직장동료 나 친구	가족	먼저입국 한 동료	TV나 신문	자신의 노력	학교	기타	전체
50대	명수	31	5		1	4	1	4	19		1	66
	%	47.0%	7.6%		1.5%	6.1%	1.5%	6.1%	28.8%		1.5%	100.0%
	전체 %	4.6%	.7%		1%	.6%	.1%	6%	2.8%		1%	9.8%
60 이상	명수	23	15		1	1	1	5	4			50
	%	46.0%	30.0%		2.0%	2.0%	2.0%	10.0%	8.0%			100.0%
	전체 %	3.4%	2.2%		1%	1%	.1%	.7%	6%			7.4%
전체	명수	272	62	12	31	29	28	36	183	9	13	675
	%	40.3%	9.2%	1.8%	4.6%	4.3%	4.1%	5.3%	27.1%	1.3%	1.9%	100.0%
	전체 %	40.3%	9.2%	1.8%	4.6%	4.3%	4.1%	5.3%	27.1%	1.3%	1.9%	100.0%

여가활동은 연령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0대의 경우는 친구를 만나는 것(34.8%)과 컴퓨터로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가(30.4%)가 많았던 반면 20대부터는 나이가 들수록 TV시청으로 시간을 소일하는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대의 경우는 컴퓨터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TV시청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컴퓨터가 중요한 소일거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친구를 통해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들의 사회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는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11> 연령별 여가활동

		독서	텔레비 전시청	친구 만남	컴퓨터	여행	영화	기타	전체
10대	명수	4	2	8	7			2	23
	%	17.4%	8.7%	34.8%	30.4%			8.7%	100.0%
	전체 %	.6%	.3%	1.3%	1.1%			.3%	3.6%

		독서	텔레비 전시청	친구 만남	컴퓨터	여행	영화	기타	전체
20대	명수	24	47	20	44	2	2	11	150
	%	16.0%	31.3%	13.3%	29.3%	1.3%	1.3%	7.3%	100.0%
	전체 %	3.8%	7.4%	3.2%	7.0%	.3%	3%	1.7%	23.8%
30대	명수	34	94	23	50	3	3	23	230
	%	14.8%	40.9%	10.0%	21.7%	1.3%	1.3%	10.0%	100.0%
	전체 %	5.4%	14.9%	3.6%	7.9%	.5%	.5%	3.6%	36.5%
40대	명수	23	73	5	13	3		7	124
	%	18.5%	58.9%	4.0%	10.5%	2.4%		5.6%	100.0%
	전체 %	3.6%	11.6%	.8%	2.1%	.5%		1.1%	19.7%
50대	명수	15	37	2	1			3	58
	%	25.9%	63.8%	3.4%	1.7%			5.2%	100.0%
	전체 %	2.4%	5.9%	.3%	2%			.5%	9.2%
60 이상	명수	6	34		3	1		2	46
	%	13.0%	73.9%		6.5%	2.2%		4.3%	100.0%
	전체 %	1.0%	5.4%		5%	2%		3%	7.3%
전체	명수	106	287	58	118	9	5	48	631
	%	16.8%	45.5%	9.2%	18.7%	1.4%	8%	7.6%	100.0%
	전체 %	16.8%	45.5%	9.2%	18.7%	1.4%	8%	7.6%	100.0%

2) 남한사람과의 관계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한다는 것은 결국 남한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이다. 결국 사회적응 혹은 사회정착은 국가의 지원책에 의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한 사람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한국사람들이 자신들의 대한 태도를 물어 본 질문에 대하여 10대의 경우는 과반수 응답자들이 매우 우호적이거나 우호적이라고 대답하여 (50%) 북한이탈주민 평균의 응답자 비율(41%)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것은 10대 북한이탈주민이 비교적 다른 세대보다 남한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2> 남한사람의 자신에 대한 태도

		매우우호	우호	무관심	적대	매우적대	전체
10대	명수	1	15	15	1		32
	%	31%	46.9%	46.9%	31%		100.0%
	전체 %	.1%	2.0%	2.0%	1%		4.3%
20대	명수	6	65	95	8		174
	%	3.4%	37.4%	54.6%	4.6%		100.0%
	전체 %	.8%	8.7%	12.6%	1.1%		23.2%
30대	명수	6	108	131	21	7	273
	%	2.2%	39.6%	48.0%	7.7%	2.6%	100.0%
	전체 %	8%	14.4%	17.4%	2.8%	9%	36.4%
40대	명수	4	55	71	10	2	142
	%	2.8%	38.7%	50.0%	7.0%	1.4%	100.0%
	전체 %	.5%	7.3%	9.5%	1.3%	3%	18.9%
50대	명수	2	23	40	5	1	71
	%	2.8%	32.4%	56.3%	7.0%	1.4%	100.0%
	전체 %	3%	3.1%	5.3%	7%	.1%	9.5%
60이상	명수		23	34	2		59
	%		39.0%	57.6%	3.4%		100.0%
	전체 %		3.1%	4.5%	.3%		7.9%
전체	명수	19	289	386	47	10	751
	%	2.5%	38.5%	51.4%	6.3%	1.3%	100.0%
	전체 %	2.5%	38.5%	51.4%	6.3%	1.3%	100.0%

주변사람들과 어느 정도 어울리는가에 대한 질문도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10대(54.5%)와 20대(56.2%)가 잘 어울린다는 대답을 한 경우가 절반은 넘어서고 있는 반면 그 윗세대들은 잘 어울린다는 응답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2-13> 주변사람과의 어울림

		매우 잘어울림	잘어울리 는 편	보통	어울리지 못함	전혀 어울리지 못함	전체
10대	명수	7	11	10	3	2	33
	%	21.2%	33.3%	30.3%	9.1%	6.1%	100.0%
	전체 %	9%	15%	13%	4%	3%	44%
20대	명수	24	75	61	11	5	176
	%	13.6%	42.6%	34.7%	6.3%	2.8%	100.0%
	전체 %	3.2%	9.9%	8.1%	1.5%	.7%	23.3%
30대	명수	39	95	109	24	8	275
	%	14.2%	34.5%	39.6%	8.7%	2.9%	100.0%
	전체 %	5.2%	12.6%	14.5%	3.2%	1.1%	36.5%
40대	명수	17	45	62	13	9	146
	%	11.6%	30.8%	42.5%	8.9%	6.2%	100.0%
	전체 %	2.3%	6.0%	8.2%	1.7%	1.2%	19.4%
50대	명수	9	19	31	7	5	71
	%	12.7%	26.8%	43.7%	9.9%	7.0%	100.0%
	전체 %	1.2%	2.5%	4.1%	.9%	.7%	9.4%
60이상	명수	5	15	25	7	1	53
	%	9.4%	28.3%	47.2%	13.2%	1.9%	100.0%
	전체 %	.7%	2.0%	3.3%	.9%	.1%	7.0%
전체	명수	101	260	298	65	30	754
	%	13.4%	34.5%	39.5%	8.6%	4.0%	100.0%
	전체 %	13.4%	34.5%	39.5%	8.6%	4.0%	100.0%

<표 2-14> 이웃과 교류 빈도

		일주일 한번	한달에 한번	일년에 한번	없다	전체
10대	명수	16	3		10	29
	%	55.2%	10.3%		34.5%	100.0%
	전체 %	2.1%	.4%		1.3%	3.9%
20대	명수	53	40	2	84	179
	%	29.6%	22.3%	1.1%	46.9%	100.0%
	전체 %	7.1%	5.4%	.3%	11.2%	24.0%
30대	명수	105	51	6	107	269
	%	39.0%	19.0%	2.2%	39.8%	100.0%
	전체 %	14.1%	6.8%	.8%	14.3%	36.0%
40대	명수	44	35	4	59	142
	%	31.0%	24.6%	2.8%	41.5%	100.0%
	전체 %	5.9%	4.7%	.5%	7.9%	19.0%
50대	명수	31	16	1	23	71
	%	43.7%	22.5%	1.4%	32.4%	100.0%
	전체 %	4.1%	2.1%	.1%	3.1%	9.5%
60이상	명수	32	11	2	12	57
	%	56.1%	19.3%	3.5%	21.1%	100.0%
	전체 %	4.3%	1.5%	.3%	1.6%	7.6%
전체	명수	281	156	15	295	747
	%	37.6%	20.9%	2.0%	39.5%	100.0%
	전체 %	37.6%	20.9%	2.0%	39.5%	100.0%

주변인물의 범위를 구체화 시켜 이웃과의 교류 빈도에 대해서 물어 보았더니 10대와 60세 이상이 상대적으로 교류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20대가 교류가 부족한데 20대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활동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청소년의 경우는 남한주민들과 상대적으로 접촉도 활발하고 비교적 교류가 왕성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15> 남한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을 무시한다는 의견

		매우찬성	다소찬성	보통	다소반대	매우반대	전체
10대	명수	2	7	16	6	3	34
	%	5.9%	20.6%	47.1%	17.6%	8.8%	100.0%
	전체 %	.3%	.9%	2.1%	8%	.4%	4.5%
20대	명수	14	42	63	29	26	174
	%	8.0%	24.1%	36.2%	16.7%	14.9%	100.0%
	전체 %	1.9%	5.6%	8.4%	3.9%	3.5%	23.1%
30대	명수	30	68	93	43	41	275
	%	10.9%	24.7%	33.8%	15.6%	14.9%	100.0%
	전체 %	4.0%	9.0%	12.4%	5.7%	5.5%	36.6%
40대	명수	15	30	53	19	24	141
	%	10.6%	21.3%	37.6%	13.5%	17.0%	100.0%
	전체 %	2.0%	4.0%	7.0%	2.5%	3.2%	18.8%
50대	명수	11	12	25	15	9	72
	%	15.3%	16.7%	34.7%	20.8%	12.5%	100.0%
	전체 %	1.5%	1.6%	3.3%	2.0%	1.2%	9.6%
60이상	명수	5	11	25	8	7	56
	%	8.9%	19.6%	44.6%	14.3%	12.5%	100.0%
	전체 %	7%	1.5%	3.3%	1.1%	9%	7.4%
전체	명수	77	170	275	120	110	752
	%	10.2%	22.6%	36.6%	16.0%	14.6%	100.0%
	전체 %	10.2%	22.6%	36.6%	16.0%	14.6%	100.0%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주민들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

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주위에서 이러한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한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무시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10대가 위의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이 다소 낮았다.

<표 2-1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유

		말투가 달라	능력 부족	사고방식 차이	노력없이 기대 많음	북한에서 와서	별다른 이유 없음	전체
10대	명수	1		9	3	11	2	26
	%	38%		34.6%	11.5%	42.3%	7.7%	100.0%
	전체 %	2%		1.4%	.5%	1.7%	.3%	4.0%
20대	명수	13	9	49	18	60	6	155
	%	8.4%	5.8%	31.6%	11.6%	38.7%	3.9%	100.0%
	전체 %	2.0%	1.4%	7.5%	2.8%	9.2%	.9%	23.7%
30대	명수	28	13	68	27	96	12	244
	%	11.5%	5.3%	27.9%	11.1%	39.3%	4.9%	100.0%
	전체 %	4.3%	2.0%	10.4%	4.1%	14.7%	1.8%	37.3%
40대	명수	10	12	26	17	50	10	125
	%	8.0%	9.6%	20.8%	13.6%	40.0%	8.0%	100.0%
	전체 %	1.5%	1.8%	4.0%	2.6%	7.6%	1.5%	19.1%
50대	명수	6	2	17	1	29	2	57
	%	10.5%	3.5%	29.8%	1.8%	50.9%	3.5%	100.0%
	전체 %	9%	3%	2.6%	2%	4.4%	3%	8.7%
60이상	명수	6	1	12	4	17	7	47
	%	12.8%	2.1%	25.5%	8.5%	36.2%	14.9%	100.0%
	전체 %	9%	2%	1.8%	6%	2.6%	1.1%	7.2%
전체	명수	64	37	181	70	263	39	654
	%	9.8%	5.7%	27.7%	10.7%	40.2%	6.0%	100.0%
	전체 %	9.8%	5.7%	27.7%	10.7%	40.2%	6.0%	100.0%

남한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갖고 있는 편견의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10대와 20대는 상대적으로 사고방식의 차이를 지적하는 경우가 다른 세대 비하여 많았다.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생각은 역으로 풀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출신이라는 것 자체는 일종의 귀속적 지위(ascribed status)로서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이탈주민들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편견이라고 볼 수 있다.

사고방식의 차이가 많다는 것은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자신들이 남한주민과의 사고 차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별의 이유를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말투의 차이를 차별의 원인으로 적게 지적한 것은 비교적 젊은 세대가 언어동화가 쉽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남한 주민과의 관계의 질적인 차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려울 때의 의논 상대를 물어 보았다. 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가족과 친척을 꼽는 경우가 많았지만, 10대와 20대가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탈북 동료를 의논 상대로 꼽은 경우가 많았는데,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결국 의존하는 것은 같은 처지의 가족이나 동료임을 알 수 있다.

<표 2-17> 어려울 때 의논 상대

		없다	가족 친척	하나원 담당관	신변보호 담당관	거주지보 호담당관	취업보호 담당관	탈북 동료	민간 단체	동네 이웃	기타	전체
10대	명수	4	18	1	3	1		4		1	2	34
	%	11.8%	52.9%	2.9%	8.8%	2.9%		11.8%		2.9%	5.9%	100.0%
	전체 %	6%	25%	1%	4%	1%		6%		1%	3%	4.8%
20대	명수	19	75	1	30	2	1	22	3	2	16	171
	%	11.1%	43.9%	6%	17.5%	1.2%	6%	12.9%	1.8%	1.2%	9.4%	100.0%
	전체 %	2.7%	10.6%	1%	4.2%	.3%	1%	3.1%	4%	3%	2.3%	24.2%

		없다	가족 친척	하나원 담당관	신변보호 담당관	거주지보 호담당관	취업보호 담당관	탈북 동료	민간 단체	동네 이웃	기타	전체
30대	명수	44	76	1	65	8		32	2	7	18	253
	%	17.4%	30.0%	4%	25.7%	3.2%		12.6%	.8%	2.8%	7.1%	100.0%
	전체 %	6.2%	10.8%	.1%	9.2%	1.1%		4.5%	3%	1.0%	2.5%	35.8%
40대	명수	22	33	2	41	5		9	1	4	10	127
	%	17.3%	26.0%	1.6%	32.3%	3.9%		7.1%	8%	3.1%	7.9%	100.0%
	전체 %	3.1%	4.7%	3%	5.8%	7%		1.3%	.1%	6%	1.4%	18.0%
50대	명수	5	32	2	13	4		9	1	2	1	69
	%	7.2%	46.4%	2.9%	18.8%	5.8%		13.0%	1.4%	2.9%	1.4%	100.0%
	전체 %	7%	4.5%	3%	1.8%	.6%		1.3%	.1%	3%	.1%	9.8%
60이상	명수	4	18	2	19	4		2	2		1	52
	%	7.7%	34.6%	3.8%	36.5%	7.7%		3.8%	3.8%		1.9%	100.0%
	전체 %	.6%	2.5%	.3%	2.7%	.6%		.3%	3%		.1%	7.4%
전체	명수	98	252	9	171	24	1	78	9	16	48	706
	%	13.9%	35.7%	1.3%	24.2%	3.4%	.1%	11.0%	1.3%	2.3%	6.8%	100.0%
	전체 %	13.9%	35.7%	1.3%	24.2%	3.4%	1%	11.0%	1.3%	2.3%	6.8%	100.0%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남한주민들과 의사소통도 활발하고 교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언어문제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족과 함께 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면 가족과 함께 온 경우는 사회적응도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남한주민들과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남한 주민들의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보는 의견이 적지 않으며, 자신들을 우호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한주민과의 거리감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8> 한국입국시 동반자

		가족모두	가족중 일부	친척	친구	단독	기타	전체
10대	명수	9	10	1	3	12		35
	%	25.7%	28.6%	2.9%	8.6%	34.3%		100.0%
	전체 %	1.2%	1.3%	.1%	.4%	1.6%		4.5%
20대	명수	30	46	1	21	78	7	183
	%	16.4%	25.1%	5%	11.5%	42.6%	3.8%	100.0%
	전체 %	3.9%	6.0%	1%	2.7%	10.1%	9%	23.7%
30대	명수	56	60	2	46	102	10	276
	%	20.3%	21.7%	.7%	16.7%	37.0%	3.6%	100.0%
	전체 %	7.3%	7.8%	.3%	6.0%	13.2%	1.3%	35.8%
40대	명수	27	30	1	32	55	2	147
	%	18.4%	20.4%	.7%	21.8%	37.4%	1.4%	100.0%
	전체 %	3.5%	3.9%	1%	4.1%	7.1%	3%	19.0%
50대	명수	22	31		6	13		72
	%	30.6%	43.1%		8.3%	18.1%		100.0%
	전체 %	2.8%	4.0%		.8%	1.7%		9.3%
60이상	명수	18	30		3	8		59
	%	30.5%	50.8%		5.1%	13.6%		100.0%
	전체 %	2.3%	3.9%		.4%	1.0%		7.6%
전체	명수	162	207	5	111	268	19	772
	%	21.0%	26.8%	.6%	14.4%	34.7%	2.5%	100.0%
	전체 %	21.0%	26.8%	.6%	14.4%	34.7%	2.5%	100.0%

<표 2-19> 현재 동거인

		가족	양부모	독신	부부	기타	전체
10대	명수	23	4	5		4	36
	%	63.9%	11.1%	13.9%		11.1%	100.0%
	전체 %	3.0%	.5%	6%		5%	4.7%
20대	명수	68	7	72	31	6	184
	%	37.0%	3.8%	39.1%	16.8%	3.3%	100.0%
	전체 %	8.8%	.9%	9.3%	4.0%	8%	23.8%
30대	명수	88	2	110	68	8	276
	%	31.9%	.7%	39.9%	24.6%	2.9%	100.0%
	전체 %	11.4%	.3%	14.2%	8.8%	1.0%	35.7%
40대	명수	57		56	28	5	146
	%	39.0%		38.4%	19.2%	3.4%	100.0%
	전체 %	7.4%		7.2%	3.6%	6%	18.9%
50대	명수	51		16	5		72
	%	70.8%		22.2%	6.9%		100.0%
	전체 %	6.6%		2.1%	.6%		9.3%
60이상	명수	24		17	18		59
	%	40.7%		28.8%	30.5%		100.0%
	전체 %	3.1%		2.2%	2.3%		7.6%
전체	명수	311	13	276	150	23	773
	%	40.2%	1.7%	35.7%	19.4%	3.0%	100.0%
	전체 %	40.2%	1.7%	35.7%	19.4%	3.0%	100.0%

3) 미래에 대한 전망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기대했던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 10대는 다른 세대와 차이가 있다.

10대의 경우는 교육의 기회를 제일 많이 기대하였고(37.5%), 다음으로 는 물질적 풍요를 기대하였다(28.1%) 반면에 20대 이상은 자유로운 생활을 가장 많이 기대하였고(37.3%, 51.0%, 50.8%, 41.9%, 35.2%), 다음으로 신분불안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26.1%, 23.9%, 18.5%, 40.3%, 13.5%).

<표 2-20> 한국 입국시 기대 요소

		신분불안 해소	물질적 풍요	교육의 기회	원활한 인간관계	자유로운 생활	기타	전체
10대	명수	1	9	12	1	7	2	32
	%	3.1%	28.1%	37.5%	3.1%	21.9%	6.3%	100.0%
	전체 %	.1%	1.3%	1.8%	.1%	1.0%	.3%	4.7%
20대	명수	42	20	21	11	60	7	161
	%	26.1%	12.4%	13.0%	6.8%	37.3%	4.3%	100.0%
	전체 %	6.2%	2.9%	3.1%	1.6%	8.8%	1.0%	23.7%
30대	명수	59	29	13	10	126	10	247
	%	23.9%	11.7%	5.3%	4.0%	51.0%	4.0%	100.0%
	전체 %	8.7%	4.3%	1.9%	1.5%	18.5%	1.5%	36.3%
40대	명수	23	16	9	9	63	4	124
	%	18.5%	12.9%	7.3%	7.3%	50.8%	3.2%	100.0%
	전체 %	3.4%	2.4%	1.3%	1.3%	9.3%	.6%	18.2%
50대	명수	25	7	2	1	26	1	62
	%	40.3%	11.3%	3.2%	1.6%	41.9%	1.6%	100.0%
	전체 %	3.7%	1.0%	.3%	1%	3.8%	.1%	9.1%
60이상	명수	17	14	1	1	19	2	54
	%	31.5%	25.9%	1.9%	1.9%	35.2%	3.7%	100.0%
	전체 %	2.5%	2.1%	1%	.1%	2.8%	.3%	7.9%
전체	명수	167	95	58	33	301	26	680
	%	24.6%	14.0%	8.5%	4.9%	44.3%	3.8%	100.0%
	전체 %	24.6%	14.0%	8.5%	4.9%	44.3%	3.8%	100.0%

연령별로 기대 사항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0대의 경우는 북한에서 정치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중국 등지에서도 신변불안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중국 등 제3국을 방황하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갈증이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 사항은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이어진다. 이에 대해서 10대의 경우는 자신의 학교 교육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였고(48.5%), 다음으로 물질적 풍요(33.3%)를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 입국이전이나 이후에 기대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이 비교적 일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21> 현재 가장 필요한 것

		가족들의 신변확인	물질적 풍요	자신의 학교교육	원활한 인간관계	자녀교육	기타	전체
10대	명수	4	11	16	1		1	33
	%	12.1%	33.3%	48.5%	3.0%		3.0%	100.0%
	전체 %	6%	16%	23%	1%		1%	47%
20대	명수	48	39	38	24	6	6	161
	%	29.8%	24.2%	23.6%	14.9%	3.7%	3.7%	100.0%
	전체 %	6.9%	5.6%	5.5%	3.5%	0.9%	0.9%	23.2%
30대	명수	70	75	17	41	38	13	254
	%	27.6%	29.5%	6.7%	16.1%	15.0%	5.1%	100.0%
	전체 %	10.1%	10.8%	2.4%	5.9%	5.5%	1.9%	36.5%
40대	명수	36	35	3	21	26	7	128
	%	28.1%	27.3%	2.3%	16.4%	20.3%	5.5%	100.0%
	전체 %	5.2%	5.0%	0.4%	3.0%	3.7%	1.0%	18.4%
50대	명수	18	21		8	12	4	63
	%	28.6%	33.3%		12.7%	19.0%	6.3%	100.0%
	전체 %	2.6%	3.0%		1.2%	1.7%	.6%	9.1%

		가족들의 신변확인	물질적 풍요	자신의 학교교육	원활한 인간관계	자녀교육	기타	전체
60이상	명수	21	20		4	8	3	56
	%	37.5%	35.7%		7.1%	14.3%	5.4%	100.0%
	전체 %	30%	29%		.6%	1.2%	.4%	8.1%
전체	명수	197	201	74	99	90	34	695
	%	28.3%	28.9%	10.6%	14.2%	12.9%	4.9%	100.0%
	전체 %	28.3%	28.9%	10.6%	14.2%	12.9%	4.9%	100.0%

장래의 희망 직업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10대 북한이탈주민들은 방송연예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고(18.8%), 다음으로 전문직(12.5%)이나 생산기술직(12.5%)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대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개인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송연예직을 선호하는 것은 최근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성향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직이나 기술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교육에 대한 욕구와 함께 생각한다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정규교육을 받고 보통의 시민으로 한국 사회에 편입되고 있기를 바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20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은 현실적으로 정규적인 교육체제에 편입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직업도 일정한 조직체제에 편입되어 일정한 임금을 받기 보다는 자영업을 선호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직업 선호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업 선택의 기준을 물어 보았다. 이에 대하여 10대의 경우 직업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인정여부였다(34.5%). 그러나 다른 집단의 경우는 장래성을 중시하거나 임금과 수입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방송연예직을 선호하는 것이나 임금을 생활

을 전제하는 전문직이나 생산기술직을 바라는 것도 이러한 직업 선택 기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방송 연예직은 사회적 인정을 전제한 것이고, 고정된 월급을 받는 전문직이나 생산기술직도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인정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표 2-22> 장래희망 직업

		행정 관리	전문직	생산 기술	사무직	서비스	판매	개인 사업	여행업	사회 사업	방송 연예	기타	전체
10대	명수	2	4	4	3	2	1	3		4	6	3	32
	%	63%	125%	125%	94%	63%	31%	94%		125%	18.8%	9.4%	100.0%
	전체 %	3%	.6%	6%	.5%	.3%	2%	5%		.6%	10%	5%	5.2%
20대	명수	5	34	11	14	6	8	40	7	6	13	6	150
	%	33%	227%	73%	93%	40%	53%	267%	47%	40%	87%	40%	100.0%
	전체 %	.8%	55%	18%	23%	10%	13%	65%	11%	10%	21%	1.0%	24.4%
30대	명수	6	35	35	16	10	6	92	7	8	7	20	242
	%	25%	145%	145%	66%	41%	25%	380%	29%	33%	29%	8.3%	100.0%
	전체 %	10%	57%	57%	26%	16%	1.0%	14.9%	11%	1.3%	11%	3.2%	39.3%
40대	명수	3	18	26	4	1	7	41		4	2	19	125
	%	24%	144%	208%	32%	8%	56%	328%		32%	16%	15.2%	100.0%
	전체 %	5%	29%	42%	6%	2%	11%	6.7%		6%	3%	3.1%	20.3%
50대	명수	1	6	10	1	1	2	14		4		10	49
	%	20%	122%	20.4%	20%	2.0%	41%	286%		82%		20.4%	100.0%
	전체 %	2%	10%	16%	.2%	2%	3%	2.3%		6%		1.6%	8.0%
60 이상	명수			2	1			4	1	1	1	8	18
	%			11.1%	56%			22.2%	56%	56%	56%	44.4%	100.0%
	전체 %			3%	2%			6%	2%	2%	2%	1.3%	2.9%
전체	명수	17	97	88	39	20	24	194	15	27	29	66	616
	%	28%	157%	143%	63%	32%	39%	31.5%	2.4%	4.4%	4.7%	10.7%	100.0%
	전체 %	2.8%	15.7%	14.3%	6.3%	3.2%	3.9%	31.5%	2.4%	4.4%	4.7%	10.7%	100.0%

<표 2-23> 직업선택시 고려사항

		임금	적성	안정성	장래성	사회적 인정	기타	전체
10대	명수	2	6	2	9	10		29
	%	6.9%	20.7%	6.9%	31.0%	34.5%		100.0%
	전체 %	.3%	1.0%	.3%	1.4%	1.6%		4.6%
20대	명수	30	32	18	55	16	1	152
	%	19.7%	21.1%	11.8%	36.2%	10.5%	7%	100.0%
	전체 %	4.8%	5.1%	2.9%	8.8%	2.6%	.2%	24.3%
30대	명수	58	39	23	90	24	2	236
	%	24.6%	16.5%	9.7%	38.1%	10.2%	8%	100.0%
	전체 %	9.3%	6.2%	3.7%	14.4%	3.8%	3%	37.8%
40대	명수	36	18	17	47	11		129
	%	27.9%	14.0%	13.2%	36.4%	8.5%		100.0%
	전체 %	5.8%	2.9%	2.7%	7.5%	1.8%		20.6%
50대	명수	16	13	12	8	5		54
	%	29.6%	24.1%	22.2%	14.8%	9.3%		100.0%
	전체 %	2.6%	2.1%	1.9%	1.3%	.8%		8.6%
60 이상	명수	7	4	4	5	4	1	25
	%	28.0%	16.0%	16.0%	20.0%	16.0%	4.0%	100.0%
	전체 %	1.1%	.6%	.6%	.8%	.6%	.2%	4.0%
전체	명수	149	112	76	214	70	4	625
	%	23.8%	17.9%	12.2%	34.2%	11.2%	6%	100.0%
	전체 %	23.8%	17.9%	12.2%	34.2%	11.2%	6%	100.0%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결혼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장래 배우자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응답 결과를 보면 원하는 결혼상대도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10대는 북한이탈주민을 배우자로 고려하는 경우가 지극히 적은 반면 30대는 같은 북한이탈주민을 배우자로 생각하는 경

향이 강하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10대에서 30대까지의 차이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남한주민을 선호하는 경향이 20대를 거치면서 30대에 가서 역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20대에서 결혼문제를 경험하면서 남한주민과의 결혼이 쉽지 않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배우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이들이 완전한 남한 주민화에 대한 열망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24> 원하는 결혼상대

		남한주민	북한이탈 주민	출신지 무관	결혼 안함	기존 배우자 기다림	전체
10대	명수	8	1	8	6	1	24
	%	33.3%	4.2%	33.3%	25.0%	4.2%	100.0%
	전체 %	1.3%	.2%	1.3%	1.0%	.2%	3.8%
20대	명수	53	43	50	7	10	163
	%	32.5%	26.4%	30.7%	4.3%	6.1%	100.0%
	전체 %	8.4%	6.8%	7.9%	1.1%	1.6%	25.8%
30대	명수	63	77	67	12	19	238
	%	26.5%	32.4%	28.2%	5.0%	8.0%	100.0%
	전체 %	10.0%	12.2%	10.6%	1.9%	3.0%	37.7%
40대	명수	32	40	21	12	17	122
	%	26.2%	32.8%	17.2%	9.8%	13.9%	100.0%
	전체 %	5.1%	6.3%	3.3%	1.9%	2.7%	19.3%
50대	명수	12	11	18	8	3	52
	%	23.1%	21.2%	34.6%	15.4%	5.8%	100.0%
	전체 %	1.9%	1.7%	2.9%	1.3%	.5%	8.2%

		남한주민	북한이탈 주민	출신지 무관	결혼 안함	기존 배우자 기다림	전체
60 이상	명수	8	6	9	7	2	32
	%	25.0%	18.8%	28.1%	21.9%	6.3%	100.0%
	전체 %	1.3%	1.0%	1.4%	1.1%	.3%	5.1%
전체	명수	176	178	173	52	52	631
	%	27.9%	28.2%	27.4%	8.2%	8.2%	100.0%
	전체 %	27.9%	28.2%	27.4%	8.2%	8.2%	100.0%

4) 실태 조사에 나타난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징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경우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남한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 그대로 상대적인 의미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중심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남한사회의 적극적으로 적응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학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원하는 직업형태에서도 개인적인 일보다는 조직의 구성원을 지향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또한 직업선택의 기준으로 사회적 인정을 들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남한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거나 최소한 이를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청소년들도 역시 진학이나 학업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이들이 남한에 오기 전에 기대한 것도 학업이지만,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동시에 고민하는 것도 학업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근로능력에 대한 고민도 학업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주민들과 동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거리감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중

요한 문제는 가족이나 탈북동료와 상의하고 있으며, 남한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결혼상대로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도 이러한 성향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은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능력문제를 고민하는 것도 그리하고, 사회부적응의 원인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도 실질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필요한 것으로 자신의 학교교육이나 물질적 풍요를 고려하는 것도 실용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부적응과 문제행동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일탈현상이 크게 늘어나 절도·폭력 62건, 교통법규 위반 59건, 행정법규 위반 31건 등 모두 152건의 법규 위반사범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법률정보에 어두워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사기 등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대부분 남한사회에서의 이질감과 부적응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대체로 부적응에 대한 반응형식으로 문제행동의 경향이 나타난다고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그 원인에 있어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북한이탈청소년 입국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층이 다양화되어 유아와 청소년층 그리고 노령자가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단위 입국 증가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층을 매우 다양하게 분포시키고 있

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20~40대의 젊은 남성들이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20~40대 연령층이 70~80%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취학연령층과 취학연령층, 그리고 노령층이 20~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과 육아문제, 그리고 노인문제 등 새로운 적응 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표 2-25> 북한이탈주민 연령 분포 (2002년도 입국자)

연령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인원(명)	55	155	332	368	130	61	40	1,141
비율(%)	4.8	13.6	29.2	32.3	11.3	5.3	3.5	100

(출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2003 127.

<http://www.unikorea.go.kr>)

<표 2-26> 2003년 입국 북한이탈주민 연령 현황

(2003 6월 현재)

연령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인원(명)	23	69	165	200	97	19	25	598
비율(%)	3.9	11.5	27.6	33.4	16.2	3.2	4.2	100

탈북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현지 체류기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2003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후 국내 입국까지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은 4~5년이 28.2%로 가장 높았으며, 5~6년이 25.7%, 1년 미만 12.1% 순서이며, 개인당 평균 체류기간은 3년11개월이었다. 이것은 2002년의 경우 3~4년 47.4%, 1년 미만 20.9%, 1~2년 19.5%의 순서이었으며, 평균 체류기간 3년 2개월과 비교할 경우 점차 체류기간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27> 2003년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해외체류 기간 현황

(2002. 5월 현재)

기 간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6년	6년 이상	탈북후 출생	계
인원(명)	61	42	33	50	142	129	41	5	503
비율(%)	12.1	8.4	6.6	9.9	28.2	25.7	8.1	1.0	100

2) 남한입국이전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영향요인

(1) 북한의 교육붕괴

북한의 경제난은 청소년들의 교육현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동하는 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출석률과 교원들의 출근률이 급격하게 저하되었고, 종이부족으로 교과서와 공책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여 학교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왔다. 평양 및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1990년 이후 새교과서가 거의 보급되지 않아 상급학생들이 쓰던 교과서를 학습단별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학생 출석률이 저조한 원인은 부모들이 식량난으로 장기간 식량을 구하러 다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교원들도 식량배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식량을 구하는 일이 절박한 현실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윤여상의 중국내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탈출 1-2년 전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노동을 했거나 떠돌이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11세임에도 학교에 입학 경험이 없어서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청소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³⁾ 이와 같이 식량난으로 인한 교

43) 윤여상, “재중 탈북 청소년 인권실태와 대처방안,” 북한인권 및 남북인도적문제 현황과 대책 비공개 워크숍, 2002.11.1.

육붕괴는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교육 기회 상실로 이어져 향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보고서(2002.4.9)에 최근의 경제난으로 인한 교육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⁴⁴⁾ 1995년 홍수로 2,290개의 학교와 4,120개 유치원이 파손되고 교육시설이 유실되었다는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교육분야의 피해가 1995년 미화 1억 5,090만 3천달러, 1996년에는 2억 1,373만 5천달러에 달했다고 한다.⁴⁵⁾ 또한 제지공장 및 교육자재 생산시설의 파괴로 정상적인 학용품생산이 어려워지며, 식량부족으로 학생과 교원들에게 충분한 배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⁶⁾

(2) 북한이탈청소년의 제3국체류경험

북한 내에서 식량을 찾아 떠도는 아이들이 급증하자, 북한당국은 지역별로 '9.27 그룹빠' '꽃제비집결소' 등을 설치하여 이들을 임시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유민들은 북한 내에서 장마당을 전전하다가, 식량과 돈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경우가 급증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일반성인에 비해 탈북으로 인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탈북 목적을, 배 고파서 19명(47.5%), 부모가 없고 의지할 곳 없어서 5명(12.5%), 가족과 동반 탈출 5명(12.5%),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 5명(12.5%), 돈을 벌기 위해서 3명(7.5%), 기타(3명)의 순서로 밝히고 있다.⁴⁷⁾ 이와 같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부분은 부모와 북한사회가 그

44) SDDPRK,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econd periodic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2002 4 9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1990/6/Add35

45) 위의 글, p 33

46) 위의 글, p 31

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여 중국으로 탈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대상 북한이탈 청소년 40명 중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는 19명으로 가장 많은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쪽 부모가 없는 경우 4명으로서 10%, 그리고 부모 생존 경우는 12명으로서 30%로 나타난다.⁴⁸⁾ 이와 같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50% 정도가 북한에 부모가 없는 고아이며, 중국에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현지 체류경험과 기간은 사회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중국내 체류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많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구걸하며 거리를 떠돌면서 기본적인 잠자리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잠잘 곳이 없어서 역전이나 아파트 계단, 공사판 등에서 잠자리를 해결하고 낮에는 이곳 저곳을 떠돌며 구걸하며 생활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부모가 사망했거나 병을 앓고 있어서 가족에게 의지하여 살 수 없는 아이들이며 도리어 자신이 중국에서 구걸하여 벌어서 북한의 가족을 도와야 하는 형편이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영양실조로 신체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여 나이보다 3~4살 아래로 보이기 때문에, 나이가 차도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어 부랑아처럼 거리와 시장을 떠돌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의 영양상태는 최악에 가까우며, 몸집을 보고서 나이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이다.

북한이탈 어린이들은 성장발육의 이상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결과 정신적 피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매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47) 위의 글

48) 위의 글. 북한 탈출 당시 동행자를 묻는 질문 결과는 혼자서 8명(20%), 부모와 함께 12명(30%), 친지와 함께 6명(15%), 친구와 함께 5명(12.5%), 형제와 함께 4명(10%), 기타(5%)로 나타난다.

몇 명씩 집단을 이루어 배회하면서 절도 등 범죄행위도 자행하고 있어 조선족 사회에서 문제시 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적령기의 교육기회 박탈과 일상화된 공포로 인해 성장이후에도 정상적인 성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3) 부적응과 문제행동의 유형

일반적으로 적응은 인간이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응은 인간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생존과 번영을 누리는 과정이다.⁴⁹⁾ 그러므로 적응은 사회적으로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기대·요구 등에 개인이 맞추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심리적으로는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 개인의 노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적응은 객관적 조건만이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주관적 측면의 조건을 포함한다.

따라서 적응은 “개인이 자신의 내적 심리적 욕구와 외적·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⁵⁰⁾ 북한이탈주민이 적응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남한사회 일반 구성원들과 동등한 기회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자신의 욕구 충족과 함께 욕구의 조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의에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이라는 중요한 2가지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의 성격과 욕구 그리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적응된 인간은 정상 인격을 소유하며 정상적으로 욕구 충족을 하게 된다. 인간에게서 욕구의 충족은 적응으로 연결되나, 욕구

49) John T. Doby, Alvin Boskoff, and William Pendleton, *Sociology The Study of Man in Adaptation* (Lexington, Mass.: D. C. Heath and Co., 1973), pp 8~9.

50)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서울 세명, 2001)

의 불만족은 좌절감이나 박탈감을 야기한다. 인간이 좌절감이나 박탈감을 느끼면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되고 집단행동화 하는데, 특히 개인의 스트레스나 불만이 사회운동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⁵¹⁾

인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과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와 접촉을 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없다. 개인은 사회에서 자신의 욕구충족이 좌절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부적응 현상을 나타낸다. 아이젠크(H. J. Eysenk)에 의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평균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현상이 아닐 때, 그것을 부적응 혹은 이상(異常)이라고 부른다.⁵²⁾ 우리는 일반적으로 적응과 부적응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특수한 병적 증상의 유무, 통계적으로 보아 평균치에서 많이 벗어난 행동특성, 그 문화의 가치 체계에서 벗어난 행동특성, 그리고 각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그 개인 자신이 자기의 내적 혹은 외적 문제로 인해 얼마나 괴로워하는가의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적응이나 부적응 현상은 개인과 환경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느냐에 관계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격과 의지 그리고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대부분 상이한 체제에서의 적응상의 어려움, 즉 부적응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소년문제행동과 그 원인과 전개과정에 있어서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북한이탈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51) Harold Kerbo, "Movements of Crisis and Movements of Affluence A Critique of Depriva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Theor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26 No.4, December 1982, pp.645~663

52) H. J. Eysenk, *Handbook of Abnormal Psychology* (New York Basic Books, 1959), p 151.

(1) 학업능력 부진

북한이탈주민적응실태조사(통일연구원, 2003)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가장 큰 고민과 관련하여 취업문제 39.7%, 가족문제 26.6%라고 답변하여 취업과 가정이 가장 큰 고민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구관계 9%, 진학문제 8%가 그 뒤를 잇고 있다. 10대는 압도적으로 진학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답변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국내입국이후 본인들의 연령에 준하여 취학하기에는 무리이다. 남북한의 교육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내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동안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학업공백으로 인한 학력저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학제차이(북한소학교과정 4년제로 인해 2년의 학력격차)로 인해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6학년을 수료한 경우에는 대학에 바로 입학할 수 있으나, 고등중학교 5학년 중퇴인 경우에는 소학교 4학년+고등중학교 4학년 등 총 8년 학력을 인정하여 남측 중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등중학교 5학년을 중퇴한 경우에는 1년 차이로 인해 중학교 졸업이 되지 않아서, 대학을 진학하려는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검정고시를 치르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입국 후 대부분 연령보다 2~3년가량 낮추어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체발육 부진으로 인해 본인들의 연령보다 어려 보이기 때문에, 연령보다 낮은 학년에 취학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평가될 수도 있다. 2002년 서울시 4개구에 거주하는 취학연령 127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학실태 확인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취학대상자 52명중 27명(51.9%)이 정규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난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학력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취학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나, 중학교 이상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정

규 학교교육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고, 미취학상태(7명, 5.5%)나 검정고시 준비(20명, 15.7%)를 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주된 상담 내용은 학업 및 부모 문제와 ‘살기 막막함’에 대한 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⁵³⁾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대개 중국에서 떠돌아다니는 과정을 겪음으로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4학년까지 다녔다 말해도 학력수준은 남한의 초등학교 5~6학년 정도인 경우가 많다. 검정고시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수업내용이 너무 어려운데다 남한 말의 이질성으로 더욱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객관식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여, 검정고시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영어하고 역사, 사회 어려움. 특히 영어는 어떻게 손 댈지도 모르겠다 나같이 중검부터 안하고 불쑥 대검으로 들어가면 못 따라간다. 학원에서 듣는 것 만으로는 합격 못한다 과외 선생님 있어야 어느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역사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 어렵다 역사는 북한에서 배우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역사 모르겠다 1년 넘게 공부했는데도..

단군, 계백 몰라 계백이 뭐예요?하고 학원에서 물으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자주 쓰는 말을 했는데도 몰라하니 “그것도 모르냐?”는 반응을 보였다 남들은 쉬운 것도 모르니까 답답할 때가 많다 차 종류 이름 모르니까, 그리고 예전 과자이름 모르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티코 이야기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웃는데 나는 몰라 그게 뭐냐고 물으니 선생님이 “너는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 해 상처로 다가왔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웃었지만 모르니까 상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니 자신감이 없어져 수업시간에 가만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웬지 여기 끼면 안되겠다는 소외감이 든다. 혹시 웃음바다 되지 않을까해 가만히 있게 된다.⁵⁴⁾

53) 늘푸른학교 담당교사와의 면담, 통일연구원 2003.3.25

54) 북한이탈청소년 최○희와의 면담, 2003.10.9

세계사나 국사를 어려워한다. 북한에서 세계사는 아프리카, 아세아, 유럽 등 지구 표면적인 거 이야기 해주지 여기처럼 그 나라 역사를 안 배운다. 더욱이 고등학교 5학년부터 세계사 배우는데, 난 4학년까지만 다녀 세계사 안 배워 아예 생소하다⁵⁵⁾

사회 같은게 제일 어렵다 선생님이 어느 지역이라 하면 애들은 위치 대강 아는데, 난 잘 모르니 어렵다. 선생님이 어느 지역하면 알아듣기 제일 힘들다.⁵⁶⁾

검정고시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일반학교 취학의 경우와 달리 본인이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해당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생의 성¹적에 관계없이 학력이 인정되나, 검정고시에서는 전과목을 합격해야 해당학교 학력이 인정된다.

영어, 수학이 좀 어려웠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학원비와 차비로 한달에 15만원이 드는데,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자기 스스로 벌어서 학원비 대느라 학원 자주 빠지고, 거의 잠을 못자 학원에 나와도 잠을 잤다 그래서 한 친구가 검정고시에 떨어지자 공부를 포기하고 노가다를 하고 있다⁵⁷⁾

아르바이트 하고 피곤해서 학원에 잘 안나오고, 자꾸 지각하니까 선생님들이 북한 학생들에 대해 좀 인식이 안좋았다. 솔직히 오히려 북한 애들이 순수하고 검정고시 학원에서 제일 낫다. 북한 애들이 개네(남한 애)들보다 오히려 담배도 더 안핀다 검정고시학원 남한 애들에 비하면 오히려 북한 애들에 대한 인식이 낫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학원수강과 함께 개별적인 학습지도

55) 북한이탈청소년 고○영과의 면담, 2003 10 10

56) 북한이탈청소년 고○희와의 면담, 2003 10 10

57) 북한이탈청소년 최○천과의 면담, 2003 10 9

(과외)를 받지 않으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늘푸른학교나 하늘꿈학교 등 대안학교에서는 체계적인 학습지도를 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검정고시 준비 하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내가 복지관에서 과외를 받고 있는데, 돈 내고 다니는 학원보다 책임적이지 않고, 그냥 선생님들이 일이라서 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깐 애들이 복지관에 잘 만나오고 선생님들과 사이가 별로 안좋다. 내 생각에는 좀 책임적이고 체계적인 학원이 있어서 맘껏 배웠으면 좋겠다.⁵⁸⁾

앞으로 우리가 통일되면 할 일이 많은데 배울수록 공부가 재미있다. 지난날 영어 ABC도 몰랐는데, 노래 부르다 아는 영어 나오면 즐겁다. 선생님이 세상 이야기 하면 즐겁다. 검정고시학원에서 공부하는 애들 일하면서 자급자족한다. 거진다 알바 한다. 한국 애들 배워주는 학원처럼 책임지고 가르쳐 주는 학원 있으면 공부 잘 할 수 있다. 복지관에서 하는 학원은 성에 안찬다. 지금 중국어 과외하는데 다른 애들보다 편하게 버는 편이다. 학생 입장에서 돈 달라는게 아니라 맘껏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 해달라는 것이다. 공부하기 전에 세상을 비판적으로 봤다. 못산데서 왔으니까 그런게 있다. 배울수록 북한애들 뭐는 괜찮고 잘못됐다는 생각 한다. 공부 안한 애들은 모른다.

그림을 잘 그리는 애가 있는데, 대학만 가면 빚을 볼 수 있는데, 검정고시 봐야 대학 가는데 고입을 떨어져 꿈을 포기 했다고 하더라. 공부가 너무 힘들다고 한다. 옆에서 좀 방조해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친구들 10명 중 1~2 명밖에 공부 안한다. 학교 다니다가도 나온다. 게임에 빠져서 논다. 공부하다가도 중간에 나간다. 남한 애들이랑 생각도 다르고 나이도 많아 잘 어울리지 못한다.⁵⁹⁾

국어가 어려웠고, 무엇보다 힘든 것은 조직생활에 익숙했던 것에서

58) 북한이탈청소년 최○천과의 면담, 2003.10.9

59) 북한이탈청소년 최○천과의 면담, 2003.10.9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자체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진짜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괴롭기까지 했다.

선생에 대해서도 존경심이 하나도 없어 선생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제일 괴로웠다. 북한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선생님과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서 부모같은 마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별로 정겨운 마음이 없다.⁶⁰⁾

(2) 교우관계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과 북한이탈과정에서 성인들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하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남한의 청소년들이 나약하다고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보다 자신들이 더 어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중학교)나보다 3살 어린 애들이랑 학교 다니니까 스트레스 받았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엄마랑 말도 안하고 말이 없어졌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갖게 되었다. 여기 오면 잘 될거라 생각했는데, 나이도 많건 적건 그냥 수준대로 학교에 넣고 하는 게 너무하다. 공부하는데 무슨 나이냐 하는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 아니면 모른다. 그건 너무 무책임한거다. 학교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다.⁶¹⁾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북한출신에 대한 매우 높은 동료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취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청소년들끼리 응집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성인 북한이탈주민들과 달리 한번 모일 계기가 있으면 부산, 대구 등

60) 북한이탈청소년 김○화와의 면담, 2003.10.9

61) 북한이탈청소년 최○천과의 면담, 2003.10.9.

각지에서 거의 다 출석하여 왔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같은 또래의 청소년보다는 나이 많은 직장인 혹은 주부들과 같이 공부하여 인간적인 정을 나누기도 하나 또래집단과 같은 교우관계는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반은 학생보다 아주머니가 많은데, 한국애들도 다섯, 북한친구도 5명 있다 남한 애들도 그렇고, 북한 남자애들 2명이 복잡했는데, 떠들었더니 북에서는 왜 교양없이 그렇게 하냐고 대뜸 해서 되게 서러웠다 남한 애들은 떠들어도 귀엽다고 봐준다⁶²⁾

늘푸른학교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의 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캠프에 참여할 기회가 마련되었는데, 서로 헤어지면서 헤어지기 아쉬워 눈물을 보였고, 교사들이 볼 때도 이들이 잘 어울렸던 것 같았으나 돌아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자기네끼리 놀고 장난한다,” “재수 없다”는 등 남한청소년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였다.⁶³⁾ 이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 청소년들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북한출신’이라는 열등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동네 강패와 싸움을 벌인 후에 “남한 애들은 잘 먹어 땀집이 좋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 애’들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열등감과 이질감을 안고 있다.

별로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검정고시 학원이 방황하는 아이들 오다 보니까 나쁜데 휩쓸리기 쉽다. 또 검정고시학원에 북한 애 한명이 수강신청을 했다가 학원 안나왔는데, 여느 남한아이들도 그럴 수 있는 것인데, 남한 아이들이 “왜 북한 애들은 들락날락하냐?”고 해서 거의 나와 싸울 뻔 했다. 그래서 북한에서 왔다고 잘 안한다

남한 애들도 다 그럴 수 있는 일을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북한 사람

62) 북한이탈청소년 고○희와의 면담, 2003 10 10

63) 통일연구원에서 자원봉사자 인터뷰, 2003.3.25

이라고 그랬다고 하면 기분 나쁘다 남한 애들은 삼자루로 머리를 까고 그런 일도 있는데, 우리가 그랬다면 큰일날 것이다

한국사회에 처음 나와서 보는 게 돈보스코에 박혀서 안 좋은 남한애들 보니까 북한애들까지 안좋아진다. 하나원에서는 순진하게 날 잘 따르던 애들이 돈보스코에 갔다 나오니 무리져서 다니고 인사도 잘 안하고 이상하게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⁶⁴⁾

북한사람이라면 낮게 본다(이유는 나라가 못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노래 불러 노래 잘부른다 하는데 그걸 북한애들 노래 잘한다 하면 기분 나쁘다. 열등감일 것이다.

북한사람이라는 사실이 친구들이 알면 사이가 좀 어색해진다(갑자기 날 대하는 태도가 어색함)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친해지면 북한에서 왔다고 한다 날 따라다니는 2살 아래 남한여자가 있었는데, 북한 애라고 해서 어색해질 줄 알았는데, 나에 대해 충분히 아니까 달라진 것 별로 없었다 북한 사람이라고 밝히기 솔직히 못한다.⁶⁵⁾

재수생학원 다녔었는데, 이념이 달라서 어려웠다. 텔레비전에서 북한 사람들 딱딱하게 나온 모습만 보고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게 좀 힘들었다. 북한 사람들 솔직하고 진실한 면이 있는데 . 북한 선생보다 여기 선생님도 믿음 안가고, 애들도 더 천방지축같다⁶⁶⁾

하나들학교에서 일년에 한번 남북한 아이들 만나는게 있는데, 거기 갔다온 애들은 남한 애들이 너무 우릴 깔본다 바보 취급한다 하면서 기분나빠 하는걸 들어서 웬만한 모임은 가지 않는다⁶⁷⁾

조선에 있을 때 20~30명씩 친구 많았는데, 여기서는 친구 없는 것이

64) 북한이탈청소년 최○희와의 면담, 2003 10.9.

65) 북한이탈청소년 최○천과의 면담, 2003 10 9

66) 북한이탈청소년 김○화와의 면담, 2003 10 9

67) 북한이탈청소년 고○희와의 면담, 2003 10 10

제일 힘들다⁶⁸⁾

(3) 폭력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에 온 보름에서 한달은 이전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는 의지가 결연하나 두어달 지나면서 해이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 문제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된다. 남한사회를 지켜보면서 ‘아무도 없다’는 막막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심리적 갈등이 고조·심화되면서 사소한 일이라도 자극이 올 때 억눌렀던 스트레스를 크게 터뜨리게 된다. 주된 문제 발생은 폭력이었고, 주로 남학생들에 의한 것이다.

좋은 벼들에서 체육대회 가서 만난 애가 하나원 1기생남자애인데(21세) 오래되어 안정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난폭함은 살아 있었다 말투 속에 혼자서 살아오면서 겪은 어려움이 다 배어 있었다. 욕하는 성격도 있고, “깡패 다 께고 있어 누구한테 해꼬지 하려고 맘만 먹으면 다할 수 있다”고 하였다. 4~5년 된 애도 그런데 온지 얼마 안되는 애들 얼마나 방황할지⁶⁹⁾

또한 이러한 폭력문제 발생계기는 대부분 사소한 것이다. 예를 들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녀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이 TV를 보며 포도를 먹고 있을 때 남학생(20세)이 다가와 여학생의 포도를 계속 먹자 다툼이 일어났던 경우이다. 서로간에 “여자가 감히 어디 대드느냐,” “종간나새끼”라며 폭언과 주먹이 오가다 남학생이 휘두르는 주먹에 여학생이 얼굴과 머리를 여러 대 맞게 되었다. 이에 여학생이 분개하며 담당형사에게 전화했고, 결국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50만원을 배상하는

68) 북한이탈청소년 이○기와의 면담, 2003.10.10.

69) 북한이탈청소년 최○희와의 면담, 2003.10.9.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무술을 좋아하는 19세 남학생 A의 경우 매춘경험으로 성병에 걸리기도 하였고,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도 남한깡패세계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등 방황이 심했었다. A가 성병에 걸려 민감해져 있던 시기 A를 포함한 몇 명의 교육생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가 술이 과해 함께 마시던 나이 어린 남학생 B—평소 A와는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이—가 그만 마실 것을 권유하자 A가 B를 때리기 시작, 술병이 깨지고 상황이 악화되었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A가 B를 밖에 데리고 나가 때리던 중 B가 힘이 없어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는 것이 재미없다며 부엌으로 들어와 칼을 가지고 나갔다. 이를 말리던 중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교사도 한 대 맞게 되었으며, A는 다시 밖으로 나가 B에게 칼을 쥐어 주면서 싸워보자고 하는 상황으로 악화되어 인근 경찰을 불러서 사건을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폭력은 흔히 음주이후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 애들은 사회가 우리한테 무관심하고 적대적이라 한국애가 무조건 건들면 때리라 하면서 북한애들끼리 뭉친다. 한 친구는 남한새끼들 상대 안한다고 하는 애들 있다. 한번은 남한 고등학교 3학년 6명이 같은 고등학교 북한애인데(학년은 같아도 남한 아이들보다 나이 2살 많음), 때려서 실신시켰다. 그래서 북한애들 열댓명이 몰려가 때린 애들을 당구장에 데리고 가 패서 특히 북한애 많이 때린 애는 얼굴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맞았다 당구알이고, 당구대고 가지고 때렸다. 먼저 때려서 까무라쳤기 때문에 신고도 못한다.⁷⁰⁾

북한 애들이 노래방에서 한국애들을 때려서 경찰서에 갔다. 내 친구가 19살인데, 형들(22살)과 노래 부르는데, 형중 한명이 자기 방인 줄 알고 술취해서 다른 방에 들어갔다. 한국 애들이 그 방에 9명 정도 있었는데, 여자애들과 미팅중이었는데, 남자 애들이 여자 앞에서 뽀대 보일

70) 북한이탈청소년 최○천과의 면담, 2003 10 9

려고 너 뭐야 하자 북한 애들이 달려들어 쓰레기통으로 머리 치고 했다. 경찰서에 가서 한사람에 500만원씩 벌금 내라 했는데, 배째라 했다.⁷¹⁾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는 남한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갖기도 한다.

엄마가 애들보다 사회적응하기 힘들다. 오래 공산주의 사회에 살아서 나가서 이야기 하는 것이 달라서 힘들었다. 엄마 없이 온 애들이 많은데, 엄마랑 같이 와 행운이라 생각한다. 친구들 중에 부모랑 같이 왔는데 북한에서 교육 제대로 못받아 여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많다. 애들이랑 아빠랑 있는데, 아빠가 어떤 북한 사람이랑 싸웠는데, 경찰이 와서 말리자 왜 남 일에 상관하냐고 했다. 오히려 어른들이 적대감이 많은 것 같다. 한국새끼들 하며 부모들이 분리하면 아이들이 따라간다. 어른들이 끼리끼리 모여 술 마시고, 내가 볼 때 애들보다 비전 없다고 생각된다.⁷²⁾

(4) 성문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에는 하나원 퇴소이후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20세가 될 때까지 보호를 받아야 하고, 영구임대주택은 보호기간이후에 배정 받게 된다. 대부분 기숙사시설을 갖춘 대안학교(현재 ‘늘푸른학교’, ‘마자렐로 센터’, ‘돈보스꼬 센터’, ‘지구촌고등학교’ 등)에서 생활하게 되나,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켜 보호단체와 심각한 갈등관계에 처하게 되면 단체에서 이탈하여 20세가 되어 주택을 배정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집에 더부살이 형식으로 떠돌게 된다. 이러한 북한이탈청소년의 규모가 30여명선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북한이탈청소년들은 23~24세까지 문제가 계속 이어지게

71) 북한이탈청소년 최○천과의 면담, 2003 10.9

72) 북한이탈청소년 최○희와의 면담, 2003 10.9

된다. 많은 경우 북한이탈청소년 한명에게서 문제가 파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에는 외로움과 장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안고 있으며, 중국 체류기간동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적인 경험을 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국이후 자연스럽게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게 된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없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북한이탈주민의 집에 남녀가 혼숙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부모와 같이 입국한 경우에도 10대 후반의 경우에는 부모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한 가정의 경우 엄마는 폐렴에 걸려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가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엄마가 아들한테 겁먹어서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한 단체의 경우 교육생들이 신체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여, 단체검진을 받은 결과 여학생들은 모두 산부인과 질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나타낸다기 보다는 중국 등 제3국 체류기간의 어려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9살된 한 친구(남자)는 빨간 집 가봤다고 하더라. 그런 것도 가봐야 된다고 하더라. 빨간집이 그때 뭘지 몰랐다. 그런거에(성교육) 대해서 교육 못받고 하니까 외로움 달래기 위해서 그런데 돈 쓰고, 이곳저곳 돈 뿌리고 다니는 것 같다.

나이 속여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8살 정도 애인데, 한국 나이 많은 사람이라중국에서 같이 살았다고 했다 한 애는 중국에서 매춘을 시작했다. 돈 얼마씩 받고 한방에 남자 여럿이 있고 혼자 들어가 그랬다

23살된 어떤 언니는 중국에서 안정된 생활 못하고 거기서 담배 배웠는데, 적응 잘하나 싶었는데, 혼자 와서 혼자 온 남자애랑 같이 살았다. 같이 자니까 얘기 뻘쭙조 글 쓴 거 보니까 힘들다 힘들다. 계속 썼다 남자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별로 비전 없고, 나가면 회사 적응도 힘들

니까. 며칠도 안사귀고 동거를 시작해 일년 반 같이 살았다. 그런데 헤어지니까 워낙 혼자 온 남자들 외롭게 지내니 남자가 해꼬지했다. 여기에들은 헤어질 때 깔끔하게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싸우다가 화끈에 여자를 때렸다. 남자는 계속 미련 못 버리고 미안하다 하면서 계속 매달렸다. 결국 여자는 우리 집에 1주일 넘게 피신해 와있었다. 이 여자애는 담배 하루 두 갑 정도 폼다. 남자애가 여자한테 전화해서 나쁜 딸 해가면서 난 좋은 애 사귀고 있다면서 결국 그 사귀는 애가 아는 애 동생이었다.

한 친구 동생은 태국 거쳐서 왔는데, 18살인데, 17살 때 한국에 와 하나원에서 알게 된 두 살 많은 오빠와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다. 그 여자애 오빠가 나한테 와서 속상하다고 했다. 오빠가 동생 남자 친구를 만났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 했다. 혼자 와서 그런 개념이 없다. 그냥 외로우니까 같이 살고 그런다. 오빠는 친 여동생한테 맘이 돌아선 상황이다. 중국에서 잘살자 맘 먹고 왔는데, 그렇게 달라지니 실망했다고 하더라⁷³⁾

그리고 뭉쳐 다니고, 약간만 건들면 모여 붙어 누굴 때려 놓고, 청량리나 영등포에 가서 돈주고 여자들하고 잔다. 남자애들 청량리에 간 애들 많다. 18~19살, 20살 애들이 간다. 한달에 한번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김정고시 학원 다니는 애들 말고, 노는 애들은 다간다. 0천아, 너 숫총각 딱지 때라고 한다. 우리 고향 애들이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나, 기술 가르쳐 줄 수 있는 곳 필요하다. 적응 못하니까 다른데로 흩미돌린다.⁷⁴⁾

하나원에 20살 된 어떤 여자애는 애기가 중국에 있어서 매일 저녁 운다고 들었다.⁷⁵⁾

몇 년 전까진 여자 담배 잘 안 폼다했는데, 북한에서나 여기서도 여자들 담배 많이 폼다. 하루에 한갑정도 폼다. 나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

73) 북한이탈청소년 최○희와의 면담, 2003.10.9.

74) 북한이탈청소년 최○천과의 면담, 2003.10.9.

75) 북한이탈청소년 고○희와의 면담, 2003.10.10.

정도 된다. 나는 술 잘 못 마시는데, 23,24세 정도들이 대체로 소주 두 세병정도 마신다. 우리 기에(하나원) 나온 사람중 나온지 보름 됐는데, (여자 있는데)두 번 가봤다고 한다. 27살 정도이다. 오토바이 사고 낸 애가 여자랑 친해서 모텔에 몇 번 잤다고 했다. 하나원에 있을 때 많이 외로울 것 생각하고 나왔지만 많이 외롭다. 아는 애들 두 세명정도가 여자랑 동거하고 있다. 20살, 23살, 26살 친구가 북한에서 혼자온 여자들과 동거한다. 20살짜리는 6개월 같이 살았다. 그러다 지금은 갈라졌다. 여자는 집이 대구라 서울에 있는 남자친구 집에 와서 사는 것이다. 하나원에서 사귀었는데, 2~3달 정도 사귀고 동거했다. 두 명은 하나원에서 사귀고, 한명은 중국영사관에서 세 달동안 있으면서 사귀게 되어 하나원 나오자마자 같이 산다. 76)

(5) 불안감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일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와 같이 입국이후 여러 가지 신체적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검진에서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사례도 빈번하며, 이는 정신적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보인다.

불안한 게 많았다. 처음 왔을 때는 어안이 병병해 몰랐는데, 1~2년 지나니 뉴스가 보이고, 사회가 눈에 들어오면서 내가 겪기에 이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내가 살던 사회랑 너무 달랐다. 내가 만나는 사람도 많고, 택해야 할 것이 많아서 굉장히 불안했다. 몸은 피곤한데 한1주일간 잠을 못 잤다. 사람을 만나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빈부 차이 많은 것도 굉장한 충격이었다. 사회에 대한 적대감도 생겼다. 북쪽에서는 전체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전체를 위해 그러는데 여기는 왜 하나로 통합이 안되나? 싫다. 생각 들었다. 이 말 저 말 속에서 뭐가 진실인지, 진심인지도 모르겠고, 사회라는 게 우리를 속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다. 77)

76) 북한이탈청소년 이○기와의 면담, 2003.10.10.

예를 들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학원 갔다 오면 머리 아프다면서 약을 먹고 자거나 게임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 애들 게임중독 많은데, 하루에 6~7시간 한다. 개내들 집에 가보면 맨날 게임하고 있다. 다른 거에 사회적으로 관심 없다. 동네 사람들이 애들 나쁘게 보니까 흥미 잃어서 게임만 재밌다하게 된다.⁷⁸⁾

일반적으로 “피곤하다”는 말들을 자주 하며, 피부알레르기나 구상탈모증, 방광염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는 건강했는데 남한에 와서 이렇게 아프다”고 말하고 있으며, 입국이후 신변불안의 위협에서 벗어나 그 당시 경험한 외상후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대다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불안함과 막막함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자꾸 눈물이 난다”거나, 여학생의 경우 손에 십자모양의 칼집을 내는 형태로 자해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⁷⁹⁾

(6) 과도한 음주와 흡연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미성년인 경우에도 중국 등에서의 음주 및 흡연 경험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후에도 음주나 흡연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청소년 몇 명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 처벌을 받은 경우도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되어도 단속경찰에게 “본인은 북한이탈주민이며, 남한의 법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한 것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상당수가 오토바이

77) 북한이탈청소년 최○희와의 면담, 2003.10.9.

78) 북한이탈청소년 최○천과의 면담, 2003.10.9.

79) 늘푸른학교 담당교사와의 인터뷰, 통일연구원 2003.3.25

에 대한 집착이 큰데, ‘집단폭주’를 즐기다 이웃 어른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오히려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를 선창하면서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⁸⁰⁾ 북한이탈청소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특히 남자 아이들, 여자도 그렇고 줄담배 피운다. 내가 봐도 한숨 나올 정도로 편다. 남자아이들은 비전이 없고, 공부도 머리에 안들어 오고 학교에 가서도 대가 세면 짱으로 사는데, 순한 애들은 매도 맞았다. 거지같은 놀아, 밥도 못먹었지 그런 소리 들어서 적응 못한다. 그런 애들 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오토바이도 타서 한번은 사고 난 적도 있었다.

부천에 사는 한 남자애는 혼자 왔는데, 친구들끼리 같이 살았다. 몇시에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 없이 막 살다가 오토바이 사고 나서 아이를 쳤는데 사고 피해자가 중학생인데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사고 낸 애는 감옥에 들어갔다. 사고 낸 애가 폐결핵인데, 담배도 계속 피고 자기 몸을 막 굴린다. 옆에서 도와 빼 내왔는데, 북에서 왔다하면 봐준다는 생각이 있어 그런데서도 교훈 못 얻고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오토바이를 샀다

오토바이 산 애들은 대개 사고가 많이 난다. 한명은 제주도 사는 남자한테 술 먹고 오토바이 타다 전봇대에 받아 그 자리에서 죽었다. 내 친구가 그 애 장례식에 갔다 왔다고 한다. 남자애들 무리져서 30명 정도 모여 줄담배 피면서 오토바이 몬다. 무면허자동차운전하면 두려워해야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⁸¹⁾

대부분 엄마, 아빠 없이 홀로 온 애들이 거의다 오토바이 있다고 보면 되고 거의 다 면허 없다 술먹고 오토바이 타다가 나무에 부딪혀 죽고, 거의 다 한번씩 사고난다.⁸²⁾

80) 통일연구원에서 실무자 인터뷰, 2003.9.16

81) 북한이탈청소년 최○희와의 면담, 2003.10.9

내가 지금 있는 아파트에 19살된 애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와 접촉사고로 무릎이 나가서 입원해야 한다고 한다. 내가 아는 사람 몇 없는데도 오토바이 타는 애 꽤 많다 노원구 쪽에 두명, 사고난 애 하나...⁸³⁾

5. 북한이탈청소년 문제의 원인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현재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체계는 기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구축되어 있는 반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은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현재 시행되는 북한이탈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NGO들이 주도하고 있는 형편이다.⁸⁴⁾ 북한이탈청소년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도 NGO들이며 그 동안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였다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통일부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탈청소년이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학습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나 교육자치단체 등에서 별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정책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청소년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갖고 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청소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청소년 또래의 일반적인 문제를

82) 북한이탈청소년 최○천과의 면담, 2003.10.9.

83) 북한이탈청소년 이○기와의 면담, 2003.10.10.

84) 통일부에서 발표하는 통일백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항목을 보면 북한이탈 청소년관련 정책의 예로서 하나둘 학교를 들고 있다 「통일백서 2003」(서울 통일부, 2003) 참조. '하나둘 학교'는 하나원 내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운용되는 적응 프로그램으로 남북문화통합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 퇴소 이후에 단독세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용되는 '늘푸른학교', '한누리학교' 등도 정부의 보조를 받기는 하지만 NGO들이 자발적으로 구상하고 운용되는 과정이다

갖고 있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이중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개인적 배경 즉, 탈북의 동기, 제3국에 체류 기간 및 경험, 가족의 유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대응방식도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북한이탈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조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문제에 대한 연구도 일천한 형편이다.

셋째, 적지 않은 북한이탈청소년이 불안정한 가족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난이후 북한 내부에서도 일부 가족이 해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중국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남한으로 입국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1990년대 후반 식량난으로 북한을 벗어난 사람들로서 가족해체를 경험하였거나, 북한이탈과정에서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많다. 또한 가족이 같이 북한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중국등지에서 장기간에 걸친 불법체류 상황으로 가족이 해체되기도 한 경우가 적지 않다. 비록 남한에서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남북 출신 배우자들 간 갈등이 적지 않기도 하다는 점에서 가족 구조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입국자들도 남한에서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일반적으로 결손가정은 청소년 일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바,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가족 단위로 입국하여 가족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적응 속도의 차이로 인하여 가족구성원 간의 간격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적응속도가 빠른 젊은 세대에 비하여 나이든 세대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가치관과 같이 변화에 저항적인 문화적 요소들의 경우 세대별로 차이가 많아질 수 있으며, 가족간 갈등

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급속히 자본주의 사회와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청소년들과 이를 이해 못하는 부모들의 간격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남북한 교육체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사회문화체제는 여러 차원에서 차이가 적지 않고,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체제의 차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 영어 등 언어의 차이, 학력수준의 차이 그리고 학교생활 관행의 차이는 북한이탈청소년이 학교를 이탈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많은 북한이탈청소년의 학력차이로 자신의 연령대의 교과과정에 편입하지 못하게 되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다.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학교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은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생활경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북한이탈청소년이 제3국에서 생존의 문제에 내몰려 있다. 학교는 고사하고 정상적인 취업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경험을 적지 않게 하게 된다. 범법행위를 포함해서 청소년 시기에 겪지 말아야 할 각종 경험들은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⁸⁵⁾

일곱째, 남한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사람이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남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낮은 학교, 쫓아가기 힘든 교과과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남한 학생들의 따뜻한 배려가 절실하지만, 도리어 남한 학생

85) 폭력의 일상화가 하나의 예가 된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폭력적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제국의 생활이 심리적인 피해를 준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전우택 민성길, 1996년 참조

들은 이들을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래집단이 중요한 청소년기에 사회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북한이탈청소년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⁸⁶⁾

6. 북한이탈청소년문제 대책

1) 체계적인 북한이탈청소년문제 조사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제3국 특히 중국지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차적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연령, 나이, 학력, 가족관계와 같은 사회적 성격부터 시작하여, 북한에서의 학력, 중국 등지에서의 경험 등 기초적인 자료를 일차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들의 학력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진행하고, 각자의 희망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원 교육과정과 사회편입 이후 일정시점 등 시기별로 나누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의 기초자료를 축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와 아울러 향후 북한이탈청소년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종합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재정기반 확충 및 민간참여를 위한 지원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적응에 대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확대추세

86) 엄경남,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심리 사회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1. p 22

에 있으나, 이를 제도화의 수준으로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물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민간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성보다는 남북 이질화의 극복과 사회통합이라는 공공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바, 이를 감안하는 재정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체계와 아울러 각종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차원의 관련 사업 기금의 조성을 통해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운동의 물적 기반이 튼튼한 서구에 비해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의 기초가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기부문화가 일반화된 서구와 달리 한국사회의 경우 대다수의 NGO는 재정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운동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분야의 민간단체도 이와 같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장과 기부문화의 발달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나 정부의 지원을 다각화하여 시민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을 지원하는 민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아울러 기타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민간과 정부의 협력관계 구축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문제 해소에 있어 민간과 정부간의 효율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민간의 경우 적극적 의지가 있어도 재정문제 등의 제약이 있으며, 정부의 경우 구체적인 노하우의 축적이 미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상호보완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을 순조롭게 지원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나, 사안의 특성상 정부의 역할이 효율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민관 task force를 구성 대비책을 마련하는 공동의 노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확립

북한이탈청소년중 특히 무연고 청소년에서 문제행동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점증하는 무연고 청소년(2002년 7월기준 150여명)의 정착지원을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일반 북한이탈주민과는 차별화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3국 체류기간 및 북한 내부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남한사회에 대한 무지, 청소년 문화에 대한 그릇된 인식, 가족부재로 인한 취약한 정착 여건으로 인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대규모 집단시설보다는 전반적인 조정체계 하에 교육과 생활관리를 위한 ‘그룹 홈’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일반적인 가출청소년 및 장애 청소년 등의 경우에도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생활관리’방식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5) 후견인 제도의 활성화

무연고 청소년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법정후견인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제도운영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 청소년에 대해 여러 명의 mentor가 협력하여 부분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mentor는 생활 경험이 풍부

하고 사회적인 자원이 많다는 장점이 있으며, 동년배에 해당하는 학생 mentor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청소년과 공유할 수 있는 이해 폭이 넓은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에 친화력이 있는 다수의 mentor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6) 제도권 교육에 대한 보충체계 확립

북한이탈청소년대상 학력인정 특수학교의 설립이 검토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한 대안학교 등은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력을 떨어뜨리고 이들을 격리시키는 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⁸⁷⁾ 다만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민간단체의 대안학교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대안학교들은 학업지도와 생활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대한 행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일반 후원금과 자원봉사제로 운영되어, 경제적 어려움과 전문교사 부족을 겪고 있다.⁸⁸⁾

제도권 학교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학교 등의 형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안학교의 형태는 현재 ‘늘푸른학교’, ‘마자텔로 센터’, ‘꽃지모’ 등이 있으며, 순수민간 혹은 종교단체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순수민간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와 규모 등에 있어서 시범적 성격이 강하며, 종교단체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돕는 것에 관심이 많으나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것

87) 이영석, 다리공동체, 북한이탈주민민간단체협의회 아동청소년분과 세미나 토론, 2003.10.10.

88) 이영주, 하늘꿈학교, 북한이탈주민민간단체협의회 아동청소년분과 세미나 토론, 2003.10.10.

과 아울러 정상적인 대안학교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현 규모의 경우 향후 발생가능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에 비해 부족한 만큼 대비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7)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우, 일반적 사회적응과 차별화되는 특징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이 미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특화된 형태의 사회적응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예상가능한 일탈행위에 대한 예방적 교육 및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생활방식 등에 대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8)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2004년 3월 개원예정인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는 내년 1학기에 시범 운영한 뒤 9월부터는 정식 초등학교나 인근 초등학교의 병설학급 형태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진흥원은 불법체류자 자녀도 교육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몽골·동남아 출신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최대한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적응프로그램을 북한이탈청소년 적응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민자와 외국인 자녀를 위한 ESL 프로그램이 단순히 영어교육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 학습지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들과의 접촉(오리엔테이션, 학부모면담)을 통

해 아이들의 적응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ESL 프로그램은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학교단위로 개설되어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단위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국 초기에 특별학교 방식(기숙사시설 학력인정학교)으로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지역단위의 적응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학교는 단기로 운영하고 가족들과 같이 입국한 경우에는 지역단위로 조기에 편입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전문인력의 양성

현재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은 자원봉사 교사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하나원이나 중국에서 탈북자관련 자원활동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행태가 중국이나 하나원 등 보호기간과는 매우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활관리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북한이탈청소년과 교사간의 인간적 갈등과 실망이 누적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는 전문교사나 자원봉사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해주기 위한 중간역할자가 필요하다.

10) 직업교육 유도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정부의 대학진학에 대한 특례 및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비 수급 등으로 인해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본인의 나이와 수학능력에 관계없이 북한에서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인해 대학진학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중도에 대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및 취업지원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교육보호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의 교육비에 해당하는 액수를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지원은 일시불의 형식보다는 직업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일정취업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등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 백

III. 귀국청소년

1. 연구의 패러다임과 연구방법
2. 귀국 청소년의 실태와 특성
3. 귀국 청소년의 경험들
4. 귀국 청소년 적응을 위한 대안

공 백

III. 귀국청소년

1. 연구의 패러다임과 연구 방법

1) 기존 패러다임의 검토

흔히 청소년기는 ‘정체성’의 미확립 시기로 규정되어 일반화되고 있다. 즉 청소년기는 성장과정에 있는 시기로 육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 발달과정에 있는 시기로 인식된다. 이 정신적 성장과정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기는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로 정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관은 전형적으로 근대적 청소년관을 대변한다. 근대 시기의 ‘아동’ 개념은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이라는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였다.⁸⁹⁾ 근대적 핵가족이 등장하면서 생계책임자인 아버지, 가사담당자인 어머니, 이들의 보호 아래서 자라는 아이라는 구도가 자리잡게 된다. 이 때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성인이 되는 과정에 위치하게 된다. 이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이 미확립되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혹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외부에 반응한다고 자연스럽게 가정된다.

이런 식의 아동관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이룬다. 청소년은 성년이라는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한 미성숙한 주체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귀국 청소년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귀국 청소년의 경우 정체성이 아직 미확립된 시기에 두 문화를 체험

89) 김혜경, “일제하 ‘어린이기’의 형성과 가족변화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하면서 정체성의 혼동을 더욱 증폭시키고 이로 인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식의 결론을 일반화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성인이 두 문화를 겪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좀더 확대된 형태로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이론적 관점이 성립되게 된다. 말하자면 통상적인 문화접변 과정에서 느끼는 성인의 혼란에 특수한 어떤 혼란이 추가된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귀국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일반적 시각이 갖는 한계이다. 귀국 청소년의 경우 한 개인이 겪는 부적응 사례와 두 문화 체험이라는 요소가 단순하게 엮어져 원인과 결과가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귀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사이에 적응 문제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⁹⁰⁾ 그렇지만 귀국 청소년의 경우 적응 문제가 ‘특별하게’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이유 중에는 특정 청소년이 적응과정에서 드러내는 문제를 과도하게 두 문화체험과 자동적으로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⁹¹⁾

사실 많은 귀국 청소년의 경우에 두 문화 체험이 경험적인 측면에서나 협상능력에 있어 강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이 포착되지 않는 문제도 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구체적인 개인의 수준에서 자신의 경험치와 협상능력에 따라 귀국 후의 문화를 서로 다르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지만, 이러한 다양한 지점들에 주목하지 않아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단순한 접근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귀국 청소년의 부적응을 다루는 논문들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흔히

90) 최화순, “해외 귀국아동의 적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91) 이러한 문제설정과 관련하여 귀국학생들의 적응문제가 그들의 부모가 상류층이 많은 이유로 과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윤선, 「귀국학생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p5.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혼란,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교과 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학습준비 정도의 차이 등이 주로 거론된다. 이러한 학교 내의 부적응 양상이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할 때 사회적인 부적응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가정되고 있다. 귀국 청소년의 타 문화 경험이 부적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 하에서 귀국 청소년을 위한 대안 마련은 통상적으로 귀국자녀 특별학급을 운영한다든지 학업을 보충할 수 있는 과외 학습을 만드는 등의 ‘보충수업’에 불과한 적응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를테면 학과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실 개설 이외의 대응이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부재하며, 실제적인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역할로 위임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대책은 “당장 필요한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원과 예산 등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타문화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장점을 살려낼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치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도 크게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부적응 양상은 문제가 이미 제기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출국 이전과 외국 생활 속에서의 대책과 연관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고, 구체적인 경험의 차이에 따른 세부적인 상황 파악과 대안 마련이 없는 단순한 교과교육에 머물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넘어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와 문화 적응의 문제를 보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문화 적응의 문제

학교 적응 문제, 더 나아가 문화 적응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좀

더 폭넓은 맥락이 필요하다. 흔히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접할 때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흔히 적응-부적응의 틀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적응과 부적응의 관계는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기존의 연구 성과는 좀더 구체적인 문화 적응의 유형을 나눈다. 예를 들어 문화 적응의 유형으로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로 범주를 나눌 수 있다.⁹²⁾ 이러한 구체화된 범주 구분은 문화 적응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지점들을 마련해준다. 좀더 세부적인 범주화는 이후 부적응 문제를 다루는 측정기법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적응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⁹³⁾ 즉 이 틀에서만 보더라도 통합의 경우에서처럼 두 개의 문화를 반성적으로 이해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종합을 시도하는 적응 유형과 동화의 경우처럼 새로운 문화에 현상적으로 동화되어 잘 적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적응은 서로 다른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적응 여부의 문제가 유형화된 범주로 치환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적응은 기존에 습득한 문화를 버리고, 변화된 환경과 문화에만 익숙해지는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다. 적응 과정은 적응 주체로서 자신이 내재화시킨 복수의 문화적 인식들을 능동적으로 혹은 창조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인 것이다.⁹⁴⁾ 즉 적응은 개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문화적 능력을 습득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찾

92) 각각은 다음을 의미한다. 통합은 두 문화를 비교하여 새롭게 종합되는 것을 의미하고, 동화는 하나의 문화에 선택적으로 동일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분리는 새로운 문화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변화는 두 개의 문화 자체와 거리를 두면서 주변에 위치하는 방식을 뜻한다.

93) 정진경, “문화간 훈련 이론의 개괄,” 2003년 5월 9일 남북문화통합 워크숍 발제문.

94) 이윤선, 앞의 논문, p.4.

아가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적응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율을 이루는 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관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어떤 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이 되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에게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여러 파생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조율에 실패하면 사회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자원이 낭비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귀국 청소년의 경우도 학교생활 등에 적응하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산적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차원에서는 타 문화 경험의 자산이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유의미한 경험이 사회적으로 묻히는 결과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차원에서 귀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적응의 문제를 다룰 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한 사회에서 유의미하게 생존하는 문제가 하나의 기준에 따르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적응의 문제를 하나의 지향점을 갖는 단일한 과정으로 인식할 때 다양한 반응과 행동을 '문제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관용될 수 있는 반응과 행동이 문제화됨으로써 문제를 더욱 풀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흔히 귀국 청소년의 문제는 다음 세 차원에서 지적되고 있다.

첫째, 학업적응 문제다. 학교에서 겪는 문제로는 크게 학업성적과 교우관계, 입시에 매달리게 되는 중고생에게는 특히 성적문제가 크다. 특히 국어와 수학과목이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국어의 어휘력 및 이해력 부족은 다른과목 학습능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외국학교 수학은 계산기를 이용해 수업을 하지만 국내에서는 손으로 푸는 연산능

능력을 위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지도 문제다. 학교생활의 성공여부는 교우관계에 달려있다. 사춘기를 외국에서 보내 서구식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은 일상적인 행동이나 옷차림이 다른 또래 친구들에게 '이상한 아이'라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똑같이 교복을 입고 있지만 속은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관습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일시적인 역 문화충격(culture shock) 현상이 일어난다. 문화충격이란 처음 현지도착에서 발생하는 자기정체성(Identity)의 오류에 빠지면서 적응과 부적응이 반복하면서 진전해가며 결국 마지막에 쌍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모순을 극복해 가는 현상인데 앞에서 지적한 학업과 생활부적응에서 오는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현상으로 3~4년 이상의 장기 체류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지의 생활감각, 습관 등의 모든 행동과 가치기준이 현지화가 되어 있어 한국인다음과 거리가 있어 우리의 가치관 및 학업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사회적 이탈행동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⁹⁵⁾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적응과 문화 적응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정보 부재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지식이나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 부재는 정보 자체를 습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극복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에 한정되어 있다는 약점을 지닌다.⁹⁶⁾ 학업능력의 문제도 이 차원의 문제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어에 대한 학습능력이 구비되지 않아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문제는 이 범주에 속한다.

일차적 차원의 적응 문제가 사실이나 지식을 습득하지 못해서 발생

95) 김철영, "이중문화 체험바탕으로 세계화 시대의 인재될 수 있어," 「고대 교육신보」, 1998 3 25

96) 위의 글.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좀더 일반적인 맥락에서 적응 문제는 이 차원을 넘어서 존재한다. 일반적인 부적응 문제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생긴다기 보다는 문화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행동 양식과 가치관, 관념, 의식 등의 차원에서 발생한다.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에는 문화의 문법이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의 행동이나 가치관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호간에 편견을 만들게 된다. 인류학에서 강조하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이 경우 타자의 문화를 이해하거나 타자와 공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문화 자체가 '동질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타 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지 않아 문화적 적응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동질성이 강조되는 문화는 다양성에 대한 수용 정도, 그리고 문화 간 차이에 대한 관용성이 낮아 타 문화 경험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형성시킬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타 문화에 대한 노출과 경험이 쌓여가는 중이기는 하다. 하지만 사회적 종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사회에서 타자와의 관계 설정에서 비롯되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실정이다.⁹⁷⁾

귀국 청소년의 적응 문제를 '동질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다룰 경우, 일차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문제는 한국사회가 단일한 기준과 표준에 맞추어야 하는 문화적 압력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일 것이다. 귀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사회를 경험한 정도가 각각 다르다. 일부는 외국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니다 귀국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한국사회에서 성장하다가 일시적으로 외국 경험을 한 경우도

97) 타 문화에 대한 태도에서 일종의 '이중성'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우위로 인식되는 문화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가 높지 않지만, 한국사회보다 하위로 인식되는 문화에 대한 차별이 심한 것도 하나의 특성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문제, 북한이탈주민 문제, 그리고 연변 동포 문제 등은 이러한 배타성이 잘 드러나는 영역들이기도 하다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취학하여 학교에 다니면 단어나 속담, 그리고 아이들의 은어 등을 몰라 겪는 곤란이 크다. 또한 한국 문화와 또래 문화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출국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후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습득된 생활 습관이 한국 내에서 연장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고 새로운 경험을 소화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각각의 경우에 있어 차이는 존재한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이던 한국 문화 자체가 갖는 동질화 압력이 커서 부적응 문제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 적응의 문제를 고려하면 적응의 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로만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한국인다움'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문화 적응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기는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단일한 문화적 기준 자체가 부적응을 양산시키는 토양이기도 하며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하는 이론적 배경이기도 하다는 새로운 문제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귀국 청소년의 문화 적응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적응 양상에 대한 조사보다는 그 맥락을 해석할 수 있는 질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말하자면 자아정체감을 형성시키는 경험과 반응 등을 좀더 심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귀국 청소년의 범주가 상대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그 경험 또한 개인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문화 적응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질적 수준 확보가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질적 차원의 확보는 환경과 주체 사이의 다양한 교섭을 이해하고 좀더 진전된 대안 마련을 위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다.

3) 연구의 초점

이미 제기한 바 있듯이 문제인식에서 대안에 이르는 단순한 회로를 극복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귀국 청소년이 가족이나 학교와 같은 생활공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이미 가정된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는 틀을 넘어서서 경험이 구조화되는 내적 상황과 이에 따른 반응을 심층조사를 통해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다.

경험이 구조화되고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세가지 환경적 요소에 주목한다.

첫째로 귀국 청소년들의 진술을 통해 한국 문화와 외국 문화의 차이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한국사회, 좁게는 한국의 학교 경험과 또래집단 내 경험이 일반적인 문화 코드의 차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혹은 위계성 등과 관련된 경험 등을 알아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국 문화와 외국 문화의 차이는 객관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주체 내에 존재하는 해석 상의 차이를 의미한다. 귀국 청소년이 한국 사회를 경험하면서 일상을 해석하는 코드를 알아냄으로써 문화 간 차이가 주체 내에서 해석되는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다. 한국 문화의 장단점, 한국 학교의 장단점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파악하여 귀국 청소년이 보이는 반응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작업이 된다.

둘째는 동료와 친구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상 경험을 추적하는 것이다. 청소년 나이에 있어 또래집단의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험을 축적하는 세계가 학교 내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또래 관계의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간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친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유사성, 양립가능성, 구조적 차원 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⁹⁸⁾ 유사성이란 태도와 행동에서 유사성을 가질 경우 친구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하고, 양립가능성이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를 지지해주는 관계 속에서 친구관계가 진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구조적 차원에서는 친구관계의 질적인 차원과 상관없이 지역의 근접성, 교류 기간, 공동의 경험 등이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귀국 청소년의 적응 문제는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차이를 내포하고, 이에 따른 학교 생활 내에 포섭되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귀국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주요한 조사 지점이 된다. 앞의 요인들을 염두에 둔다면 경험 차이에 따른 교류관계가 학교 내의 존재방식에 따라 차이를 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공동의 경험을 한 또래들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귀국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사이의 차이, 또는 학교 생활 이외에 다른 집단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셋째로는 가족과의 상호작용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이 가장 일차적인 사회생활의 장소라는 당연한 맥락 외에도 가정 내의 환경적 배경과 기대수준의 형성 등은 귀국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가족 내의 '문화자본'과 '기대치'의 형성은 청소년의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가족 내의 관계 속에서 겪는 경험들을 드러내는 것이 주요한 조사 작업 중의 하나가 된다.

98) 친구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는 여러 이론적 틀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의 일부를 이 연구의 맥락에서 차용하여 사용한다 좀더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주은희, "청소년 친구관계와 가족," 손승영 외, 「청소년의 일상과 가족」(서울 생각의 나무, 2001)

가족관계와 가족 내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경제적 배경 등과 같은 일반적 요인 외에도 가족 내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점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족 내의 권위관계의 배치를 둘러싼 차이는 문제 발생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지점에서 주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더 실제적인 맥락에서 한국사회의 적응 문제가 하나의 선택일 수 있는 가정적 환경을 가진 경우와 한국사회 내의 적응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사이의 차이, 그리고 가족 내의 일상적 소통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사이의 차이 등에 주목하여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 흥미롭게 접근해볼 수 있는 지점 중의 하나로 가족 내의 기대치의 형성과 관련된 적응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이들의 부모가 대부분 학자, 고위 공무원, 대기업 중견사원 등의 ‘엘리트 층’이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기대수준이 너무 높아 이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고, 가정 내의 기대와 귀국 청소년의 기대수준 조율 문제가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이 청소년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또래관계와 가족과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것 외에 환경적 요소가 내적 차이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인구학적 변인으로 나이와 성에 따른 범주를 구분한다 어떤 나이에 귀국하느냐 여부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적응과정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해석할 때 이러한 차이에 유의한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인의 도입은 다양한 요소에 따른 차이를 일반화해서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케이스를 드러내기 위한 해석 자료로 삼는 정도에 그친다 왜냐하면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보다는 이 연구가 좀더 심층적인 경험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가려져 있던 요소들을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성격을 가질 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원을 구분하는 작업과는 무관하다. 인터뷰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개개인의 진술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맥락적 지식의 일부로 다루어질 뿐 요소들의 차이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도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4)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질적 방법론이다. 질적 방법론의 도입은 귀국 청소년의 적응과정과 일상에서의 실천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사회 내에서 귀국 청소년이 '자리매김'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택해진 것이다. 이미 전제된 바와 같이 질적인 심층조사는 주로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목할 것은 귀국 청소년을 단순한 정보제공자로·대상화하기 보다는 사회적 행위자, 혹은 주체로 인식한 선에서 그들의 경험치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진다.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귀국 청소년의 일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적응 실태나 정책 방안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일상의 총체를 재현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들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 행동하는 구체적 행위자로서 그들의 언어와 실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이 두어질 것이다. 이 연구는 일반화를 지향하기보다는 구체화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방법에 주목하여 보면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는 문제들이 다시 정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취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어떠한 경험 해석 속에서 자신과 다른 학생들을 구분하는지, 그리고 자신과 타자 사이의 관계를 갈등으로 인식하는 지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인지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귀국 청소년’으로 정체화하는 특성은 어떤 것이고, 이러한 자기 정체화와 더불어 자신의 행동과 태도, 나아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등을 인터뷰를 통해 구체화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 연구에서 귀국 청소년 적응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수집한 인터뷰 사례는 크게 세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범주는 기존의 연구 사례에서 수집된 사례들이고, 두 번째 범주는 7명의 해외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인터뷰 자료, 그리고 세 번째 범주는 연구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한 귀국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 3사례의 인터뷰 기록이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 범주는 현재 귀국학생 특별반 등에 속해있는 사례들로 주로 이미 연구된 문헌에서 발췌된 내용이다. 이 범주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특정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로 현장감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이 사례는 다른 사례들에 비해 나이가 적은 경우가 많다.

두 번째 범주는 7명의 직접 인터뷰 그룹이다. 이 범주는 서로 알고 있는 사례를 배제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적응과정을 일정하게 언어화할 수 있는 사례들을 물색하였다. 외국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일정 정도 객관화하면서 비교 등이 가능할 정도의 일정 시간이 흐른 사례들이다. 즉 자신의 경험을 언어화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마지막 사례는 자신이 외국 경험을 한 적이 없으면서 귀국학생과 생활을 하였던 사례들로 3명과의 집단 인터뷰 결과를 통해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 인터뷰를 진행한 이유는 귀국학생들의 경험담뿐 아니라 같이 생활하였던 동료의 반응을 통해 자기경험을 통해 인식되지 않는 지점들을 탐색하기 위해서이다.

인터뷰는 적응 과정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에 인터뷰 대상자의 인적 특성이나 경험 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진술과 맥락을 이어보는 역할 정도에 그친다. 이 연구에서 일정한 해석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일반화를 위해서는 제한적인 맥락만을 갖는다.

2. 귀국 청소년의 실태와 특성

1) 귀국 청소년의 실태

글로벌화와 조기유학의 급증으로 인해 귀국 청소년의 적응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해외 경험이 이전처럼 낯설지 않고 한국 교육 현장을 떠나 자녀를 교육시키려는 흐름들이 맞물리면서 귀국 청소년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지적되듯이 한국사회 외부에서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부모들의 욕구는 매우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조기유학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교육열의 일차적 반응이라는 차원도 존재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는 합리적 선택의 차원도 존재하고 영어 학습과 한국교육 환경에 대한 실망을 통해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떠나는 개인적 선택의 차원 등이 얹혀져 나타나는 현상이다.⁹⁹⁾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유학의 경우에 삶의 터전을 외국으로 옮기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다시 한국사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사회 외부로 떠날 때 발생하는 적응 문제도 있지만, 다시 한국교육 내로 편입될 때 겪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 통념 상에서 해외 경험을 자녀들의 교육 적응 문제는 일부의 문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적인 대응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동의도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99) 이미나,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 한국교육개발원, 「2001년도 제 1차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유학이민)의 명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의 반영이겠지만, 사실 해외 유학, 특히 조기유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확한 통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나간 유학의 경우 규모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지만, 불법 유학의 경우 그 정도가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교육이민의 경우에도 실제 목적이 교육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은 쉽지 않다.¹⁰⁰⁾

현재 가능한 선에서 파악될 수 있는 대략의 규모를 보여줄 수 있는 추정 통계치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표 3-1> 초·중·고 유학자수 및 유형별 비율¹⁰¹⁾

(단위 %)

학년도		초	중	고	합 계
'95	총 계	5,146	3,984	1,944	10,993
	유학인정	7(0.1)	27(0.7)	25(1.3)	59(0.5)
	해외이주	2,267(44.1)	1,762(44.2)	824(42.4)	4,853(44.2)
	파견동행	2,644(51.4)	942(23.6)	295(15.8)	3,881(35.3)
	편법유학	228(4.4)	1,173(29.4)	799(41.1)	2,200(20.0)
'96	총 계	5,011	4,619	2,843	12,473
	유학인정	10(0.1)	32(0.7)	14(0.5)	56(0.5)
	해외이주	1,912(38.2)	1,607(34.8)	847(29.8)	4,336(34.8)
	파견동행	2,758(55.4)	1,269(27.5)	507(17.8)	4,534(36.4)
	편법유학	331(6.6)	1,711(37.0)	1,475(51.9)	3,517(28.2)

100) 김홍주, “조기유학(유학이민)의 현황 및 국민의식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유학이민)의 명암」, 2001년도 제 1차 KEDI 교육정책포럼, p 8

101) 김홍주, 앞의 논문, 10p에서 재인용

학년도		초	중	고	합 계
'97	총 계	4,776	3,873	3,361	12,010
	유학인정	0	1(0.03)	393(11.7)	394(3.3)
	해외이주	1,839(38.5)	2,022(52.2)	1,048(31.2)	4,909(40.9)
	파견동행	2,696(56.4)	873(22.5)	258(7.7)	3,827(31.9)
	편법유학	241(5.5)	977(25.2)	1,662(49.4)	2,880(24.0)
'98	총 계	5,678	3,025	2,035	10,738
	유학인정	4(0.1)	28(0.9)	401(19.7)	433(4.0)
	해외이주	2,850(50.2)	1,973(65.2)	934(45.9)	5,757(53.6)
	파견동행	2,616(46.7)	579(19.1)	224(11.0)	3,419(31.8)
	편법유학	208(3.7)	445(14.7)	476(23.4)	1,129(10.5)
'99	총 계	5,695	3,605	1,937	11,237
	유학인정	27(0.5)	80(2.2)	82(4.2)	189(1.7)
	해외이주	2,623(46.1)	2,198(61.0)	888(45.8)	5,709(50.8)
	파견동행	2,640(46.4)	698(19.4)	351(18.1)	3,689(32.8)
	편법유학	405(7.1)	629(17.4)	616(31.8)	1,640(14.6)
2000. 3. 1~4.30	총 계	1,304	812	758	2,874
	유학인정	4(0.3)	22(2.7)	31(4.1)	57(2.0)
	해외이주	539(41.3)	393(32.8)	248(32.7)	1,180(41.1)
	파견동행	649(49.8)	140(17.2)	143(18.9)	932(32.4)
	편법유학	112(8.6)	257(31.7)	336(44.3)	705(24.5)

주·()는 전체 초·중·고 유학 학생수 대비 유형별 유학생, 2000학년도인 2000. 3. 1~2001. 2. 28 까지의 통계는 현재 집계중임.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집계자료

이 표에서 보듯이 해외 유학은 초등학교의 경우와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와 파견동행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비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유학으로 인정되어 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고 편법유학도 상당수에 이른다. 여하튼 해외 유학으로 파악되는 경우만 하더라도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만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중에서 상당수가 다시 한국사회의 교육현장으로 되돌아오

고 있다고 가정하면 귀국학생의 숫자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교육부의 규정에 따르면 귀국학생은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외국의 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귀국학생은 개개인의 능력, 자질, 다른 문화의 내재화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기간으로 한정하여 정의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1년 정도만 해외의 학교에 있어도 언어 및 행동발달과 문화의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간은 별다른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닐 수 있다.¹⁰²⁾

어쨌든 귀국 청소년의 적응 문제가 의제화되는데는 일차적으로 숫자의 급증과 관련이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귀국 청소년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은 연도별 귀국학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표 3-2> 학교급별 연도별 귀국학생 귀국 현황¹⁰³⁾

학교별	'91	'92	'93	'94	'95	'96	'97	'98	계
초등학교	1,504	1,568	2,229	2,631	3,045	4,883	6,351	5,513	27,724
중 학교	318	268	314	789	1,040	1,774	2,252	1,993	8,748
고등학교	144	96	107	654	722	931	1,612	2,005	6,271
계	1,966	1,932	2,650	4,074	4,807	7,588	10,215	9,511	42,743

이 자료에서 보면 연도별로 귀국학생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2000명 선에 이르던 숫자가 90년대 말에는 만명 선으로 5배 증가한 상태이며, IMF 경제위기로 인한 90년대 말의 정체

102) 차경수, “다문화시대의 귀국학생 국내교육 적응방안,” 「귀국학생 조기 적응 교육 및 국제성 유지 신장 방안」, 1998

103)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1999 귀국학생 교육담당 초등교육 연수」, 1999에서 재구성.

상태가 최근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⁰⁴⁾

특히 주목할 것은 초등학생의 조기유학은 1995년 235명에서 2001년에는 2017명으로 6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파악되고 있으며, 전체 유학생 중에서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0.4%에서 26.5%로 증가하였다.¹⁰⁵⁾ 이런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유학이 귀국 청소년 숫자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경우 외국 생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귀국 이후 대책을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귀국 청소년은 90년대 초반에는 주로 초등학교에 밀집되어 있는데 반해,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초반의 귀국학생의 대다수가 부모의 유학이나 근무 등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최근에 들어서는 조기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국학생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대학 입시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떠났다가 사정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외국 유학을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귀국 청소년을 구성하는 내적 상황의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귀국청소년의 체류기간과 해외경험의 성격 등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알 수 없지만, 귀국 청소년의 숫자는 당분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 대책 등이 요구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시범적으로 특별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월 7일 발표한 <귀국학생 교육대책>에 따르면, 귀국 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강남지역과 대전의 서부지

104) 일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귀국학생의 숫자를 대개 4000~5000명 선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규모에 대한 파악은 사실 어렵다

105) 조완제, “조기유학 보내기가 겁난다,” 『뉴스메이커』 542호.

역을 교육협력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중고교에 귀국학생반을 설치하여 적응교육과 국제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귀국청소년 대책은 주로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학교 생활 적응이라는 틀에 묶여져 있다. 특히 귀국 청소년을 구성하는 범주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중심으로 접근하는 대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귀국 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 귀국 청소년의 특징과 적응 문제

귀국 청소년은 외국 생활의 경험을 통해 다른 문화를 경험한다. 이와 같은 경험의 차이는 주체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수용되기 마련이다. 청소년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나이, 성별, 태도 등의 변수와 경험한 문화권의 차이, 부모와의 관계 여부 등에 따라서 다문화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물론 귀국 청소년의 경우는 다른 소수화된 청소년과 동일한 영역에 위치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다문화 체험의 경험이 존재하고 영어권에서 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특권화’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 때문에 일반적인 보고에 의하면 귀국 청소년의 경우 좀더 능동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귀국학생들은 “체제국의 언어를 비교적 유창하게 구사하고, 해외에서 체득한 독특한 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자기 표현의 훈련이 잘되어 있고, 개성적이며 창조성이 풍부하다. 거기다가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인식도 객관적이다. 특히 수업 태도가 적극적이며, 무엇을 배우느냐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

며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¹⁰⁶⁾ 이와 같은 정리 방식은 다문화 체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장점에 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제한적이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히 발견되기도 하며, 한국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학교 생활에서 단체행동이나 경쟁적인 활동에 따라가지 못하는 적응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¹⁰⁷⁾ 말하자면 문화적 차이가 학교 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귀국 청소년에 대한 논의는 외국 생활과 관련된 특징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다. 귀국 청소년의 장점에 주목하던 단점에 주목하던지 간에 귀국 청소년이 보이는 특징을 ‘문화적 차이’로 이해하지 않고 일반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장단점을 나열하는 방식이 기존의 연구에서 공통적이다.¹⁰⁸⁾ 따라서 이러한 특징 파악은 주로 귀국 청소년의 적응, 좀더 나아가 이들이 가진 능력을 유지시키는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는 대안 마련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귀국 청소년의 적응 문제는 그 기준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국제교육진흥원 조사에서 약 20% 정도가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¹⁰⁹⁾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분석은 문화 사이의 차이가 문화적 정체성이나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특정 연령에서 귀국 후 적응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응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데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의 실천이 외국의 경우와 차이를

106) 순천용담초등학교,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 운영보고서(2/2). 귀국학생의 학교생활 초기 적응과 해외 경험 살리기」, 1999 11.17, p.6

107) 앞의 보고서, p.6.

108) 이윤선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의 연구를 ‘핸디캡’론으로 명명하고, 그 내부에 귀국자녀 결함론과 귀국자녀 장점론으로 세부화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윤선, 앞의 논문, p.5

109) 이형삼, 귀국학생들 2. 파란 눈 친구, 선생님이 그리워요, 「NEWS+」 제 77호, 4월 3일자

가지고 있어 귀국 후 적응에 실패하고 비행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¹¹⁰⁾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문화와 적응 사이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제를 개인이 사회와 문화에 원만하게 편입되는 것을 적응으로 간주하여 기존 체제로의 편입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설정되고 있는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이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 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학교생활에 적응은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있는 타자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 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¹¹⁾

사실 이러한 적응에 대한 관념은 일차적으로 적응의 문제를 개인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 경험자들에 대한 배려의 문제가 사회환경 혹은 학교 환경의 개선 문제와 연결되지 못하고 개인적 수준의 적응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응의 문제들이 기존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기능도 있다. 적응이 도달해야 할 목표가 될 때 사실 다문화 체험에서 얻은 아이들의 지식이 발전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외국과 한국 사회의 교육현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내적 심리상태의 형성이라든지, 적응을 위한 타협과정의 문제 등 구체적인 경험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는 ‘한국 학생

110) 특히 이런 인식과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론의 보도 태도이다. 각 매체에서 조기유학의 문제를 다루는 패러다임은 한편으로는 ‘낙원’, 한편으로는 ‘마약’ 등으로 상징된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많이 다루어짐으로써 실제 부적응의 구체적인 지점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111) 순천용담초등학교, 앞의 보고서, p.5.

만들기'에 다른아닌 대책과 방안을 양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귀국 청소년의 내적 경험과 환경적 조건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태도나 반응에 주목하면서 좀더 세밀한 기술을 가능한 지점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초점은 주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읽어내고, 한국사회 내의 교육현장 속에서 그 주체가 맺는 관계와 갈등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드러냄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지점들을 들여다 본다.

3. 귀국 청소년의 경험들

1) 적응이라는 과제

한국사회에 다시 들어오기로 선택한 순간 적응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다. 귀국 청소년의 경우 중에는 이미 외국 생활 중에도 한국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이런 준비의 내용은 학업에 따라가기 위한 과외 등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좀더 세밀하게 준비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부모와 생활하는 경우에는 이런 학업 준비와 마음의 준비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부모는 다른 현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며, 그 관계가 원만할 경우 사전 적응 준비는 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저는 미국으로 중학교 2학년 때 갔는데, 공립중학교와 공립고등학교를 그 곳에서 다녔어요. 처음 미국에 갈 때부터 다시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학 과외를 줄곧 받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수능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매진했던 편이지요 (사례

나는 한국의 교육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호주에 갔다왔기 때문에 한국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이지요. 한국 학교의 전반적인 수업 방식, 학교 분위기 이런 데에는 약간 불만이 있기도 했지만 선생님 개인이나 친구 개인들에게는 불만이 있지 않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어요.(사례 2)113)

내 경우는 영국에서 가족이 함께 지내고 주말에 한인학교를 다녀 적응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곳 한인학교에서는 한국식 교육방식으로 국어, 수학 등을 배웠고, 영국에서 영어 과외도 계속 했어요.(사례 3)114)

나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떠날 때 한국의 참고서, 문제집 등을 많이 가져 갔어요 그런 것으로 계속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올 준비를 꾸준히 한 편이지요 (사례 4)115)

이처럼 적응을 위한 준비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일반적이다. 특히 이 경우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준비를 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일부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유학 도중 자기관리에 실패하여 실질적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응 압력에

112) (사례 1)은 80년도 생으로 94년도에 미국으로 가서 2년 동안 LA 인근에서 거주하였다. 사례 1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초등학교 때 인도네시아에 산 경험이 있다 친가가 미국에 있다.

113) (사례 2)는 1983년 생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 동생과 함께 호주 시드니에 유학했다 호주에 2년 반을 체류했으며 랭귀지스쿨과 중학교를 다녔다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대학에 재학 중이다.

114) (사례 3)은 83년생으로 영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4년간 체류하였다 영국에 간 이유는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왔으며 한국인 밀집지역에 살았고 영어경시대학특기자로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다

115) (사례 4)는 중국에 1년, 캐나다에 1년 간을 학교에 다녔다. 사업을 하는 어머니와 같이 간 경우로 어머니가 2개국어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해서 1년씩을 나누어 살았다. 현재는 한국에 돌아와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다.

대응하기 위해 외국에 있을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유학 생활의 경우 부모와의 시간이 많이 허용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와 간 경우나 가족이 함께 지낸 경우에서 한국 상황에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의사소통의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런 관계 설정과 외부 환경의 익숙하지 않음 등의 요소가 상호적으로 작용하면서 귀국 후 대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흔히 조기 유학의 성패는 세가지 과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가 영어에 대한 적응 문제이고, 둘째가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혼란을 대처하는 것이며, 셋째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한다.¹¹⁶⁾ 마찬가지로 귀국을 할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기 스스로 변화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 전반, 특히 교육환경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자신이 한국교육 경험을 통해 알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한국사회라는 곳에 대해 일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음의 준비 중에 포함되는 것은 한국 교육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습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국사회의 현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돌아와서도 자신의 외국 경험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노력을 통해 한국에 적응하는 방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어떤 경우에 처해 스트레스나 왕따 비슷한 것을 경험한 경우에 외국 경험을 숨기는 식으로 적응을 위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식 표현 방식에 익숙해져서 건방진 아이로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학기 초에 수학시간이었는데요. 잘 이해가 안가서 선생님께 반복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선생님 표정도 좀 그렇고, 아이들도 그

116) 강영준, “조기유학 보내기가 겁난다,” 『뉴스메이커』 제 542호

일로 외국에서 온 아이들은 건방지다고 수근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른 한국아 이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적응은)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웬지 마음 속에서는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고 싶지 않은 역할을 억지로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¹¹⁷⁾

한국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편입되었어요. 그런데 왕따 비슷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요. 다행히도 2학년 때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이 없고, 또 내가 미국에 갔다왔다는 것을 아는 아이가 한명도 없어서 수월하게 나뉘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학교 생활이 아주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생활 이야기는 거의 안하고 다녔지요.(사례 5)

저는 일종의 ‘영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영어 수업시간에 계속 읽기를 시킨다든지, 선생님께서부터 이죽거리는 듯한 질문을 질문을 받게 되고, 그 경우 갑작스럽게 형성되는 학급 분위기가 아주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외국에 갔다 온 티를 내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어요.(사례 6)

내가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재는 외국에 살다와서 저렇게 그림다”라는 말을 하는데 아주 듣기 싫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마한가지인데, 왜 그렇게 그림을 그리니 라고 묻지 않고 그냥 외국에서 왔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다르게 외국 이야기를 안하려고 해요.(사례 7).¹¹⁸⁾

아이들이 한국에서 택하는 적응은 대부분 자기의 특성을 잘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적응해가는 경우가 많았다. 사전에 한국 교육 현장의 특징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돌아와서 경험으로 얻어 순응의 방식을

117) 이윤선, 앞의 논문, pp.30~31에서 재구성

118) 사례 7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의 유학으로 전 가족이 이탈리아에 가서 5년간 살았다. 한국에 와서 일반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어 현재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데, 다시 외국으로 가고 싶어한다

택하면서 적응을 하는 경우들이다. 이런 적응 방식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 상황에 대한 사전 인지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귀국 청소년이 겪는 경험 중에는 적응 압박이 매우 크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문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동질성'과 관련하여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야 받아들여지고 수용되는 국민 이데올로기¹¹⁹⁾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즉 한국사회의 구성원, 좁게는 학교의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없는 요소를 보충하여야 하고, 남에게 없는 요소는 억제해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적응 자체가 목적이자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경험하는 귀국 청소년이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이 적응 압력에 직면한 주체는 일단 외면적인 적응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일단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을 억제해 보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다른 문화에 대한 체험은 한국의 학교 현실과 내면적으로도 조화롭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내적으로 느끼는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긴장이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긴장은 공개적인 갈등으로 전개되기도 한다.¹²⁰⁾

이와 같이 외면적인 적응 태도를 취하고 그것이 수용되면 큰 긴장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외국에 가고 싶어하거나 학교 생활을 회피하는 방식을 택한다.¹²¹⁾

119) 국민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으로는 박노자, “‘국민’이라는 이름의 감옥 · 구한말의 국민담론을 중심으로,” 강수돌 외, 『탈영자'들의 기념비』 (서울 생각의 나무, 2003).

120) 이 차이는 외면적 적응과 내면적 적응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외면적 적응은 어떤 문화적 현상을 받아들일 때 행위적인 기술(skill)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면, 내면적 적응은 그 행위의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까지 이해(understanding)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다, 이윤선, 앞의 논문, p 32.

2) 경험과 긴장

귀국 청소년 개개인이 시도하는 적응 노력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 간 차이는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저수지와 같이 존재한다. 이럴 때 개인의 선택은 적응 시도를 포기하거나 두 문화를 이중적인 상태로 지속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한 문화적 요소를 부인하거나 하는 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의 경험은 아이들의 인식에서 명확하게 문화 간 차이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겪는 경험들이 외국에 살 때의 경험과 항상 비교되어 인식되기 마련이고 이런 차이에 가치판단이 곁들여질 때 긴장의 요소로 드러난다. 차이에 가치 우위의 요소가 개입되면 긴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일을 경험할 때 ‘미국에서라면 어땠을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경우에 긴장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이런 식의 비교틀이 작동하면서 가치에서 우위를 매기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 경우 특정한 현실을 부정하는 식으로 인식이 전개되는 것은 일반적이다.

미국에서의 체벌은 time out이라고 하네요. 만약 아이가 떠들면 뒤에 가서 벽을 보고서거나, 쉬는 시간에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해요. 심하게 잘못하면 교장 선생님 방으로 가요. 한국에서처럼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는 경우는 없어요. 제 말은 미국식 벌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요. 저도 이제 맞고 때리는 벌에 익숙해졌어요. 그게 더 간단하니까요. 근데 어떨 때는 왜 야단맞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¹²²⁾

121) 직접 인터뷰 그룹 중에서 내적 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경우는 사례 6과 사례 7이었다. 다른 사례들과의 차이는 일반화할 수 없지만 한국 경험이 별로 없고 외국 체류 기간이 긴 공통점은 있다.

122) 이윤선, 앞의 논문, p.36에서 인용.

한국아이들은 너무 개성이 없어요 TV드라마나 가수 등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왜 모두 그래야만 하나요?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외국에서는 다르다는 게 개성이고, 오히려 주체적으로 봐 주거든요 남같은 내가 되기는 싫어요.¹²³⁾

나는 한국과 외국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소한 부분에서의 차이가 크게 보여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말을 하건 캐나다에서는 완전히 무시되고 씹혔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이야기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이예요. 이런 느낌을 가질 때 한국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사례 4)

한국에 와서 별다르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지만, 가끔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예를 들어 여름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서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럴 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사례 5)¹²⁴⁾

외국에 있을 때는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서로 배려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 싫어요.(사례 7)

이와 같이 문화 간 차이를 구별하는 경험은 아주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인터뷰 대상자 거의 모두가 긴장의 잠재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준거가 외국 생활일 경우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여부와 무관하게 긴장 요소가 존재한다.

123) 위의 논문, p.39에서 재인용.

124) 사례 5는 1988년 생으로 가정형편 때문에 필리핀에 보내진 경우로 필리핀에서 약간의 우울증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중학교 1학년 때 떠나서 외국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었지만 돌아온 경우이다.

이 구별의 요소들은 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방식의 문제와 얽혀 있다. 첫 번째 사례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위계적 관계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면, 두 번째와 네 번째 사례는 집단적 문화와 개인적 문화 사이의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와 마지막 사례는 일상 생활의 배려에 관한 문제, 다시 말해 청소년 인권 등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각각의 문제는 문화적 총체 내에서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경험 세계 내에서는 위계적인 문화, 개인이 존중되지 않는 문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문화 등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즉 한국사회의 문화가 ‘문제’로 인식될 경우에 개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현실을 긍정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한국 문화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해석 체계가 부분적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외국 경험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일상화되었던 문화적 문법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도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긍정성을 본 경험은 다양한 측면에서 진술되고 있다.

나는 미국 생활이 너무 루즈해서 매우 싫었어요. 한국에서 온 아이들도 그렇고 그곳에서 만난 미국 아이들도 대체로 급한 것이 없었어요.
(사례 1)

나는 미국에서 생활할 때 계산적인 것이 아주 싫었어요. 낯선 거예요 언젠가 무슨 도움을 주었는데 돈으로 갚다주어서 당황했고, 우정이란 것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사례 6)125)

한국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 대한 비난과 반성이 많지만, 그것도

125) 사례 6은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부모와 함께 자란 경험이 있다 미국에서 자랄 때 한국 경험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집과 학교의 차이로 경험했다고 한다.

나름의 장점이 있다. 이곳(오스트리아)에서 역사를 공부할 때 한국에서 해두었던 많은 양의 공부가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었다.¹²⁶⁾

이러한 사례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다문화체험으로 인한 비교틀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차이 자체가 가치에서의 우위 기준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이다. 한국문화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되던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수용되던지에 관계없이 비교 기준이 자체가 외국 경험과 아주 밀접하게 존재한다. 이럴 경우 존재하는 차이 자체가 잘 조정되지 못할 경우 부적응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사실 다문화 경험은 사회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기준에서 그 경험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유의미한 변화 시도로 나타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이것은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는 문화역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차이가 갈등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3) 부적응의 명시적 경험들

한국의 학교에서 귀국 청소년의 부적응 경험은 쉽게 발견된다. 특히 한국 학교 경험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어떤 일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되거나 그로 인해 좀더 직접적인 문제를 겪기도 한다. 이런 부적응의 경험은 아주 작은 에피소드 수준일 수도 있고, 좀더 심각하게 ‘왕따’와 같은 배제 대상이 되었던 경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언젠가 어떤 선생님이 뭘 물어보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다는 제스처로 어깨를 으쓱했더니, “야 임마, 니가 미국사람이냐?” 하시면서 제 머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저절로 제스

126) 이윤선, 앞의 논문, pp 40~41에서 재인용.

췌어가 나와버린 건데 127)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것은 내가 외국에서 살다왔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외국 생활 경험이 내면화되어 있어 그게 아이들 눈에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경우에는 특히 모임을 주도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사례 1)

한국에 와서 특례입학이 가능해서 일산에 있는 명문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다가 부모 잘만나 그렇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한 때 자퇴를 고민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내가 다른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했으면 전지기 힘들었을 거예요.(사례 3)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단 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뭐랄까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불편하게 되는 일이 많거든요.(사례 5)

이처럼 외국 생활 자체가 자신의 경험에서 부정적인 경험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사례는 많았다. 앞의 사례들 중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된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상의 사소한 문화적 차이가 문제화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귀국 청소년이 부적응이라는 범주로 문제가 될 때는 단순한 학업 능력의 문제라기 보다는 문화 간 차이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그 인식에 의해 자신이 영향을 받을 때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한국에 돌아와서 친구가 없거나 친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험을 한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문제가 비화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또래집단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이런 경우

127) 이윤선, 앞의 논문, p.42에서 재인용.

에는 한국사회 내에서 또다른 소수자 집단처럼 존재하기도 한다

언젠가 빨리 외국으로 다시 갔으면 해요. 학교 생활에서 정을 붙이기 힘들어 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다들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친구들 분위기가 내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친구들하고 사귀기도 힘들고 그래요.(사례 5)

나는 말만 배우고 글은 잘 모르고 왔어요.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나쁜 욕을 이탈리아로 뭐라고 하는가 묻고 그래서 가르쳐주면 나한테 다시 그 말을 하고 그런 경험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다가서는 것이 무서웠어요. 지하철에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부러워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싫지만 내가 다가서려고 하면 잘 안돼요. 다시 이탈리아로 가고 싶어요.(사례 7)

현재의 상황에 적응하고 있지 못한 경우 공통적으로 다시 외국으로 가면 좋겠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다. 이런 경우 외국의 경험은 선택지로 작용하면서 이 곳을 부정하는 논리로 작용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외국 경험 자체가 생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의 맥락에서 사고되는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학교생활 내에 존재하지 못하고 생활에서 자신을 주변화시키는 경험은 자신을 파괴하는 식의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용된 사례들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생활 속에서 고립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실패하고 있는 경우들이다. 이 경우에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이해시키는데 실패하게 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모두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식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개인 내면의 상처는 매우 크게 존재하면서 교육과 학습, 그리고 생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이르게 된다.

귀국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가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어

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기 때문은 아닐 수 있다. 이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관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식의 경험으로 진전되는 경우 성장과 학습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들을 드러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4) 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미 언급했듯이 적응과 부적응이라는 대립쌍은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는 데 적합한 문제설정이 아닐 수 있다. 이 대립쌍이 이데올로기적 용어 사용일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적응과 부적응에 어떤 변인들이 작용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중요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맥락 속에 존재하는 차이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해석하는 정도에서 요인들에 대한 개략적 상을 그린다.

첫째, 자기관리의 차원이 존재한다. 흔히 지적되는 것이지만 유학생 생활을 긍정적으로 보낸 경우 환경적 차원보다는 목적을 갖고 생활하는 태도가 중요하게 드러난다. 즉 환경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환경을 해석하는 주체의 태도가 결정적일 수 있다. 특히 유학 생활에서 자기관리를 성공적으로 한 경우 귀국 후의 경험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나는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류의 아이들과는 일부러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풍요한 아이'들의 경우에 놀러온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학교 생활 자체를 안하고 폭력이나 마약에 빠지기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례 2)

한국에서 학교다닐 때는 감정에 치우쳐서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외국 경험을 하고 나니까 좀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학교가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획일화된 교육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변화된 것 같아요.(사례 4)

이러한 사례들은 유학 경험 중에서 자기를 관리하면서 한국 사회를 좀더 객관적인 인식으로 바라보는 힘을 얻은 경우들이다. 특히 사례 4의 경우는 “한국에서는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 끔찍했어요. 초, 중학교가 너무 끔찍해서 그 때 써놓은 일기보고 엄마가 너무 놀라서 유학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에서 유학을 떠날 때 한국 상황에 대한 부정적 양상이 있었다. 하지만 외국 생활의 경험에서 좀더 문제를 논리적으로 보는 힘을 얻은 경우이다.

귀국 청소년의 적응 문제를 개인적 수준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관리의 중요성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즉 귀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사회의 환경적인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 자체에서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과는 다른 태도인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탈출을 꿈꾸는 경우에는 외국을 간 이유가 한국 상황에 원만하게 포섭되지 못했던 경우나 외국 생활 중에서도 환경과의 교섭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경우와 맥락상 이어져 있다.

제가 유학갔을 때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마치 독방에 수감된 것처럼 하숙집 아주머니가 방으로 올려주는 밥먹고 나오지도 않고 이불만 뒤집어 쓰고...
(사례 5)

사실 생활의 문제는 환경 변화 이전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

이 존재한다. 물론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긍정적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연속성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차원에서는 자기 관리의 차원이 중요한데, 자기관리를 위한 태도의 준비가 없이는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없다. 환경의 변화를 자기관리를 통해 극복해간 경우들은 외국 생활에서의 규칙성, 특히 자유로운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들을 통해 내적 힘을 비축한 경우들이었다.

둘째, 다른 활동을 병행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극복한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 경우 내적 딜레마를 다른 활동 출구를 통해 풀어간 사례들이다. 학교에서의 갈등을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긍정적으로 풀어간 경우들이다. 이 경우들은 학교 생활 이외의 영역을 발견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여준다.

한국에 와서 농구하는 재미로 학교에 다녔고 다른 기획 활동 등에도 참여했죠 스트레스를 풀 거리가 있었지요. 혼자서 할 일을 찾고 즐기는 스타일이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사례 2)

아마 서태지가 없었으면 적응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학교가서도 줄곧 밴드활동하고 글 읽고 쓰고 때로는 아이들 카운슬러 역할을 했고, 고 3 때에는 열심히 글을 써서 청소년 문학상도 수상을 했죠.(사례 3)

학교에 잠시 안 나가고 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놀지만 말고 음악같은 데 관심이 있냐고 해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상태는 이렇고 나서 많이 좋아졌죠.(사례 5)

한국사회로 돌아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갈등을 치유한 경우들이다. 일반적으로 적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좀더 집합적인 활동을 했던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 친구를 사귀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고 학교 생활 이외에 애정을 갖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는 생산적 경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에서의 학교 경험은 다른 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 생활했던 많은 경우에 있어 공통적으로 학업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참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활동 경험은 다른 활동 분야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고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터뷰 결과는 귀국 청소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학교 내의 대안도 중요하지만, 학교 이외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함의를 갖는다. 특히 귀국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학교 차원을 넘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다. 외국 생활의 경험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자신과 한국사회를 객관화하는 힘을 제공한다. 이 경우 자신의 동기, 나아가 진로 설정에 있어 목적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고, 이런 목적 설정이 자신의 생활과 관리를 돕는 적극적인 동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 경험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경우나 자신의 할 일을 찾은 경우 귀국 후의 생활이 아주 적극화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미국에 있을 때 중학교 때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고, 고등학교 때에는 저널리즘 활동을 했어요. 또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워서 미국 아이들에게 주목을 받았어요. 잘 하는 한가지가 있다는 것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런 점에서 별다른 문제를 심하게 느끼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사례 1)

중국에서 지낼 때 영화 오아시스를 보았어요. 그리고 영화를 찍는 사람이 되어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뭐하면서 행복하게 살까 이런 고민 지점에서 한가지 해결책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사례 4)

내가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연결시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한국 아이들은 목적이 불분명한

데, 나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었어요.(사례 6)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 생활에서 자신의 목표를 구체화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목표가 좀더 현실적 수준으로 구체화된 경우 지금의 생활에서 해야 하는 일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추상적인 고민에서 벗어나면서 생활을 잘 조직하는 경험으로 연결된다.

귀국 청소년의 인터뷰 결과에서 보면 외국 경험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타 문화 경험에서 생산적인 지점을 발견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로 연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귀국 후에도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런 점에서 보면 외국의 경험 자체가 갖는 중요성보다는 외국의 체험을 잘 해석하는 것이 좀더 중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또래집단과 지지자의 존재 여부이다. 특히 학교의 교사나 부모가 자신을 지지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큰 중요성을 갖는 것은 또래 집단 내에서 지지를 확보하는 문제이다. 청소년의 존재에 있어 또래 집단의 지지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귀국 청소년이 한국의 학교 생활에서 부적응하는 경우는 이러한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것은 자신에 대한 지지는 여러 관계를 유지시키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외국 생활에서 사귀었던 친구들과의 관계나 학교 경계를 넘어 만나는 친구들의 존재 여부가 적응 여부에 있어 시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한국에서 별로 친구가 없어요. 내가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는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있지만, 친구라는 느낌은 안들어요. 그래서 힘든 경우가 있는데, 언젠가 외국에서 알던 한국 친구가 왔을 때 그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고, 가끔씩 지금도 그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그래요. 그리고 외국

에서 알던 친구들에게도 편지를 보내기도 하구요. 이런 것이 친구가 없는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사례 5)

나는 친구가 없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나에게 잘해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왔다가 돈을 훔친 일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그 친구하고도 멀어졌어요. 친구가 없다는 것,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사례 7)

전자의 경우는 친구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견디어 내고 있는 경우라면, 후자는 친구 관계가 해체되면서 심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이다. 이처럼 귀국 청소년의 경험에 있어 친구의 지지라는 요소는 아주 중요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귀국 청소년에게 있어 일차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자신을 배척하지 않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준거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크게 보아 학교나 사회환경같은 요소일 수도 있지만, 청소년기라는 나이에서 가능한 경험세계를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는 친구의 존재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간 차이를 잘 수용해낼 수 있는 동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문제적일 수 있다.

5) 귀국 청소년 수용의 문제

환경과 적응의 다면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귀국 청소년 문제를 풀어가갈 수 있는 해법을 시사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환경 내 존재이기도 하면서 환경을 재구성하는 역동적인 주체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문제는 환경 자체에도 있을 수 있고 환경을 해석해내는 주체에게 있을 수도 있다. 환경과 적응이라는 좀더 추상적인 문제를 꺼내는 것은 문제를 환경 차원으로 환원하거나 주체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환경과 주체가 엮물리는 경험 영역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대

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귀국 청소년과 같이 친하게 지낸 친구들의 경험을 들은 것은 한국사회에서 귀국 청소년의 존재가 어떻게 읽히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경우는 가장 직접적으로 귀국 청소년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자료일뿐더러 귀국 청소년의 진술을 좀더 객관화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문화 차이를 넘어 친구관계가 설정되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할 수 있기도 하다.

인터뷰에 응한 3명¹²⁸⁾의 경험에서 친구의 외국 경험 자체는 자기 경험세계에 있어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지만 자신에게는 소원한 경험인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한 살 위의 형을 알았는데, 캐나다 유학을 하고 왔어요. 중 3때에는 아는 친구 중에 미국에서 한 2년인가 살고 있는 친구를 알게 됐어요. 나는 인천에 살아서 외국 갔다 온 친구들이 거의 없었는데,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살았다는 것이 그냥 신기했지요. 중 3때 알던 친구는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 가끔 와서 놀았는데, 염색하는 것이나 옷 장난아니게 입는 것들이 신기했어요.

강남에는 잘 사는 애들이 많아 학교 다닐 때 반에 3명 정도씩은 외국에 갔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 살다 온 친구하고는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는데 옷 메이커, 신발 메이커 이야기하다가 친해졌고 급식비 빵땅쳐서 라면 사먹고 하면서 친해졌죠. 주로 압구정동 쇼핑다니고 그랬

128) 귀국 청소년과 같이 지낸 경험이 있는 3인은 서로 다른 경제적 조건과 환경에 있다. 한 경우는 인천에서 살고 있으며 가정 형편은 중하층에 속한다. 단지 성격이 매우 활동적이어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 경우는 이른바 강남권의 학교에 다니고 있고 가정형편도 중산층이다. 이 경우는 학교 생활에서 일년에 3~4명씩은 외국에 가고 외국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많은 편이다. 마지막 경우는 학교 생활 이외의 활동에서 귀국 청소년이 아니라 외국 학생과 만나 같이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앞의 두 경우와 다르다.

는데, 쇼핑하는 것이 그냥 구경만 해도 재밌으니까 같이 다녔지요

두 사례에서 돈 씀씀이나 옷차림 등에서의 차이는 다 의식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경험이 받아들여지는 수준은 초기에는 신기하다, 재밌겠다, 신난다 등의 반응이 주 내용이었다. 공통적으로 “영어 발음할 때 발음 너무 굴린다” 정도의 이질감, “너무 자주 외국 이야기가 나올 때 짜증난다” 정도의 이질감 정도였다.

초기적 경험에서 이질감을 낳는 원인은 귀국 청소년의 경험치나 일반 청소년의 경험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영어 발음이나 생활수준의 차이 등이 의식되지만, 차이라는 점에서 의식되는 것을 넘어 문화적 갈등의 소지가 많지는 않았다. 특히 외국인과 생활했던 경우에서도 “차이를 느끼기는 했지만 특별하게 문제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라는 진술에서 보듯이 구체적 상황 속에서 문제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물론 짜증나는 때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살다온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재미있겠다, 신나겠다 그런 생각이다 그냥 그러려니 한다. 나도 교육제도나 학교 이런 것이 싫어 외국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집에서 돈벌어서 가라고 하니까 못간다

물론 세 경우에서 차이는 존재하지만 친한 관계를 유지한 동력은 큰 틀에서 보면 수용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차이가 아직 규정되지 않고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친구 관계를 설정하게 하는 것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적응 상황에 처한 경우는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하고 있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부적응의 경우 환경과 주체와의 관계에서 조율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학교를 역으로 규정

하면서 환경과 자신을 대립시키는 경우에 귀국 청소년의 환경과의 협상은 실패에 처하게 된다. 한국 사회를 고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한국의 학교와 친구들을 고정적으로 읽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내가 정말로 불안한 것은 보장된 길에서 벗어났다는 생각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친구들과 사귀기 어려운 이유는 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누기가 힘들어요. 외국에 있을 때는 길은 하나라는 느낌은 아니었고 이야기 소재도 여러 가지였는데, 한국에서는 하나의 길만 있는 것 같고 하는 이야기도 연애인 이야기라든지 다 똑같아요.(사례 4)

사람이 많아도 친해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술먹지 않고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 대해 너무 생각을 안해요. 밤새 술마시는 사람을 보면 빨리 죽고 싶어 안달하는 사람들 같아요.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들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인데, 말을 걸어주면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안돌봐주는 거예요.(사례 7)

사실 적응의 문제는 환경에 대한 사실 판단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환경에 대한 고정적 판단에서 비롯되는 경우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특징적으로 한국 생활에서 타협점을 못찾고 있는 경우에 한국 사회나 학교 생활에 대해 규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획일성과 외국의 다양성, 한국의 배려없음과 외국의 배려 등의 요소가 대립적으로 정의될 때 환경과 주체와의 조화가 깨지는 현상이 드러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귀국 청소년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의 경험에서는 상대에 대한 이해 방식이 비교적 규정적이지 않고, 특히 외국인과 원만하게 사귀었던 경우에는 문제 해결의 방식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외국 친구와 한두달을 붙어다녔지요. 가끔 문화 차이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었죠. 외국인인데 같을 수가 있겠어요. 내 경우에는 그 친구가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었는데 모르죠. 도움을 주는 친구의 존재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관계가 원만하게 설정되기 위한 전제가 다양성을 포용하려는 태도의 존재와 관계가 있음이 이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차이를 전제하고 문화적 다양성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우에 문제를 풀고 대안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 경우는 친구가 외국인이라는 점이 오히려 문제를 쉽게 풀게 했을 수도 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성의 폭을 확대해서 문제를 풀어나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귀국 청소년의 문제는 환경, 주제, 인식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귀국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크게 정리하자면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일, 귀국 청소년에게 환경과 조율할 수 있는 내적 태도를 형성시키는 일, 학교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일, 귀국 청소년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을 복합적인 수준에서 풀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귀국 청소년 적응을 위한 대안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같이 풀어나야 할 숙제이기도 할 뿐더러 한국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획일성을 풀어나갈 ‘공존’의 해법을 찾는 문제와 동일한 수준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4. 귀국 청소년 적응을 위한 대안

1) 대안 마련에서 유의할 사항들

이미 지적인 바 있듯이 있듯이 귀국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어떤 각도에서 ‘부적응’을 문제로 보는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자칫하면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기존의 학교를 불변의 실체, 더 나아가 적응할 필요가 있는 실체로 놓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건디어 내는 것이 ‘성공’으로 평가되는 식의 왜곡된 문제설정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장의 구상과 문제를 풀 활동들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이 삶이 채우고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것인만큼 그런 교육의 장을 새롭게 설계하고 학교 적응 이외의 영역에서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포함한 대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귀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대안 만들기의 필요성이 사회적인 수준에서 합의될 수 있는 문제인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면 개인적 수준의 대안 마련으로 한정하지 않는 좀더 특화된 대안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응과 부적응을 가르는 문제는 단순한 학업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다. 귀국 청소년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지점은 문제 행동 양태를 기술하고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맥락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점들에 착안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기관리와 동기설정, 학교생활 이외의 활동 활성화 등의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적극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것일 수 있다.

2) 현재의 대안에 대한 검토

귀국 청소년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한국사회에서는 1980년대 후반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대안 마련은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아주 뒤늦은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대안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해외주재원 가족의 자녀들과 귀국자녀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해외 주재원 가족이 거주하는 도시들에 전일제 일본인 학교의 수가 늘어나고, 귀국학생을 위하여 국립대학부속학교에 귀국학생 학급이 신설되고, 일반 공립학교에는 귀국자녀 연구협력위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일본의 19개 국립대 부속학교에 귀국학생 학급을 개설하고 문부성이 88개 학교를 귀국학생 협력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동경학예대학의 해외자녀교육센터, 재단법인 해외자녀교육재단, 각 시의 해외귀국자녀교육 연락협의회, 경도대학의 비교교육연구실, 귀국자녀회에서 해외주재자녀와 귀국학생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¹²⁹⁾

이러한 공식적인 귀국 청소년에 대한 관심외에도 일본의 경우 민간 부분에서도 모임과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부모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사회의 경우는 8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사회적 관심이 제기되었고 시범 실시 수준의 대안들이 마련되어 실천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는 대학입시 등과 관련하여 특례입학을 다루는 사설 학원과 기관들 중심으로 정보가 수집되고 네트워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지만, 학업활동 이외의 운영에 참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중단된 상태에 있다.¹³⁰⁾

129) 이윤선, 앞의 논문, pp 1~2.

다만 최근 들어 눈에 띄는 것은 귀국학생이 많은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귀국학생 특별반 등이 시범운영이 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논의들이 부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된 연구학교에서 실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3〉 귀국학생 관련 선행 연구학교와 연구 주제

년도	학교명	운영구분	주 제	운영 내용	운영 결과
1996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자율운영	귀국자녀 교육	1 한국어 적응 교육 2 학교생활 적응교육 3 교과 적응교육 4 체류국 언어능력, 유지교육 5 학년제, 무학년제 학급운영	1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 2 한국어 능력 신장
1994 ~ 1997	대전대덕초등학교	귀 국 학 생 특별교육	귀국학생 특별교육	1 학교생활 적응 교육 2 한국 전통교육 적응 교육 3 언어적응, 교과적응 교육 4 학부모 인식에 대한 연구	1 귀국학생 적응교육을 통한 입시지도 2 한국의 전통지도 및 민족관 확립
1997	경기부천상도초등학교	귀 국 학 생 특별학급	귀국학생 특별학급 (무학년제)	1. 무학년제 학급 운영 2 한국어 적응 교육 3 학교생활 적응 교육 4 교과 적응 교육 5 일반학급 적응교육	1 학교생활 적응에 따른 문화적 충격 완화 2 체류국 습득 언어 유지, 신장
1998	경기양호원초등학교	귀 국 학 생 특별학급	교과생활 적응교육	1 귀국학생 교육 환경 개선 2 수준별 프로그램 개발적용 3 생활적응 프로그램 개발적용	1 특별학급 인식 개선 2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3. 올바른 한국인 정체성 확립
1996	서귀포북초등학교	국제이해	국제이해 증진교육	1 국제이해 수업과제 선정 2 탐색활동 교육 자료 제작 3 국제이해 교육	1. 국제이해도 증진 기여 2 탐구학습을 통한 사고력, 발표력, 표현력, 종합력 향상
1998	순천선혜학교	특수교육	정신지체 학생적응 교육	1 체험활동 프로그램 구안 적용 2 체험활동 교수,학습 과정안 3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방안	1 사회적응 능력 신장 2 체험학습장 필요성 나타냄 3 부적응자 자신감 신장

130) 대표적으로는 YMCA와 홍사단에서 귀국청소년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참여가 저조하고 정부의 지원도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이처럼 민간단체의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귀국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업과 진학의 문제에 매달려 있어 문화적 적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학교에서 이루어진 수업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주로 언어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특징적으로 문화이해교육 등과 관련된 학습이 진행되어 언어와 학교 생활 이외에 문화 적응의 문제가 초기적인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학부모들의 의식 수준에도 문제가 있다. 다음은 학부모들의 의식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표 3-4> 귀국학생 학부모의 의식 실태

구 분	학부모의 기대 사항
학습 활동면	-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특별실에서 개별지도 받기를 희망 - 뒤떨어지는 수학, 사회과는 방과 후에 개별 보충지도 받기를 희망 - 학습과제를 힘들어 하지 않게 적절하게 내주길 희망
언어 생활면	- 외국어 사용능력을 살려주기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희망 - 양질의 외국어 발음 유지를 위해 원어민 교사가 지원되길 희망 - 다양한 외국어 사용능력 신장 프로그램 희망
교우 관계면	- 외국생활을 통해 익힌 행동양식이 이기적이며, 잘난 체 하는 모습으로 보여 또래집단에서 따돌림 받지 않도록 담임 지도 요청 - 귀국학생이 학교에서 특별대우 받는 학생으로 인식되어 친구들에게 시기나 따돌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귀국학생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귀국학생 개인 정보에 대하여 비밀 유지 희망
건강 생활면	- 균형있는 영양 급식을 바라지만, 개인의 식성을 존중하고 편식지도를 유연하게 해주길 희망
기 타	- 귀국학생의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해 담임교사의 허용적이며 인내심 있는 개별 지도를 요청함. - 귀국학생 교육은 학력 증진 보다 바른 심성을 길러주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기를 희망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학부모들의 요구도 매우 한정된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생활에서 ‘배려받기’를 원하는 지점들 이외에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특징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학부모의 인식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문제해결의 지점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국 학생이 밀집된 지역 이외에서는 실질적으로 접근가능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 개인적인 수준에서 사설 기관을 이용하거나 학부모들이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해결책을 찾는 수준이다. 더욱이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대안 역시도 아이들의 영어학습 능력을 쇠퇴시키지 않기 위한 모임 정도여서 문화적 적응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문제설정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귀국 청소년 적응을 위한 대안

대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윤곽을 서술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을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귀국 청소년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사회의 자원을 이용하는 식의 탄력적인 접근이 매우 절실하다. 이 절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수준의 제고나 여론화 등의 제안 등은 제외하고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 차원의 대안을 기술한다.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실적인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그 모델이 복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귀국 청소년의 숫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수혜자의 수는 절대적으로 제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접근가능하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고민되어야 한다. 귀국 청소년을 위한 대안 마련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별도의 학교를 세우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고정된 모델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 학교라는 상상

속에는 교과과정을 절대화하는 활동 모델이 존재하지만, 귀국 청소년의 적응 문제는 단순히 교과과정의 원활한 수행 문제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1) 정부와 민간의 협력 모델 만들기

이미 공론화된 방식과 같이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를 좀더 많이 지정하고 국제교교 등의 설립 등을 통해 귀국 청소년의 자질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이런 대안의 문제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사실 해외유학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귀국 청소년의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로만 한정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대단위의 예산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예산 등의 대폭적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시점에서 좀더 실천가능한 형태가 고민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자원과 정부 지원을 결합시키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방과 후 모델을 활용하거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획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안 마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우선적으로 민간주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인큐베이팅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2)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력자원 교육 지원

한국사회에서 귀국 청소년 적응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노하우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관련 연구작업 등이 초기적인 단계이고 그 결과에 대한 검증작업도 이제 출발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소프트웨어와 매뉴얼이 개발되지 않고서는 특정한 학교가 설립

된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미 살펴본 대로 귀국 청소년은 단일한 범주가 아니며 부적응의 유형 또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능동적인 부적응 유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유형 차이에 따른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험 등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귀국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할 인력 자원에 대한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재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 교사들 사이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보를 축적하는 작업 등이 병행 실시될 필요가 있다.

(3) 출국 전 교육과 귀국 준비과정의 내실화

귀국 청소년의 적응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외국 생활을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전 준비, 그리고 귀국을 위한 학업 준비와 마음의 준비등의 요소가 사례 분석을 통해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말하자면 귀국 한 이후의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것만으로는 귀국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생활에 대한 단순한 환상보다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 상황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제공의 기능이 사설 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특례입학과 같은 문제에 관한 정보 제공 등으로 정보가 한정되거나 집중되는 폐해가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집적되고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 적응 단계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의 확보

이미 지적된 바 있지만 귀국 청소년의 적응 문제는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초기의 문제로 한국어의 미숙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 차원에서부터 다문화 경험에 따른 문화적 인식차를 극복하기 위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의 문제까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귀국 청소년의 상황과 조건에 따른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귀국 청소년의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작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아직 귀국 청소년에 대한 양적 데이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실태 파악과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조사연구 작업이 실시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사작업을 바탕으로 단계별,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한 형태의 다양한 교육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 귀국 청소년을 위한 ‘응급 조치’적 성격의 대안과 좀더 확대된 의미에서 그 자원이 다시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5) 다문화 이해교육의 실시

귀국 청소년의 문제는 그 자신에 고유하게 내재한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귀국 청소년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동질화 압력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귀국 청소년만의 교육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학교 구성원 자체, 나아가 사회 전체 수준에서 다양성과 사회적 관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이해교육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시민교육, 글로벌 시민교육, 인권교육 등과 연계되어 실시될 수 있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상황을 막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귀국 청소년의 경우가 결합되어 교육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교육은 적응의 문제를 좀더 확대된 지평에서 다룸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발전된 가능성으로 확장시켜 낼 수 있는 문화역량의 확충을 기대할 수 있기도 할 것이다.

(6) 교사 교육

귀국 청소년의 부적응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는 교사 자신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교사 자신이 귀국 청소년을 특별한 존재로 간주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그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교육 방침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심리적인 수준에서 교사 자신이 귀국 청소년을 문제시할 경우 학생들 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교사들이 귀국 청소년을 영어를 잘하는 존재 정도로 가능성을 한정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귀국 청소년은 외국어 특기생 정도로 도구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귀국 청소년 중 상당수가 이러한 과정에서 불편해진다. 교사들이 귀국 청소년의 심리적 갈등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육 방침 등이 만들어져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줄일뿐만 아니라 귀국 청소년의 가능성을 폭넓게 인식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7) 학교 경계를 넘어 만날 수 있는 활동과 네트워크 지원

많은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학교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학교 경계를 넘는 프로그램이나 취미생활 등이 귀국 청

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차원의 대안은 프로그램 수준에서만 아니라 네트워크 모임 등을 통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동일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는 서로의 경험을 해석하고 또래집단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공공적 차원에서 귀국 청소년 모임과 일본의 조선인 학교 사이의 교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귀국학생들이 자신의 장점을 사회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능동적 구상이 필요하다. 단순히 귀국 청소년을 지원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그들의 능력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장과 활동을 구상하는 것은 좀더 능동적인 문제해결의 방식일 수 있다.

(8) 귀국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많이 지적되고 있듯이 귀국 청소년이라는 자원은 외국어가 숙달되어 있다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문화적 경험의 소유자라는 측면에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화적 장점이 학교 현장 속에서 사장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많은 청소년 축제 등에서 귀국 청소년들이 진행할 수 있는 아이টে은 적지 않다. 다양한 사회의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외국어 사이트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학교 내에서도 학교축제 등이 의무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게 하고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방식의 기획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서로 가지는 장점을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귀국 청소년 사이의 연대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

(9) 귀국 청소년 부모 교육과 정보 제공

일본의 사례에서는 부모들의 활동을 통해 귀국 자녀들의 문제를 서로 나누면서 풀고 있고, 그 효과도 크다고 알려져 있다. 귀국 청소년의 적응 여부에 부모의 태도나 부모의 지원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가족 사이의 관계 설정은 문제를 푸는 중요한 지점일 수 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겪는 경험을 공유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노하우 등이 공개되고 정보화되어야 한다. 부모들 사이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확대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부모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소식지가 만들어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지역별 모임 등이 조직될 수도 있다. 나아가 부모들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지원을 촉구하고 자원을 끌어낼 수 있는 단위를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모들이 상호 교육할 수 있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될 필요가 있다.

(10) 귀국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mentoring)¹³¹⁾ 프로그램의 운영

귀국 청소년의 적응 문제에 있어 지지집단의 존재가 강조된 바 있

131) 멘토(mentor)라는 말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 시절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의 아들을 멘토라는 이름의 친구에게 맡긴 것이 이 말의 유래라고 한다. 그 친구가 아들에게 친구, 선생님, 상담자 등의 역할을 하면서 잘 보살펴 준 이후로 사용된 말이다.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멘토링이라는 단어는 선배가 후배에게 다양한 지지 역할을 하면서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으로 다양한 조직에서 이런 시도가 존재하고 있다.

다. 지지집단이나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존재할 때 귀국 청소년의 적응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 내에 지지자의 존재 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학교 현장 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많은 조직에서 시도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심리적 지지집단의 존재를 현실에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한다. 귀국 청소년 적응 문제가 아직은 사회적 관심사에 등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가능한 프로그램의 폭은 넓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것은 커다란 비용 부담없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일 수 있다. 특히 또래 집단 내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설은 친구관계를 일차적으로 형성시키고 그 친구관계를 통해 한국사회와 학교 현장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의 경험에 대해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은 실제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IV. 맺음말

공 백

IV. 맺음말

탈북청소년과 귀국청소년의 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포용력의 확산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분단상태에서의 고도성장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채택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다양성의 인정보다는 획일적인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문화가 발전시키는데 일정한 제약을 보여왔다. 따라서 탈북청소년과 귀국청소년의 경우도 한국사회의 순조로운 적응이라는 문제와 아울러 이들이 지닌 공통의 특성에 대한 관용적 접근자세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대안의 마련도 이와 같은 방향성속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청소년과 귀국청소년은 각각 다른 사회에서 생활하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두 집단의 경우 문제행동의 상당부분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과 부적응과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체제상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귀국청소년의 경우 이념과 체제 보다는 사회문화적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과 귀국 청소년의 적응 문제를 같이 다루기에는 많은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의 경우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험은 ‘추방’의 측면이 강하다면, 귀국 청소년의 경험은 ‘선택’의 측면이 강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상의 기본적인 차이 외에도 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평가의 차이 등이 매우 크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존재조건 상의 상당한 차이로 드러나기 마련이고, 현실적으로도 교육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과 귀국청소년의 문제행동의 분석과

대응체제의 마련에 있어서는 다소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적을 뿐더러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지 마스크 등을 통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어떻게 자녀들을 다루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유순하지 않을 경우 매를 드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국 등지에서 은닉생활중 부모들의 권위가 낮아진 상태이며, 북한이탈 청소년의 제반 일탈행동의 배경에는 부모들의 부부갈등 등으로 인한 심각한 가정폭력, 아이들에 대한 방치 등이 있다. 국내입국이후 남한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적응과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가정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상당수의 경우에는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들은 무연고 청소년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귀국학생의 경우 특례입학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와는 달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진학을 위한 학업열의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학업의 목표도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귀국학생의 경우에는 부적응의 대안으로 체류경험국으로의 유학의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는 사회체제의 차이로 인한 적응 문제와 경제력 등의 해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북한 사회에서 형성된 인성 영역의 문제도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회적 시선의 차이는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매우 큰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이에 반해 귀국 청소년의 경우는 경제적 배경이나 사회적 시선의 문제에 있어 부적응하는 케이스보다는 교사나 급우들과의 관계 형성에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흔히 지적되는 또래관계에서 '왕따'의 문제도 뒤쳐진 측면보다는 튀는 측면에서 일어날 경우가 높은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적 대안 마련에 있어 문제를 뒤쫓기보다는 세부화해서 대안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북한이탈청소년과 귀국청소년 문제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아직 한국사회가 문화적인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국사회 내에서 타자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의 구축이라는 과제에서 타문화 경험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통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1999 귀국학생 교육담당 초등교육 연수」.
- 김영수·정영국. 「탈북 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서울 : 통일연수원, 1996.
- 박종철·김영운·이우영.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6.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창립총회」. 1999.11.3.
- 선한승. 「북한 탈북 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과제」.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1995.
-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서울 : 세명, 2001.
-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과제」 통일교육원, 2002.10.18.
- 전병제. 「사회심리학」. 서울 : 경문사, 1993.
- 전우택. 「통일후 예상되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 통일원 95년도 연구용역 과제.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보고서」. 1998.12.12.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1999.8.11.
- 통일원.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서울 : 통일원, 1994.
- 통일원. 「인권관련 법규 및 동·서독 사례연구」. 1994.
- 한국교육개발원. 「내가 받은 북한교육」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4.

- Britannica.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10.* By Encyclopaedia Britain Inc. 1994.
- E. Fromm. *Escape from Freedom.* Rinehart. N.Y. 1941.
- G. C. Kinloch. *The Sociology of Minority Group Relations.* Prentice Hall Inc, 1979.
- H. F. Shaffer.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Houghton Mifflin co. 1956.
- John T. Doby, Alvin Boskoff, and William Pendleton. *Sociology : The Study of Man in Adaptation* (Lexington, Mass. : D. C. Heath and Co., 1973).
- M. Gordon.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 Oxford Uni. Press. 1964.
- R. Bennett. *Aging, Isolation and Resocialization.*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980.
- UNRISD.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and Prospects of Guatemalan Refugees in Mexico.*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1987.
- UNRISD. *Sustaining Afghan Refugees in Pakistan Report on the Food. Situation and Related Social Aspects.* 1983.

2. 논 문

- 강영준. “조기유학 보내기가 겁난다.” 『뉴스메이커』제 542호.
- 김홍주. “조기유학(유학이민)의 현황 및 국민의식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유학이민)의 명암』. 2001년도

제 1차 KEDI 교육정책포럼.

김혜경. “일제하 ‘어린이기’의 형성과 가족변화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김정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노자. “‘국민’이라는 이름의 감옥 : 구한말의 국민담론을 중심으로.” 강수돌 외. 『탈영자’들의 기념비』. 서울 : 생각의 나무, 2003.

박선경.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1998.

서정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원문제.” 경남대 북한대학원 세미나. 1999.10.2.

순천용담초등학교.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 운영보고서(2/2) : 귀국학생의 학교생활 조기 적응과 해외 경험 살리기」. 1999. 11. 17.

엄경남.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1.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서강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오혜정. “남과 북을 이어주는 북한이탈주민.” 통일과 가톨릭 사회복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21세기 가톨릭사회복지 심포지엄 자료집. 1999.

윤덕룡·강태규. “북한이탈주민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통일한국에서 예상되는 사회갈등과 그 대책』. 1997.5.

-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귀순자 수기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윤여상. “재중 탈북 청소년 인권실태와 대처방안.” 북한인권 및 남북인도적문제 : 현황과 대책 비공개 워크숍. 2002.11.1.
- 윤인진. “소수자 연구 시각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 경남대 북한대학원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9.10.
- 이미나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 한국교육개발원. 「2001년도 제 1차 KEDI 교육정책포럼 :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유학이민)의 명암」. 2001.
- 이영석. 다리공동체, “북한이탈주민민간단체협의회 아동청소년분과 세미나 토론.” 2003.10.10.
- 이영주. 하늘꿈학교, 북한이탈주민민간단체협의회 아동청소년분과 세미나 토론. 2003.10.10
- 이윤선. “귀국학생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철우.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적응력 제고력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통일원 신진학자 지원연구, 1996.
- 이형삼. 귀국학생들 2 : 파란 눈 친구, 선생님이 그리워요, 「NEWS+」 제 77호, 4월 3일자.
- 전우택·김명세·박중규.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통일한국에서 예상되는 사회갈등과 그 대책」. 1997.5.
- 정진경 “문화간 훈련 이론의 개괄” 남북문화통합 워크숍 발제문. 2003.5.9.

- 조완제. “조기유학 보내기가 겁난다.” 『뉴스메이커』 542호.
- 주은희. “청소년 친구관계와 가족.” 손승영 외. 『청소년의 일상과 가족』. 서울 : 생각의 나무, 2001.
- 차경수. “다문화시대의 귀국학생 국내교육 적응방안.” 『귀국학생 조기 적응 교육 및 국제성 유지 신장 방안』. 1998.
- 최화순. “해외 귀국아동의 적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D. Perluss and J. F. Hartman. “Temporary Refugee : Emergence of a Customary Norm.”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6, 1986.
- Harold Kerbo. “Movements of Crisis and Movements of Affluence : A Critique of Depriva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Theor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26. No.4, December 1982.
- H. J. Eysenk. *Handbook of Abnormal Psychology*. New York : Basic Books. 1959.
- SDDPRK.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Second periodic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2002.4.9.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1990/6/Add35.

2003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03-R01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
-청소년 의복문화와 소비-(맹영임 · 구정화)
- 03-R02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
-청소년 음식문화와 소비-(조혜영 · 김선아)
- 03-R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I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윤철경 · 조아미 ·
백지숙 · 유혜림)
- 03-R04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 -정책제안 요약집-(임지연)
- 03-R05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실태연구(이종원 · 유승호)
- 03-R06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김정주 · 김용대 · 성기원)
- 03-R07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 연구
(황진구 · 권태희)
- 03-R08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최원기 · 전명기 · 이주연)
- 03-R09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전경숙 · 노재봉)
- 03-R1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폭력 대책 연구
(이민희 · 임영식 · 이진숙)
- 03-R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길은배 · 문성호)
- 03-R12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우정자 · 김은경 · 김형주)
- 03-R1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 · 이용교 · 김세진)

- 03-R14 청소년 정보소의 실태 조사 연구(김경준·최선희)
- 03-R1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조사개요보고서
(이경상·김진호·오해섭·김희진)
- 03-R16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과 함양방안 연구(김선미·남경희)
- 03-R17 가족복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 모색(방은령)
- 03-R18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정책적 함의(문성호)
- 03-R19 지방정부의 청소년예산결정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김영호)
- 03-R20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유형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통제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김희화)
- 03-R21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방향성 탐구(최동선)
- 03-R22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이성식)
- 03-R23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노혁)
- 03-R24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전신현)
- 03-R25 폭주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예방에 관한 연구(김문섭)
- 03-R26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그리고 운영: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문성원)
- 03-R27 부모를 위한 청소년지도 가이드(신인순 외)
- 03-R28 한·중·일 청소년 정책비교 연구(이종원)
- 03-R29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연구(김선미)
- 03-R30 2003전국청소년 자원봉사 주관사업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1 2003 대한민국 청소년봉사상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2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보고서(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3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매뉴얼(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4 일본자원봉사 지원센터 활동사례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5 한중정책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6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수립 공청회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7 청소년 삶의 질 향상 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8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김영한 · 서정아)
- 03-R39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재분 · 박효정 · 현주)
- 03-R40 일탈 · 범죄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김은경 · 이동원)
- 03-R41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손유미 · 김상호 · 조정아)
- 03-R42 귀국 및 탈북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조한범 · 이금순 · 이우영 · 전효관)
- 03-R4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춘화 · 윤옥경)
- 03-R44 서현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 비용산정에 관한 연구
(김영한 · 김진호 · 김갑성)
- 03-R4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길은배 · 한만길 · 최영표 · 강영혜 · 오해섭 · 김학성)
- 03-R46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이경상 · 조혜영 · 박창남)
- 03-R47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교육시설 특성화방안
(김정주 · 김진호 · 소병조)
- 03-R48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이종원 · 이경상 · 김종길)

- 03-R49 청소년 책읽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춘화·서정아·김상현)
- 03-R50 선진국형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김영지·전경숙·김민)
- 03-R51 청소년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9회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집 모음집-
(황진구·강명숙·임지수)
- 03-R52 2003특성화 수련거리개발 [3]-청소년마을체험
(윤철경·이은경)
- 03-R53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6]-국제언어캠프
(김선미·김호숙)
- 03-R54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7]-환경음식만들기
(서정아·최경학)
- 03-R55 청소년 단체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맹영임·
이광호·김민·임연희)
- 03-R56 연령대별 외국청소년 정책비교 및 정책 대안
(윤철경·이상오·황성하·서수경)
- 03-R57 청소년 개발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김진호·송병국·
임영식·김진화·오해섭·윤명희·정효진)
- 03-R58 선진 각 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우정자·
김문섭·최종혁)
- 03-R59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함병수·임지연·김종두)
- 03-R60 청소년 국제교류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혜영·최원기·임지연)
- 03-R61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황진구·김경준·이춘화·최창욱)
- 03-R62 인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연구(김경준·함병수·
김영한·최창욱)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3-05

연구보고 03-R 42

북한이탈청소년 및 귀국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연구

인 쇄 2003년 12월 26일
발 행 2003년 12월 30일
발 행 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 행 인 권 이 중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대산문화사
전화 (02) 2278-0958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2188-8844(사무국)

ISBN 89-7816-504-4(93330)

공 백

북한이탈청소년 및 귀국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연구

연구책임자 :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금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전효관 (하자센터 부소장)

한국청소년개발원
통 일 연 구 원

본 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3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5개 국책연구기관이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머리말	1
II. 북한이탈청소년	7
1. 북한이탈주민과 적응에 대한 이론적 고찰	9
2.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사회적응	16
3.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실태	35
4.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부적응과 문제행동	62
5. 북한이탈청소년 문제의 원인	84
6. 북한이탈청소년문제 대책	87
III. 귀국청소년	95
1. 연구의 패러다임과 연구 방법	97
2. 귀국 청소년의 실태와 특성	110
3. 귀국 청소년의 경험들	118
4. 귀국 청소년 적응을 위한 대안	139
IV. 맺음말	151
참고문헌	156

표 목 차

<표 2-1> 북한이탈주민 연령 분포 (2002년도 입국자)	18
<표 2-2> 북한이탈주민 출신지 분포 (2002년도 입국자)	18
<표 2-3> 북한이탈주민 재북시 직업 분포 (2002년도 입국자)	18
<표 2-4>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37
<표 2-5> 한국생활의 어려움	38
<표 2-6> 현재 고민	39
<표 2-7> 사회 부적응의 원인	40
<표 2-8> 연령별 직업형태	41
<표 2-9> 직업만족도	42
<표 2-10>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소	43
<표 2-11> 연령별 여가활동	44
<표 2-12> 남한사람의 자신에 대한 태도	46
<표 2-13> 주변사람과의 어울림	47
<표 2-14> 이웃과 교류 빈도	48
<표 2-15> 남한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을 무시한다는 의견	49
<표 2-1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유	50
<표 2-17> 어려울 때 의논 상대	51
<표 2-18> 한국 입국시 동반자	53
<표 2-19> 현재 동거인	54
<표 2-20> 한국 입국시 기대 요소	55
<표 2-21> 현재 가장 필요한 것	56
<표 2-22> 장래희망 직업	58
<표 2-23> 직업선택시 고려사항	59
<표 2-24> 원하는 결혼상대	60

<표 2-25> 북한이탈주민 연령 분포 (2002년도 입국자)	63
<표 2-26> 2003년 입국 북한이탈주민 연령 현황	63
<표 2-27> 2003년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해외체류 기간 현황	64
<표 3-1> 초·중·고 유학자수 및 유형별 비율	111
<표 3-2> 학교급별 연도별 귀국학생 귀국 현황	113
<표 3-3> 귀국학생 관련 선행 연구학교와 연구 주제	141
<표 3-4> 귀국학생 학부모의 의식 실태	142